

좋은 경제학을 찾아서 2016

: 주류경제학과 오스트리아학파의 만남

김인철 · 윤상호 편저

 자유경제원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좋은 경제학을 찾아서 현진권 (자유경제원 원장, 전 한국재정학회 회장)	6
--	---

1부 주류경제학의 장점과 단점

주류경제학의 장점과 단점 윤상호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10
신고전학과와 오스트리아학과에 관한 소고 구정모 (강원대 경제학과 교수, 차기 한국경제학회 회장, 전 한국재정학회 회장)	30
신(新)오스트리아학과: 의도와 인지적 한계를 지닌 인간의 경제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 연구소장)	32
시카고학과와 경제학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 전 한국노동경제학회 회장)	49
주류경제학의 반성과 미래 조장욱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한국경제학회 회장)	61

2부 오스트리안 경제학의 장점과 단점

한 지붕 두 가정, 오스트리아학과와 시카고학과 김인철 (성균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전 한국경제학회 회장)	65
“한 지붕 두 가정, 오스트리아학과와 시카고학과”에 대한 논평 김용진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77
시카고학과와 오스트리아학과의 비교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전 한국경제학회 회장)	97
“한 지붕 두 가정, 오스트리아학과와 시카고학과” 논평 신중섭 (강원대 윤리교육과 교수)	99
“한 지붕 두 가정, 오스트리아학과와 시카고학과” 논평 황수연 (전 경성대 행정학과 교수,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 회장)	104

서문

좋은 경제학을 찾아서

현진권
자유경제원

Mankiw 교과서

- 시장실패: 외부성(20), 공공재(12),
독점 및 불완전경쟁(18), 비대칭정보(6)
 - 정부실패: 총 1
 - 정부실패/시장실패=> 2%, 평균 17%,
 - Gwartney et, al (1976): Economics: private and public choice 122%

- 시장실패만 있고, 정부실패는 없다

- 외부성: Pigou 후생경제학 (1918)

It stems from basic defects in the current approach to problems of welfare economics. What is needed is a change of approach. (Coase, 1960)

=> 미움과 정의개념을 만들어낸 이론

- 공공재: Samuelson 정부지출 이론(1954)

명쾌하지만, 비현실적인 주류경제학

- transaction cost economics

1) Taxation:

- irrelevant whether the consumer or the producer is taxed.

2) Modigliani / Miller theorem;

-> the ratio of debt to equity financing is irrelevant to the firms value

3) Ricardian Equivalence Theorem:

- government's choice over taxation and debt is irrelevant to the level of household wealth.

완전경쟁이 만들어 낸 허상

- 경제학을 물리학으로 만들어낸 주류경제학의 우상
 - blackboard economics

다른 이슈

- 경제는 equilibrium? market process?
- 경제학: human action, not human design
- information: Information is a product of the market
- Firm: entrepreneurship

한국의 현실

- 점점 커지는 정부: 포퓰리즘 정책
 - 무소불위 국회권력
 - 자유가치: 경제적 자유, 소유권
- => *bad economics* 로는 한국문제를 풀 수 없다

▶ 경제학의 지평을 넓히자: Annual workshop

- 자유주의 철학, 역사
- Austrian economics, Law and economics, Public choice

1부

주류경제학의 장점과 단점

주류경제학의 장점과 단점

윤상호

2016년 11월 4일

요약

본 연구는 주류 경제학(Mainstream Economics)과
오스트리아경제학(AustrianEconomics)의 장·단점 비교를 통해 상호간의 이해를 돕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There is no such a thing as Austrian economics - only good economics, and bad economics (Milton Friedman (1974) at South Royalton, Vermont).¹⁾

1. 연구배경

본 연구의 작성은 자유경제원의 현진권 원장의 전화 한 통으로 시작되었다. 현진권 원장은 지난 9월말 전화 한 통을 통해 자유경제원에서 주류 경제학(Mainstream Economics) 과 오스트리아 경제학(Austrian Economics)에 대한 학술 세미나를 기획 중이라고 소개하며 필자에게 주류 경제학을 대표하는 신고전학파(Neoclassical Economics)와 오스트리아학파를 상호간 비교·검토하는 발제를 부탁하였다. 사실 현진권 원장의 이러한 부탁은 필자로 하여금 본 연구를 준비하고 작성하며 두 가지 고민에 빠져 들게 만들었다.

필자의 첫 번째 고민은 필자의 지식이 이 두 학파에 대한 심도 있는 비교가 가능할 만한 수준이며 또한 그러한 비교가 가능한 학문적 위치와 경험을 갖고 있느냐는 것이었다. 사실 이러한 학파간의 비교 및 고찰은 경제학설사를 전공해 두 가지 학파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Stigler (1969)가 방법론에 대한 고민은 단 한번 필요하며 이는 자신의 학술적 경력을 마무리할 시점에 필요하다고 말했듯이 수년간의 학술적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학문적 성과를 되돌아보는 시기에 가능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²⁾ 하지만 필자는 경제학설사를 전공한 경제학자가 아닌 단지 경제학적 논리를 적용해 여러 규범적 함축성 (Normative Implication)을 제시하는 업무를 현재 수행하고 있으며 경제학에 입문했던 경력 또한 너무나 짧기에 두 학파에 대한 엄밀한 비교를 시도하기에 너무나 지식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고민하게 만들었다. 다만 이직 결과의 만족도를 불문하고 현진권 원장이 한때 필자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한국경제연구원에 초빙했었던 주체자이자 원내 사회통합센터의 소장으로 모시고 있는 분 이였기에 감히 자유경제원 원장으로 영전 후 첫 부탁을 마냥 거절할 수만은 없었다.

본 연구의 주제와 좀 더 관련된 필자의 두 번째 고민은 과연 어떠한 측면의 비교가 본 연구의 독자로 하여금 신고전학파와 오스트리아학파에 대한 이해를 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식인가에 대한 고민이었다. 사실 대부분의 학파 간 비교는 미시경제학(Microeconomics)적 측면보다는 거시경제학(Macroeconomics)적 측면의 비교를 통해 이루어지며 학파간의 차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미시경제학에 대한 학파 간 혹은 학자간의 이견을 찾아보기 힘들며 많은 이견이 거시경제학적 분석에서 사용되는 가정과 규범적 진단을 통해 확실히 드러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

1) Institutes of Humane Studies가 조직해 South Royalton에서 개최된 일주일간의 컨퍼런스에 참가한 Milton Friedman의 발언으로 Dolan (1976); Vaughn (1998)에서 인용했으며 South Royalton 컨퍼런스는 현대 오스트리아학파의 부활이 시작된 계기로 작용하였다.

2) "Economists should only do methodology once, when they are old and reflecting back on their career"라고 Stigler (1969)에서 적은 것으로 필자는 알고 있으나 정확한 인용의 확인이 필요하다.

19세기 말의 한계혁명(Marginal Revolution)을 이끈 세 명의 경제학자 중 한 명인 Menger(1804[1871])의 독특한 분석 방식에서 유래된 오스트리아학파를 거시경제학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경제적 거래에 마찰이 존재한다고 인식한다는 점에서 케인즈학파(Keynesian Economics)의 가격의 경직성(Price Rigidity) 가정과 유사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거시경제학적 특성을 나타내는 규범적 진단에서는 신고전학파(Newclassical Economics)와 유사하게 정부의 시장 간섭(Government Intervention)이 갖는 역효과를 오스트리아학파의 거시경제학은 주목하고 있다. 즉 오스트리아학파의 거시경제학은 서로 상반된 시각을 대표한다고 대부분의 경제학자가 인식하고 있는 케인즈 학파와 신고전학파 모두와 동질성이 나타나는 역설적 특성을 가지며 오스트리아학파의 거시경제학적 특징 중 어느 측면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상반되는 비교를 시도할 수 있다.

이러한 오스트리아학파의 거시경제학적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미시경제학적 측면의 신고전학파와 오스트리아학파 간 비교가 각 학파의 상호간 장·단점을 파악하는데 있어 적절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두 학파의 미시경제학적 측면에 주목해 상호간의 비교를 시도하고 각 학파가 갖고 있는 장·단점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 단 이미 거론된 바와 같이 필자의 경제학설사적 지식의 제한으로 인해 두 학파에 대한 학술적 의미와 기여도 등에 대한 본 연구의 서술은 단편적이며 대표적 인물과 사건, 그리고 단순화된 개념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학술적 의미와 기여도를 포함해 오스트리아학파의 학설사에 대해 관심 있는 독자는 Boettke (1998, 2012); Caldwell (2008); Vaughn (1998) 등을 통해 오스트리아학파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구할 수 있다. 또한 신고전학파와 오스트리아 학파 간의 비교 및 차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에 관심 있는 독자는 본 연구와 유사한 맥락에서 작성된 Rosen (1997)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우선 2절에서 본 연구의 작성을 위해 필자가 염두하고 있는 신고전학파와 오스트리아학파의 미시경제학적 특징을 설명하고 정의한다. 3절은 2절에서 설명된 학파별 정의에 따라 두 학파를 비교하고 장·단점을 설명한다. 단 신고전학파에 비해 오스트리아학파의 대중적 인지도가 현저히 낮다는 점을 고려해 신고전학파의 장·단점을 오스트리아학파와의 비교를 통해 서술하며 제시된 6가지 항목 중 합리성과 행동의 성격을 중심으로 비교·분석을 시도한다. 4절에서는 3절의 신고전학파와 오스트리아학파 간 비교에 근거해 상호간의 보완 가능성을 타진하며 연구를 마무리한다. 완벽한 학파는 물론 완벽한 분석 방식도 존재하지 않으며 신고전학파와 오스트리아학파는 서로의 장점을 활용해 발전해 나갈 수 있다.

2 신고전학파와 오스트리아학파의 정의

신고전학파와 오스트리아학파의 본격적인 비교에 앞서 본 절은 신고전학파와 오스트리아학파의 학문적 뿌리와 함께 학술적 정의를 살펴본다. 오스트리아학파 및 다른 경제학파와의 비교를 통해 신고전학파를 구별한 최초의 인물은 Veblen (1900)으로 알려져

있으며 신고전학파와 타 경제학파간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Weintraub, 2002).

No attempt will here be made even to pass a verdict on the relative claims of the recognized two or three main “school” of theory, beyond the somewhat obvious finding that, for the purpose in hand, the so-called Austrian school is scarcely distinguishable from the neo-classical, unless it be in the different distribution of emphasis. The divergence between the modernized classical views, on the one hand, and the historical and Marxist schools, on the other hand, is wider, so much so, indeed, as to bar out a consideration of the postulates of the latter under the same head of inquiry with the former (Veblen, 1900)

필자가 이탤릭체로 강조한 scarcely distinguishable이 나타내는 바와 같이 Veblen (1900)에 따르면 20세기 초까지 신고전학파와 오스트리아학파간의 차이는 희소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또한 신고전학파는 오스트리아학파와의 구별이 아닌 마르크스학파를 포함한 타 학파들과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고안된 구별 방법이란 걸 알 수 있다. 또한 신고전학파와 오스트리아학파라는 구별은 영국과 오스트리아라는 다른 지역에서 각기 한 계혁명을 이끌었던 Jevons (1879[1871])와 Walras (2013[1874]), 그리고 Menger (1950[1871])의 기여를 인식하고 Marshall (1920[1890])이나 Böhm-Bawerk (1891[1889])와 같은 후학들을 칭하기 위한 당시의 독특한 구별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

반면 신고전학파의 현대적 의미는 한계주의(Marginalism)가 갖는 정체성을 포괄하고 대표하는 위해 Veblen (1900)이 사용했던 신고전학파가 가졌던 의미와 다르다. 현대적 의미의 신고전학파란 거시경제학의 케인즈학파와 신고전학파를 포함해 대다수 원론 교과서가 설명하는 미시경제학적 접근 방식을 포괄하는 거의 대부분의 현대 경제학, 즉 주류 경제학을 의미한다. 따라서 신고전학파가 의미하고 대표하는 모든 구체적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간략한 정의를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1절에서 거론했던 것과 같이 미시 경제학적 접근방식을 중심으로 공통점을 살펴보면 Weintraub (2002)이 제시했던 신고전학파의 방법론을 통해 다음과 같은 신고전학파의 정의를 찾을 수 있다.

1. People have rational preferences among outcomes.
2. Individuals maximize utility and firms maximize profits.
3. People act independently on the basis of full and relevant information.

즉 신고전학파란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최대한 활용해 합리적 선호체계로 구성된 자신의 효용과 이익을 극대화하는 가정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경제학적 분석을 의미한다.

위에서 거론된 신고전학파의 가정에 가장 부합하는 방법론을 발전시킨 대표적 학파

는 시카고학파(Chicago School)라 할 수 있다. 시카고학파의 독특한 가격이론(Chicago Price Theory)을 발전시킨 대표적 인물은 Stigler and Becker (1977)로 합리적 선호체계와 효용의 극대화라는 분석 방식을 경제적 문제만이 아닌 사회·정치적 문제에까지 적용해 경제학자의 활동 영역을 확장시킨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특히 Becker (2013)의 경우 극대화하는 행위, 시장 균형, 그리고 안정된 선호 체계라는 세 가지 가정을 동시에 적용하는 분석을 경제학적 접근 방식이라 정의하며 위에서 거론된 신고전학파의 방법론에 대한 체계화를 시도하며 발전시켰다.³⁾

이와 같은 신고전학파의 경제학적 분석 방식을 가장 쉽게 대표하는 그림은 Marshall(1920[1890])이 제시하고 대다수의 경제학 원론서가 기초 분석 방식으로 소개하고 있는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을 통한 시장 경쟁 모델이라 할 수 있다.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을 통한 시장 경쟁 모델은 그림 1과 같이 시각화될 수 있으며 신고전학파가 가장 중시하는 시장 균형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보여준다. 그림 1이 나타내고 있는 균형 분석 방식에 따르면 소비자의 효용이 극대화된 상태를 나타내는 수요곡선과 생산자의 이익이 극대화된 상태를 나타내는 공급곡선의 교차점에서 시장 균형이 형성된다. 따라서 균형점인 (P^*, Q^*) 가 나타내는 시장 상태는 소비자의 효용과 생산자의 이익이 동시에 극대화된 상태를 의미해 시장 효율성이 주어진 환경 하에서 최대 확보된 상태를 나타내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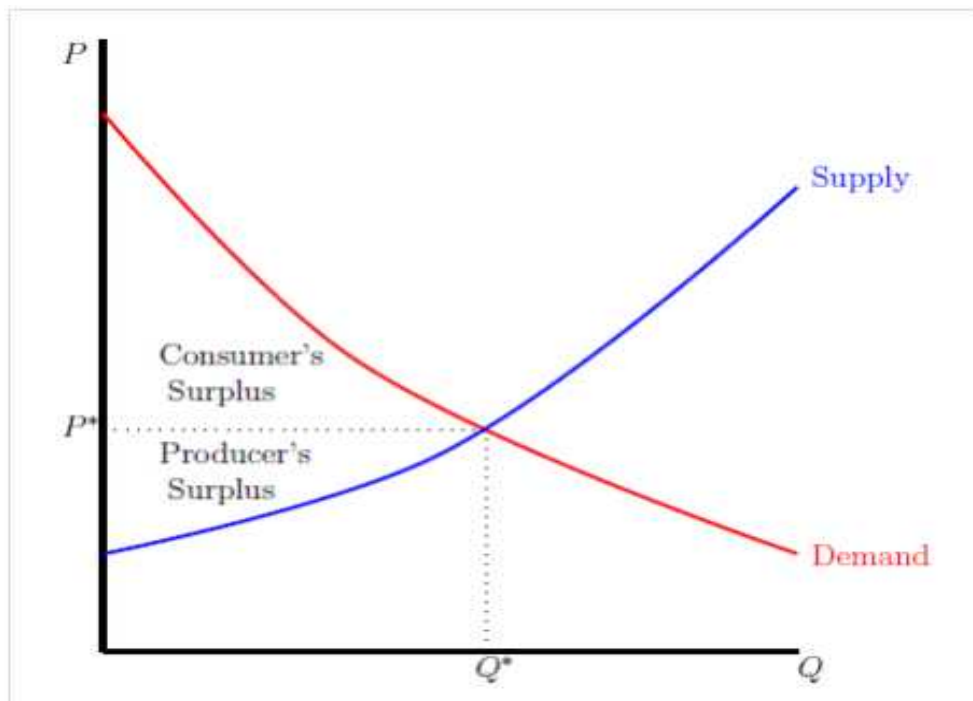
사실 경쟁 시장 모델에 대해 필자보다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되는 본 연구의 독자와 토론자, 그리고 경제 위크샵에서 필자의 발표를 지금 듣고 있는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그림 1에 대해 더욱 상세한 설명을 시도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필자가 생각하기에 그림 1은 오스트리아학파의 미시경제학적 분석 방식을 설명하는데 아주 유용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그림 1을 통한 오스트리아학파의 설명에 앞서 신고전파의 방법론을 통해 정의를 찾았던 방식과 동일하게 오스트리아학파의 방법론을 통해 정의를 우선 살펴보자.

오스트리아학파 내에서도 오스트리아학파의 정의와 의미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며 서로 상반된 의견이 존재한다. Mises (1949)와 Rothbard (2009[1962])를 따르는 몇몇 부류는

그림 1: 수요곡선, 공급곡선, 그리고 시장 균형

대다수 경제학자가 오스트리아학파로 분류하는 Hayek (1948)과 Kirzner (2015[1973])를 오스트리아학파의 일원이 아니라고 비판하는 등 그 내부에서도 확연히 드러나는 이견 및 상반된 정의가 존재한다(한 예로 Hoppe (1994)를 참고). 따라서 신고전학파에 대한 간

3) The combined assumptions of maximizing behavior, market equilibrium, and stable preferences, used relentlessly and inflexibly, form the heart of the economic approach (Becker, 2013).



략한 정의가 불가능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스트리아학파에 대한 간략한 정의도 불가능하다 할 수 있다. 다만 오스트리아 학파를 대표하는 학자에 대한 이견을 불문하고 오스트리아학파를 아우르는 방법론이 Lachmann (1978)에 의해 다음과 같이 제시된 바가 있다.⁴⁾

1. A radical subjectivism, today no longer confined to human preferences but extended to expectations.
2. Time is the dimension of all change. It is impossible for time to elapse without the constellation of knowledge changing. But knowledge shapes action, and action shapes the observable human world. Hence, it is impossible for us to predict any future state of this world.
3. A distrust of all those formalizations of economic experience that do not have an identifiable source in the minds of an economic actor.

즉 오스트리아학파란 급진적 주관주의, 시간과 지식의 중요성, 그리고 방법론적 개인주의를 동시에 고려한 방법론을 사용하는 모든 분석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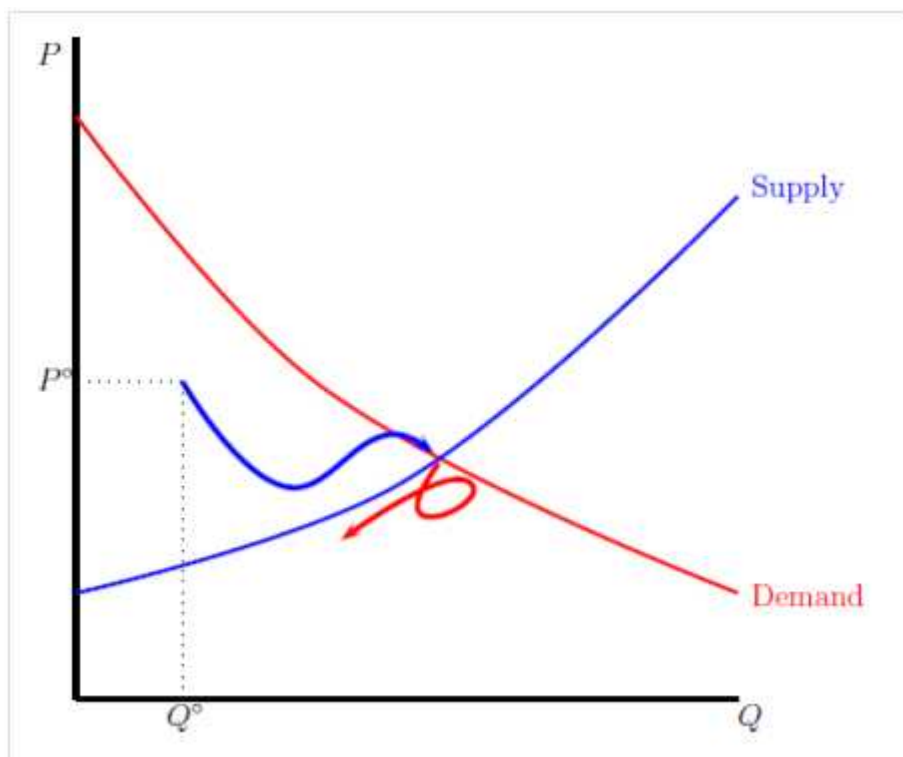
다만 시카고학파와 같이 대표성에 근거한 설명이 가능했던 신고전학파의 경우와 달리 오스트리아학파는 아직 방법론의 체계화를 통해 후대 경제학자를 양성하고 경제학적 발전에 뚜렷한 족적을 남긴 학파를 길러내지 못했다. 혹자는 Rothbard (2009[1962])가 설립한 Mises Institute가 그러한 기능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Auburn University와 연계해 운영하던 박사학위과정도 20세기말에 폐지되는 등 후학 양성 기능이 약화되었으며 주류 경제학계와의 교류 또한 제한적인 상황이다. 따라서 Mises (1949)와 Hayek (1948)으로 대표되는 분석을 추후 발전시킨 개별 업적에 근거해 오스트리아학파의 접근 방식을

4) [Lachmann's] essay. . . called everyone's attention to some of the important unifying themes of the Austrian tradition (Vaughn, 1998).

설명해야 하며 본연구는 Kirzner (2015[1973])의 미시경제학적 분석, 즉 기업가적 시장 과정 (Entrepreneurial Market Process)에 근거해 위에서 거론한 오스트리아 학파의 방법론에 대한 설명을 시도한다. 필자의 이해 및 해석에 따르면 타 오스트리아학파의 분석과 달리 Kirzner (2015[1973])의 분석은 그림 1과 유사한 틀을 통해 오스트리아학파의 방법론에 대한 설명이 가능한 유일한 분석이기도 하다.

Kirzner (2015[1973])에 의해 체계화된 기업가적 시장 과정은 기업가적 민첩성 (Entrepreneurial Alertness)에 기반을 둔 분석이라 할 수 있다. 기업가적 민첩성이란 기존에 시장에 존재하나 아직 인식되지 않은 이윤 기회를 포착하는 경제적 주체의 능력을 의미하며 이윤 기회를 현실화하는 기업가적 행동으로 인해 상호 이익이 실현되는 동시에 경제 시스템이 기존보다 조율(Coordinated)된 상태로 균형화(Equilibrating)되는 과정으로 기업가적 시장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신고전학파에 좀 더 친숙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그림 2: 수요곡선, 공급곡선, 그리고 시장 (비)균형화 과정



본 연구의 독자와 토론자, 그리고 참가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림 1과 동일한 구조에 기업가적 시장 과정을 표시한다면 그림 2의 화살표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그림 2의 파란 화살표가 나타내는 바와 같이 오스트리아학파의 미시경제학적 분석은 비조율된 불균형 상태 (P^0, Q^0)를 주어진 시장 상태로 우선 인식하고 기업가의 행동에 의해 균형 상태를 찾아가는 소위 균형화 과정을 중시하는 분석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림 2를 통해 오스트리아학파의 미시경제학적 분석으로 소개된 Kirzner(2015[1973])의

기업가적 시장 과정은 매우 단순화된 설명이며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오스트리아학파의 학문적 배경을 필요로 한다. 한 예로 Hayek (1937, 1945)가 제시했던 지식의 문제(Knowledge Problem)를 생각해 볼 수 있다. Kirzner(2015[1973])의 기업가적 시장 과정은 이윤 기회의 주관적 인식을 가정하고 있다. 즉 모든 경제 주체가 이미 알고 있는 이윤 기회는 현실화가 불가능한 기회이며 모든 경제 주체들에게서 기업가적 민첩성이란 특징을 찾을 수 있으나 똑같은 기회라 할지라도 모든 경제 주체가 같은 수준의 민첩성을 보이며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윤 기회에 대한 차별적 인식 수준을 나타내는 기업가적 민첩성의 차이는 경쟁적 시장 과정에서 맥락적 혹은 암묵적 지식 (Contextual or Tacit Knowledge)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왜 오스트리아학파가 계획 경제(Planned Economy)는 물론 정부가 계획하는 각종 산업 정책(Industrial Policy)까지 불가능하다고 간주하고 적대적인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는지 보여준다.

또한 오스트리아 학파 내에서도 기업가적 시장 과정을 Kirzner(2015[1973])가 제시한 균형화만의 과정이 아닌 비균형화(Disequilibrating)의 과정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한 예로 Lachmann (1976b)의 경우 기업가적 민첩성에 근거해 이윤 기회의 현실화를 시도하는 기업가적 행동은 타 경제주체의 계획이 수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연출한다. 즉 새로운 기업가적 행동으로 본래 Kirzner (2015[1973])가 제시한 기존의 균형점을 향한 균형화가 진행되는 동시에 타경제 주체의 계획 수정에 따라 기존의 균형점이 이동하는 비균형화 과정이 함께 진행된다. 또한 새로운 기업가적 행동의 성공과 실패에 따라 균형화와 비균형화라는 방향이 결정된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물론 Lachmann (1976b)은 비동의 하겠지만 타 경제주체의 계획 수정으로 인한 비균형화 과정을 그림 2에서 나타내면 빨간 화살표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Lachmann (1976a,b)의 이와 같은 시각은 왜 오스트리아학파가 신고전학파와 구별되는 독창성을 가진 학파인지, 그리고 신고전학파의 균형 분석을 부정하고 변화가 지속되는 사회의 이론(Theory of Kaleidic Society)으로 대체하려는 학파로 인식되는지를 잘 보여준다.⁵⁾

3. 신고전학파와 오스트리아학파의 비교

본 절은 2절에서 제시된 신고전학파와 오스트리아학파의 정의를 이용해 두 학파를 비교하고 신고전학파의 장·단점을 오스트리아학파와의 비교를 통해 소개한다. 우선 두 학파가 강조하는 방법론에 근거한 정의에 따라 두 학파간의 대표적 차이를 단순화해 살펴보면 표 1과 같은 비교가 가능하다. 표 1이 적고 있는 바와 같이 신고전학파와 오스트리아학파간의

표 1: 신고전학파와 오스트리아학파의 비교

5) Vaughn (1998)에 따르면 Lachmann (1976b)가 찾으려는 답은 일반 균형과 같은 소설이 아닌 끝이 보이지 않고 확실한 방향이 없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구분	신고전학파	오스트리아학파
합리성	구성주의적	생태환경적
행동의 성격	최적화	목적·의도적
분석의 중심	균형점	(비)균형화 과정
확률	위험성	불확실성
상태	시장 균형	자생·창발적 질서
정보와 지식	정보	지식

대표적 차이는 2절에서 거론된 각 학파의 방법론이 제시하고 있는 함축적 의미를 나타내는 동시에 상호간 밀접한 연계성을 갖고 있는, 즉 불가분한 관계를 갖고 있는 6가지 항목으로 분류해 살펴볼 수 있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합리성과 행동의 성격에 한정해 두 학파간의 “The problem is to figure out how to describe this never-ending, directionless process that characterized the market order without resorting to fictions like general equilibrium”로 표현될 수 있다.

Vaughn (1998)에 따르면 Lachmann (1976b)가 찾으려는 답은 일반 균형과 같은 소설이 아닌 끝이 보이지 않고 확실한 방향이 없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비교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항목간의 밀접한 연계성으로 인해 본 연구가 논의하는 합리성과 행동의 성격을 근거로 나머지 4가지 항목(분석의 중심, 확률, 상태, 정보와 지식)에 대한 이해도 가능할 것이라 생각된다. 우선 경제주체의 합리성에 대해 두 학파가 가지고 있는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자. 합리성: 신고전학파가 가정하고 있는 합리성은 구성주의적 합리성(Constructive Rationality)으로 분류될 수 있다. 구성주의적 합리성이란 경제주체가 갖고 있는 이성적 및 지적 능력에 무한한 신뢰를 부여하고 컴퓨터보다도 뛰어난 기계적 연산 능력을 보유한 경제주체를 가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추이적 관계(Transitive Relation)를 충족시키는 선호 체계를 설정해 경제주체의 이성을 정의하고 이러한 선호 체계를 묘사하는 효용 함수(Utility Function)의 연속성(Continuity), 오목성(Concavity), 그리고 완전성(completeness) 등을 함께 가정해 미적분이라는 수학적 방법을 통해 경제주체의 합리적 선택(Rational Choice)에 대한 예상을 가능케 만든다. 즉 구성주의적 합리성이란 무한한 연산능력과 이성적 선호 체계를 갖추어 이성적 지배만을 받는 완벽한 경제인 (Homo Economicus)을 설정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구성주의적 합리성을 보유한 완벽한 경제인의 의미를 가장 잘 보여주는 현실 사례는 이미테이션 게임(The Imitation Game)이란 제목의 영화를 통해 대중에게 알려진 튜링 머신(Turing Maching) 혹은 최근 이세돌 9단과 대국을 치른 구글(Google)사의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t)인 알파고(AlphaGo)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현대 경제학의 발전 과정을 고찰한 Mirowski (2002)에 따르면 신고전학파에 기반을 둔 주류 경제학은 인간과 기계의 혼성체 이론(Theory of Automata)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완벽히 기계화된 경제인의 설정을 통해 각종 시장 활동을 묘사하는 방정식을 구체화하고 상세화하는 과정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시장이 구성주의적 합리성을 보유한 완벽한 경제인들로

구성된 장치(Institution)라는 것을 의미해 시장 자체(혹은 이를 연구하는 경제학자)가 상위 개념의 연산 기계로 인식하고 분석하는 방식도 신고전학파에 기반을 둔 주류 경제학에서 가능하게 된다.(Davis, 2013).

Since the representative agent by definition can accomplish all the same computations as economy's individual agents, the representative agent is like a universal Turing machine. Since the representative. . . knows the true model of the economy, it is like the universal Turing machine which can simulate not only every individual Turing machine but also itself (Davis, 2013)

반면 오스트리아학파가 가정하는 합리성은 생태환경적 합리성(Ecological Rationality)으로 분류할 수 있다. 생태환경적 합리성이란 경제주체가 보유한 이성적 및 지적 능력의 한계를 인식하고 (경제적)연산 능력의 제약을 가진 경제 주체를 가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경제주체가 보유한 합리성 자체를 환경적, 문화적, 그리고 생물학적으로 점차 진화하는 대상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해 진화적 합리성(Evolutionary Rationality)이라 지칭되기도 한다. 즉 생태환경적 합리성에 근거한 경제주체란 구성주의적 방법을 적용해 결정하는 능력이 모자란 어리석고 불완전한 존재(Naivet'e)이나 문화적이고 생물학적 진화 과정의 유산인 규칙, 규범, 제도에 함축되고 내재된 지식을 발견해나가는 합리적 경제주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생태환경적 합리성을 보유한 경제주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로 독재자 게임(Dictator Game)이나 최후통첩게임(Ultimatum Game)와 같은 간단한 실험에 참가하는 대다수 피험자(Subject)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독재자 게임과 최후통첩게임을 실험했던 Kahneman, Knetsch, and Thaler (1986)에 따르면 독재자 게임에 참가했던 피험자 161명 중 122명(76%)이 자신이 대부분을 차지할 수 있었던 \$20를 상대방과 \$10씩 이등분하였으며 최후 통첩게임에 참가했던 43명의 피험자 중 35명(81%) 또한 \$10를 상대방과 \$5씩 이등분하였다. 특히 자신에게 주어진 제안을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졌던 최후통첩게임의 경우 평균 \$2.59 이하의 제안, 즉 양(+)의 값을 갖는 비형평적 제안에 대해 대다수 피험자가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이와 같은 실험 결과는 경제주체가 실험이 설계하는 유인 구조(Incentive Structure)만에 근거해 결정하는 연산 기계(Automaton)가 아닌 자신의 사회적, 문화적, 그리고 생물학적 경험까지 고려해 결정하는 합리적 유기체라는 것을 말해 준다.

다만 독재자 게임과 최후통첩게임의 실험 결과를 통해 오스트리아학파가 인식하는 생태환경적 합리성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 규범을 비형태적 제약(Informal Constraint)으로 인식하는 신고전학파적 해석과 비합리성(Irrationality)으로 인식하는 행동경제학적 해석과의 차이에 대한 명확한 구별이 필요하다. 비형태적 제약이란 Bates et al. (1999); North (1990)와 같이 사회 규범 등을 제약 조건의 일부로 설정하는 방식을 의미하며 비형태적 제약의 차이로 인해 구성주의적 합리성을 보유한 경제주체의 결정이 다양화될 수 있다고 해석한다. 또한 행동경제학이 인식하는 비합리성이란 구성주의적 합리성을 보유한 경제주체에 반하는 실험 사례(Anomaly)의 체계화 및 규칙화된 가정을 의미하며 Thaler and Sunstein (2009)와 같이 합리적 결정의 유도를 위해 제3자의 도

움이 필요하다고 해석한다. 비형태적 제약과 비합리성으로 대변되는 신고전학파적 해석과 행동경제학적 해석은 구성주의적 합리성의 유지 혹은 이에 배타적인 대별적 개념의 제시를 통한 분석을 시도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오스트리아학파가 가정하는 생태환경적 합리성은 구성주의적 합리성에 배타적인 대별적 개념이 아니며 제약적 연산 능력을 보유한 경제주체가 개별적, 문화적, 그리고 생물학적 선별 과정을 통해 합리성을 발견해 나가는 합리적 유기체라는 것을 의미한다 (Smith, 2003). 즉 Hayek (1952)이 묘사했던 바와 같이 다윈적(Darwinian) 선별, 문화적(Cultural) 선별, 그리고 개인적(Individual) 선별이라는 세 가지의 선별 과정 (Selection Process)을 거쳐 선택된 규칙들을 적용해 결정하는 합리성을 지칭하며 구성주의적 합리성이 의미하는 이성적 지배는 경제주체가 적용하는 규칙 중 하나로 간주된다 (Herrmann-Pillath, 1994). 또한 발견적 학습 방법(Heuristic Method) 혹은 경험 법칙(Rule of Thumb)에 근거한 Gigerenzer (2000)의 분석 결과를 통해 오스트리아학파가 가정하는 생태환경적 합리성과 행동경제학의 비합리성간의 차별성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⁶⁾

행동의 성격: 신고전학파가 가정하는 구성주의적 합리성은 주어진 제약 조건하에서 최적화(Optimize)하는 존재로 경제주체를 인식하고 행동의 성격을 규명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최적화라는 행동의 성격은 경제학에 입문하며 처음 접하게 되는 max U라고 분석방식으로 함축해 표현할 수 있다. 또한 신고전학파가 설정하는 목적 함수의 극대화는 경제주체를 위에서 거론된 인간과 기계의 혼성제(Automaton)로 인식하는 구성주의적 합리성을 적용하며 나타나는 행동의 성격을 가장 잘 표현하고 그에 따른 장점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max U라고 간주되는 경제주체의 결정방식을 통한 분석의 장점은 신고전학파 최적화 모델의 확장 가능성을 제시한 Stigler and Becker (1977)로 대표되는 시카고학파의 적용 사례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 한 예로 Stigler and Becker (1977)를 구체화시킨 Becker and Murphy (1988)은 중독에 대한 신고전학파적 분석 방식으로 효용을 극대화하는 경제주체의 설정을 제시한다. 즉 경제주체의 효용과 행동의 성격이

$$\max_{c(\cdot)} J(c(\cdot), S(\cdot)) \stackrel{\text{def}}{=} \int_0^T u(c(t), S(t)) e^{-\rho t} dt \quad (1)$$

로 묘사되고 투자 함수인

$$\dot{S} = f(c(t)) - \delta S(t) \quad (2)$$

와

$$S(0) = S_0, S(T) = S_T \geq 0, A(0) = A_0, \text{ and } A(T) = A_T \geq 0. \quad (3)$$

6) A heuristic is ecologically rational to the degree that it is adapted to the structure of an environment (Gigerenzer and Todd, 1999).

라는 경계 조건(Boundary Condition)들을 만족하는

$$A_0 + \int_0^T w(S(t))e^{-rt} dt \geq \int_0^T p(t)c(t)e^{-rt} dt \quad (4)$$

로 설정된 부의 제약 조건하에서 중독과 관련된 분석을 시도한다.⁷⁾ 이러한 설정 하에서 효용을 극대화하는 경제주체는 인접한 상보성(Adjacent Complementarity)으로 칭해지는 특수한 조건이 성립될 때 중독적 물질에 중독되며 자신의 경험적 요소와 현재의 소비가 미래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한 한계 효용과 한계 비용가 동일화시키며 최적의 소비량인 c^* 를 수요하게 된다. 이는 구성주의적 합리성을 가진 경제주체도 합리적으로 중독될 수 있으며 중독성을 가진 경험재에 대한 수요함수의 추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독성에 가진 경험재에 대한 수요함수의 추정은 경제주체간에 나타나는 선호체계의 차이에 근거해 중독을 설명하는 방식과는 달리 가격, 임금 수준, 정부의 정책 등의 변화로 인한 영향을 체계적이고 일관된 논리를 통한 설명하게 만든다. 특히 중독이 특정한 선호체계를 가진 경제주체에 국한된 현상이 아닌 외부 요인의 변화에 따라 어느 경제주체라도 중독성을 가진 경험재를 소비할 수 있고 가격 탄력성 또한 비경험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가격 정책을 통해 효과적으로 중독성을 가진 경험재의 소비를 줄일 수 있다고 제시한다. 즉 행동의 성격을 극대화로 간주하며 분석의 중심이 경제주체의 선호체계가 아닌 주어진 제약 조건을 구성하는 각종 변수로 이동하며 일관된 논리를 통한 경제학적 분석이 가능해진다.⁸⁾

반면 오스트리아학파는 행동의 목적과 의도를 중심으로 행동의 성격을 간주하며 연역적 방법(Deductive Method)과 수식이 아닌 언어적 논리를 통해 경제주체의 행동을 분석한다. 즉 행동의 의미는 다양한 대안들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며 이전보다 더 나아진 상황을 얻기 위한 의도적 행동으로 해석한다. 또한 인간은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고 행동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석하는 공리체계(Axiomatic System)를 의미해 오스트리아학파는 경제학을 인간행동학(Praxeology)의 일부로 간주한다. 따라서 주어진 조건하의 극대화라는 행동의 성격은 오스트리아학파가 설명하는 행동의 목적 중 일부로 간주되며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고, 간과된 비용을 발견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창출하는 등 경제주체의 행동에 대한 포괄적 분석을 시도하게 된다.⁹⁾ 행동의 목적과 의도에 주목하고

7) $u(\cdot) \in C(2)$ is concave in c and S ; $c(t) \in R_m$ and $S(t) \in R_n$ are the vectors of commodities being consumed and their habits generated at t , respectively; ρ is the rate of time preference; $f(\cdot) \in C(1)$ is non-negative and non-decreasing in c ; δ is a diagonal matrix with $\delta_{ii} = \rho$, the depreciation rate of S_i ; $p(t) \in R_m$ is the price vector of c at t but assumed $\dot{p} = 0$; $w(\cdot) \in C(2)$ takes a same concave argument of $u(\cdot)$ in S ; and r is the interest rate.

8) The difference between these two viewpoints of tastes is fundamental. On the traditional view, an explanation of economic phenomena that reaches a difference in tastes between people or times is the terminus of the argument: the problem is abandoned at this point to whoever studies and explains tastes (psychologists? anthropologists? phrenologists? sociobiologists?). On our preferred interpretation, one never reaches this impasse: the economist continues to search for differences in prices or incomes to explain any differences or changes in behavior (Stigler and Becker, 1977).

9) Although there is a constrained maximization aspect to purposeful action, the Austrian view

연역적 방법을 통한 인간 행동의 분석을 시도하는 오스트리아학파는 신고전학파로 대표되는 주류경제학이 사용·적용하는 경제주체와 행동의 수학적화(Mathematization)에 적대적인 태도를 가져왔으며 이는 신고전학파 및 주류 경제학과 대비해 오스트리아학파를 확연히 구별하는 특징으로 인식되고 있다. 오스트리아학파는 인간 행동은 연역적 혹은 선험적(A Priori)으로 사실이며 실증 분석을 통한 검증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인식한다. 따라서 극대화론 국한된 행동의 성격으로 도출된 이론 및 가설을 설정하고 회귀 분석을 통한 검증을 시도하는 신고전학파의 전통적 분석 방법에 오스트리아학파는 이견을 피력하게 된다. 오스트리아학파에 따르면 경제학을 포함하는 인간행동학의 역할은 경제주체의 행동에 근거한 정확한 이론적 체계를 제시하고 이를 통해 올바른 역사의 해석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는 오스트리아학파가 신고전학파와 정반대의 순서를 가진 분석 방법을 사용·적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스트리아학파가 신고전학파가 사용·적용하는 경제주체와 행동의 수학적화에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는 이유에 대해 좀 더 부연해 설명하면 크게 세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수학적화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장점보다 단점이 많다는 것이다. 경제주체의 행동에는 수학적화가 불가능한 요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으며 경제주체와 행동의 수학적화는 경제주체가 살고있는 실제 세상 및 경제와 동떨어진 가상 현실을 설정하게 된다. 따라서 연역적 방법을 통해 가능했던 경제주체의 행동에 내포된 의미에 대한 파악이 수학적화로 인해 불가능해진다고 오스트리아학파는 주장한다.

둘째, 인간행동학에 적절한 분석 방법과 자연과학에 적절한 분석 방법이 다르다는 것이다. Friedman (1953)이 주장한 바와 같이 신고전학파는 물리학 등 자연과학에 적용된 방식이 동일하게 경제학에 적용될 수 있다고 간주하는 반면 오스트리아학파는 Hayek (1942, 1943, 1944)이 제시한 것과 같이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은 다르며 행동의 의도와 목적을 무시한 분석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즉 “벽에서 떨어져 나온 벽돌은 땅으로 떨어지지 않을 결정을 할 수 없다(The brick that topples from the wall could not have chosen not to fall)”는 Buchanan (1999)의 예와 같이 자연과학의 분석 대상인 물질적 사물과 달리 경제학의 분석대상인 경제주체의 행동은 목적과 의도로 구성되며 이를 무시한 물리적 혹은 기계적 분석 및 예측은 수많은 선택으로 구성된 현실 세계가 아닌 가상적 허상에 눈을 돌리게 만든다고 주장한다.¹⁰⁾

셋째, 오스트리아학파가 경제주체와 행동의 수학적화에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는 가장 큰 이유로 생각할 수 있는 논리의 영역을 무한하게 생각하는 논리의 남용(Abuse of Reason)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차이에 주목했었던 오스트리아학파의 대표적 학자인 Hayek (1942, 1943, 1944)은 사회과학의 주 목적이 많은 경제주체의 행동으로 인한 결과로 도출되는 의도되지 않거나 설계되지 않은 질서에 대한 설명이라고 주장한다.¹¹⁾ 반면 구성주의적 합리성에 근거해 행동의 성격을 극대화론으로 간주하

stresses other aspects which neoclassicism systematically ignores. Agents do not only maximize under given constraints, they learn about new opportunities, they discover unnoticed costs, they create new possibilities (Lavoie, 1994).

10) Boettke (2012)에 따르면 Buchanan (1999)의 발언과 유사하게 Mises도 “You throw a rock in water, it sinks; throw a stick in water, it floats; but throw a man into water, and he must decide to sink or swim.”라는 재담을 한 바가 있다.

고 수학화하는 순간 규칙, 규범, 제도와 같은 사회적 기능을 가진 장치가 논리에 근거해 의식적으로 만들어진 의도된 결과로 인식하게 된다. 또한 개인이 논리적으로 설정하는 계획을 확장시켜 사회 전체의 계획이 가능하며 객관적인 방법을 통해 사회 후생을 극대화 할 수 있다고 간주하게 된다. 오스트리아학파는 경제주체와 행동의 수학화가 집단주의 (Collectivism)적 사고로 이어져 “가장 원하는 형태의 세상으로 개선할 수 있다 ([M]an is able to shape the world around him according to his wishes)”는 치명적 자만(Fatal Conceit)에 빠질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한다 (Hayek, 2011[1988]).¹²⁾ 즉 오스트리아학파는 경제주체와 행동의 수학화로 인해 가상 세계에서만 가능한 이상적인 형태의 세상을 마치 현실에서도 가능하다고 인식하게 되는 논리의 남용 및 오류를 걱정하며 경제주체와 행동의 수학화에 대한 반대를 통해 이에 대한 적극적인 우려를 피력하고 있다.

합리성과 행동의 성격에 대한 신고전학파와 오스트리아학파간의 차이를 이해하면 나머지 4가지 항목에 대해 어떠한 차이가 존재하는지 파악이 가능하다. 우선 신고전학파는 분석의 중심에 이미 2절의 그림 1과 그림 2의 비교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균형점을 설정하는 반면 오스트리아학파는 (비)균형화 과정을 중시하는 경향이 나타나며 따라서 기업가정신에 대한 인식의 차이도 함께 존재하게 된다. 신고전학파는 구성주의적 합리성에 근거한 경제주체의 설정으로 인해 미래에 발생 가능한 모든 사건과 영향에 대한 사전적인 규명이 가능해져 확률적 분석이 가능하다고 간주하는 반면 오스트리아학파는 미래에 항상 경제주체가 예측할 수 없는 사건을 포함하고 있어 확률의 적용이 불가능한 Knight (2012[1921])의 불확실성(Knightian Uncertainty)을 중시하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 신고전학파의 균형점에 근거한 분석은 각종 이익의 기회가 사라진 시장의 균형 상태를 중시하는 반면 오스트리아학파는 경제주체의 계획이 의도하지 않았으나 시장 활동을 통해 발견되는 제도와 기능을 통해 상호간 조율된 상태, 즉 자생적 질서를 중시한다.¹³⁾ 또한 오스트리아학파의 경우 시장에 주어진 정보를 통해 경제주체가 자신만의 지식화를 추구하는, 즉 지식을 발견하고 이용하는 과정에 근거해 정보와 지식의 차이를 인식한다.

4. 신고전학파와 오스트리아학파의 상호 보완성

신고전학파는 3절에서 거론된 바와 같이 소위 과학성과 수학화에 근거해 깨끗하고 설득력 있는 경제학적 분석을 가능하게 만드는 방법론을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오스트리아학파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의 남용에 쉽게 빠질 수 있는 함정을 내포하고 있으며 분석의 시야를 제한시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Buchanan (1959, 1964)은 경제학자의 시각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시한 바 있으며 이러한 변화를 통해 경제학을 각종 사회 현상에 대한 해석 및 분석이 가능한 더욱 질

11) [T]he aim is to explain the unintended or undesigned results of the actions of many men (Hayek, 1942, 1943, 1944).

12) The curious task of economics is to demonstrate to men how little they really know about what they imagine they can design (Hayek, 2011[1988])

13) 한 예로 오스트리아학파는 화폐라는 제도가 누군가에 의해 의도되거나 설계된 제도가 아닌 시장 활동을 통해 발견되었으며 자생적 질서를 구성하는 제도 중 하나로 인식한다 (Menger, 1892).

높은 학문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된다.

노벨 경제학상을 1986년에 수상한 Buchanan (1959, 1964)에 따르면 신고전학파가 행동의 성격으로 중시하는 경제주체의 극대화 혹은 최적화에서 경제학자의 시각을 경제주체간의 교환에 대한 분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경쟁의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경제적 교환의 규칙에 경제학자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¹⁴⁾ 이와 같은 시각의 변화는 오스트리아학파가 중시하는 방법론에 신고전학파가 좀 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분석의 확장을 통해 신고전학파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즉 오스트리아학파적 질문에 답하기 위한 신고전학파적 노력을 통해 Rosen (1997)이 말한 바와 같이 신고전학파와 오스트리아학파 간 거래의 이익(gains from trade) 기회가 존재한다.

Boettke (2010)에 따르면 아래의 8가지 원칙이 오스트리아학파의 근간을 이루며 신고전학파적 분석을 행하기에 앞서 이 원칙에 충실한지 한번쯤 고려한다면 훨씬 충실한 경제학적 분석에 근접해 나갈 수 있다.

1. Only individuals choose:

개인만이 선택과 행동의 주체이며 우리(We)라는 경제주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2. The study of the market order is fundamentally about exchange behavior and the institutions within which exchanges take place:

시장의 질서에 대한 분석은 교환의 행위에 대한 것이며 또한 교환이 이루어지는 제도에 대한 분석이기도 하다.

3. The “facts” of the social sciences are what people believe and think:

사회과학이 이용할 수 있는 사실 및 실상은 사람이 믿고 생각하는 것이며 이를 대체하는 그 어느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4. Utility and costs are subjective:

효용과 비용은 항상 주관적이며 객관적인 효용과 비용은 존재하지 않는다.

5. The price system economizes on the information that people need to process in making their decisions:

가격 체계는 사람이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효율화하며 최소한의 정보를 통해 결정을 가능하게 만든다.

6. Private property in the means of production is a necessary condition for

14) Economist should stop thinking of their subject as being concerned primarily with maximization problems, but rather should regard it as the study of exchange between individual in a catallaxy. More attention needs to be paid to the emergence of the rules of economic exchange as part of a competitive process. The principle of spontaneous order is the scientific principle of economics (Vaughn, 1998).

rational economic calculation:

생산 수단에 대한 사유재산권은 합리적 경제 계산을 위한 필요조건이며 사유재산권 부재 하에서는 합리적 경제 계산이 불가능하다.

7. The competitive market is a process of entrepreneurial discovery:

경쟁적 시장은 기업가적 발견의 연속 과정이며 현재의 시장 상태는 변화 과정의 한 모습이다.

8. Social institutions are often the result of human action, but not of human design:

각종 사회적 제도는 인간 행동의 결과이긴 하나 인간에 의해 설계된 것이 아니다.

Boettke (2010)가 제시했던 8가지 원칙은 대다수 경제학자가 내면적으로는 동의하고 인식하고 있는 원칙이고 소위 좋은 경제학이 추구해야 하는 원칙이나 신고전학파적 분석 방식을 통해 경제학적 분석을 수행하며 한 두 개는 무시하고 넘어갈 때가 많은 원칙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경제학자가 설정한 가상 세계가 현실 세계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고 간주하거나 행동의 주체가 아닌 집단을 하나의 경제주체로 간주하고 경제학적 분석을 실행하는 등 위에서 언급된 원칙을 지키지 않은 수많은 신고전학파적 분석이 수행되고 있다. 즉 위에서 거론된 여러 가지 원칙을 무시하는 경제학적 분석이 실행됨에 따라 논리의 남용이 발생하고, 경제현상을 잘못 이해하고, 그리고 불가능한 경제 정책을 마치 가능한 것처럼 간주하는 오류에 빠질 때가 많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오스트리아학파가 주류 경제학자에게 던지는 충고를 단 한마디로 축약하면 의외로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다. 정책 입안자를 포함해 어느 누구가 요구하더라도 경제학자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지혜를 가지며 자신이 수행하는 분석의 한계를 직시하고 논리의 남용을 경계하라는 것이다. 경제학자가 설정한 가상 세계에서 가능해 보이는 공산주의 혹은 정부의 각종 정책이 실제 현실에서 어떠한 한계성을 가지는지 무시하고 넘어가거나 또는 실제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제학자가 꽤나 많다. 혹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경제학적 우월감을 내비치기 위해 분석의 한계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오스트리아학파는 이러한 논리의 남용 가능성을 위에서 적은 8가지 원칙에 충실한 분석의 수행을 통해 최소화하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오스트리아학파가 신고전학파에게 던지고 있는 질문과 비판은 앞으로 경제학이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참고문헌

Bates, Robert H, Avner Greif, Margaret Levi, Jean-Laurent Rosenthal, and Barry Weingast. 1999. *Analytic Narrative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Becker, Gary S. 2013. *The Economic Approach to Human Behavior*.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Becker, Gary S and Kevin M Murphy. 1988. "A theory of Rational Addictio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675-700.

Boettke, Peter. 2010. *Handbook on Contemporary Austrian Economics*. Edward Elgar Publishing.

Boettke, Peter J. 1998. *The Elgar Companion to Austrian Economics*. Edward Elgar Publishing.

———. 2002. "Information and Knowledge: Austrian Economics in Search of its Uniqueness." *Review of Austrian Economics* 15 (4):263-274.

———. 2012. *Living Economics: Yesterday, Today, and Tomorrow*. Oakland, CA: Independent Institute.

Böhm-Bawerk, Eugen V. 1891[1889]. *The Positive Theory of Capital*. London: Macmillan.

Buchanan, James M. 1959. "Positive economics, Welfare economics, and Political Economy."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2:124-138.

———. 1964. "What Should Economists Do?" *Southern Economic Journal* :213-222.

———. 1999. "Origins, Experiences and Ideas: A Retrospective Assessment." *Public Finance and Public Choice: Two Contrasting Visions of the State* :11-28.

Caldwell, Bruce. 2008. *Hayek's Challenge: An Intellectual Biography of F. A. Hayek*.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Davis, John B. 2013. *The Theory of the Individual in Economics: Identity and Value*. Routledge.

Dolan, Edwin G. 1976. *Austrian Economics as Extraordinary Science*. Kansas City: Sheed & Ward, 3-18.

Friedman, Milton. 1953. *Essays in Positive Economic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Gigerenzer, Gerd. 2000. *Adaptive Thinking: Rationality in the Real World*. Oxford University Press.

Gigerenzer, Gerd and Peter M Todd. 1999. Simple Heuristics that Make Us Smart. Oxford University Press.

Hayek, Friedrich A. 1937. "Economics and Knowledge." *Economica* 4 (13):33-54.

———. 1942. "Scientism and the Study of Society. Part I." *Economica* 9 (35):267-291.

———. 1943. "Scientism and the Study of Society. Part II." *Economica* 10 (37):34-63.

———. 1944. "Scientism and the Study of Society. Part III." *Economica* 11 (41):27-39.

———. 1945. "The Use of Knowledge in Society." *American Economic Review* 35 (4):519-530.

———. 1948. *Individualism and Economic Order*.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1952. *The Sensory Order: An Inquiry into the Foundations of Theoretical Psycholog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2011[1988]. *The Fatal Conceit: The Errors of Socialism*.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Herrmann-Pillath, Carsten. 1994. "Evolutionary Rationality, "Homo Economicus," and the Foundations of Social Order." *Journal of Social and Evolutionary Systems* 17 (1):41-69.

Hoppe, Hans-Hermann. 1994. "F.A. Hayek on Government and Social Evolution: A Critique." *Review of Austrian Economics* 7 (1):67-93.

Jevons, William Stanley. 1879[1871]. *Theory of Political Economy*. London: Macmillan. Kahneman, Daniel, Jack L Knetsch, and Richard H Thaler. 1986. "Fairness and the Assumptions of Economics." *Journal of Business* :S285-S300.

Kirzner, Israel M. 2015[1973]. *Competition and Entrepreneurship*. University of Chicago press.

Knight, Frank H. 2012[1921]. *Risk, Uncertainty and Profit*. Courier Corporation.

Lachmann, Ludwig M. 1976a. "From Mises to Shackle: An Essay on Austrian Economics and the Kaleidic Society."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14 (1):54-62.

———. 1976b. “On the Central Concept of Austrian Economics: Market Process.” In *The Foundations of Modern Austrian Economics*. Kansas City: Sheed & Ward, 126-32.

———. 1978. *An Austrian Stocktaking: Unsettled Questions and Tentative Answers*.

Kansas City: Sheed, Andrews and McMeel, 1-18. Lavoie, Don. 1994. “Austrian Models? Possibilities of Evolutionary Computation.” In *The Elgar Companion to Austrian Economics*, chap. 79. Edward Elgar Publishing.

Marshall, Alfred. 1920[1890]. *Principles of Economics*. London: Macmillan.

Menger, Carl. 1950[1871]. *Principles of Economics*. Ludwig von Mises Institute.

Menger, Karl. 1892. “On the origin of money.” *The Economic Journal* 2 (6):239-255.

Mirowski, Philip. 2002. *Machine Dreams: Economics Becomes a Cyborg Scien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Mises, Ludwig von. 1949. *Human Action: A Treatise on Economics*. Ludwig von Mises Institute.

North, Douglass C. 1990. *Institutions, Institutional Change and Economic Performan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Rosen, Sherwin. 1997. “Austrian and Neoclassical Economics: Any Gains from Trade?”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11 (4):139-152.

Rothbard, Murray N. 2009[1962]. *Man, Economy, and State*. Ludwig von Mises Institute.

Smith, Vernon L. 2003. “Constructivist and Ecological Rationality in Economics.” *American Economic Review* 93 (3):465-508.

Stigler, George J. 1969. “Does Economics Have a Useful Past?” *History of Political Economy* 1 (2):217-230.

Stigler, George J and Gary S Becker. 1977. “De Gustibus Non Est Disputandum.” *American Economic Review* 67 (2):76-90.

Thaler, Richard H and Cass R Sunstein. 2009. *Nudge: Improving Decisions About Health, Wealth, and Happiness*. New York: Penguin.

Vaughn, Karen I. 1998. *Austrian Economics in America: The Migration of a*

Tradi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Veblen, Thorstein. 1900. "The Preconceptions of Economic Scienc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4 (2):240-269.

Walras, L'éon. 2013[1874]. *Elements of Pure Economics*. Routledge.

Weintraub, E Roy. 2002. "Neoclassical Economics." *The Concise Encyclopedia of Economics* 1:1.

신고전학파와 오스트리아학파에 관한 소고

구 정 모

강원대 경제학과 교수

차기 한국경제학회 회장

전 한국재정학회 회장

오늘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우선 나 자신은 미제스(Mises), 하이에크(Hayek) 또는 로스바드(Rothbard)를 읽어 본 적이 없지만 경제현상과 경제이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본인의 생각을 정리하고 싶다. 또한 오늘의 논의를 위해 워렌 버핏의 말을 인용하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다. "확실히 틀린 것보다는 대중 맞는 것이 낫다 (It is better to be approximately right, than precisely wrong)."

경제학에 수학을 적용하는 것은 언제나 문제이다. 언제나 좋은 거시경제모형이 있었던가? 미래의 GDP 성장과 인플레이션의 추정은 언제나 틀리기 일쑤이고 항상 전환점을 잘 예측하지 못하지 못하고 있다. 미시경제모형 역시 제 구실을 못하는데, 이를 떼면 일반균형 검증을 해보면 대부분의 주요 가설은 기각되기 십상이다.

그러면 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그 이유는 자본주의 경제는 수학적 모델이 반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다이내믹하기 때문이다. 변동성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모형화를 시도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 있는데, 이는 자산시장에서의 변동성과 행태는 정말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오스트리아학파는 호황과 불황의 순환을 그대로 보여주는데 반해, 신고전학파 경제학은 균형으로 이동한다고 가정한다. 그러면 경제현상에서 실제로 균형이 달성된 적이 있는 지? 사실 균형은 결코 없었거나 또는 경제는 언제나 불안정하기 일쑤라고 받아들이는 점이 오스트리아학파의 장점이다. 균형의 부재는 경제시스템이 항상 쉬지 않고 조정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면 왜 신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 균형을 가정하고 있는지? 오로지 수학적 모형을 작동시키기 위함이 아닌지? 금융시장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왜 정상상태(normality)를 언제나 가정하는지? 이 역시 수학적 모형이 훌륭히 작동함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닌지? 사실 경제현상은 복잡하지만 경제학자는 자신의 경제모형을 작동시키기 위해 경제는 복잡하지 않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모든 거시경제분석의 이면에는 바이어스(bias)가 있기 마련인데, 손익계산서와 대차 대조표를 놓고 보면 신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 대부분 손익계산서를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자들은 대차대조표를 분석한다. 이는 신고전학파는 성장 투자자의 입장에서 오스트리아학

파는 가치 투자자의 입장에서 접근하기 때문이다.

“깨진 창문 오류(The broken window fallacy)”를 생각해보면 신고전학파의 GDP에 대한 견해는 깨진 창문은 유리 끼우는 일을 하는 사람의 일감을 만들어줘 GDP를 증가시킨다고 하지만, 오스트리아학파는 총순자산의 변화가 마이너스가 된다는 입장이다. 신고전학파 경제학은 채무 수준은 중립적이라고 했지만, 최근의 글로벌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그 잘못이 입증되었다. 이는 대차대조표 분석을 간과한 데에 기인한다.

지난 40년 동안 미 연준을 지배한 신고전학파 경제학은 볼커 연준의장 시절에는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유발시켰고, 그린스펀과 버냉키 의장 시절에는 불황 시에 악성채무를 걷어 내지 못하고 지나친 몸조심으로 인해 유동성 함정을 초래하고 말았다.

계량경제학자 역시 큰 도움이 되지 못했는데, 버냉키 의장 시절의 연준은 일단의 유능한 경제학자들이 많았지만 경제활동 성과에 대해 영성한 예측만 하기 일쑤였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그들의 이론을 계량화하지 않는 오스트리아학파를 비판할 수 없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한다. 경제학은 사실 최소한 구체성 있게 계량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과학이라고 하기에는 지나친 게 아닐까 싶다.

경제학은 기본적으로 윤리적 규율에 충실해야 한다. 정부는 지배자가 되어서는 안되고 심판의 역할을 함으로써 결과의 평등이 아닌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 이는 정부가 지속적인 경제적 번영을 창출하기 위해 정책의 레버를 사용하도록 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 경제적 번영은 개인의 통찰력을 상황에 맞게 적용하고 인간 욕구에 적합한 창의적 방법을 수용하는 개개인의 통제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수학적 모형에 입각하지 않는다고 해서 오스트리아 경제학을 부정하는 입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데, 워렌 버핏의 말을 다시 인용하면 "확실히 틀린 것보다는 대충 맞는 게 낫다."고 할 수 있다. 정성적 지식은 가치 있는 것이며, 신고전학파의 수학적 모형과 같은 보다 나은 모형이 없다고 해서 경시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신(新)오스트리아학파: 의도와 인지적 한계를 지닌 인간의 경제학¹⁵⁾

김 이 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 연구소장

1. 학설사적 기원

가. 신고전파 주류경제학으로서의 오스트리아학파

오스트리아 비엔나 대학의 칼 멩거(Carl Menger, 1840-1921)는 1871년 『국민경제학의 기본원리』를 출간하였다. 이 책의 출간으로 그는 제본스(W. Stanley Jevons, 1835-1882) 및 왈라스(Léon Walras, 1834-1910)와 더불어 고전학파의 객관적, 투입비용 중심의 노동가치설을 극복하고 주관적인 한계효용을 가치의 연원으로 파악하는 한계효용 혁명을 시작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당시 경제학계는 영국의 고전학파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으며 독일의 역사학파가 이에 대항하는 형세를 이루고 있었는데, 멩거는 독일 역사학파를 영국의 고전학파의 기성이론에 대항하고 있는 자신의 응원군으로 생각하여 이 책을 독일 역사학파의 거두 빌헬름 로셔(Wilhelm Roscher, 1817-1894)에게 바쳤다.

이런 호의에도 불구하고 역사학파는 멩거를 무시했을 뿐 아니라 구스타브 슈몰러(Gustav Schmoller, 1838-1917)를 중심으로 한 젊은 세대 역사학파는 점차 이론을 철저히 배제하고 “이론에 물들지 않은” 역사적 기록에 치중하고자 하였다. 멩거에게 있어서는 이런 역사학파의 방법론은 위험천만한 것이었다. 어떤 사실이 기술(記述)할 가치가 있을 만큼 중요한지를 선별하는 과정에 이미 이론이 개입되고 있을 뿐 아니라, 기술하는 과정에도 이론이 개입되지 않을 수 없다는 의미에서 “역사적 사실”(historical fact)이란 언제나 “이론이 개재된 사실(theory-laden fact)”일 수밖에 없다. 이론을 배제한 채 역사를 기술하겠다는 것은 실은 설익은 이론에 의지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것이 멩거의 입장이었다. 멩거와 슈몰러 사이에 벌어진 이 논쟁이 바로 유명한 방법논쟁(Methodenstreit)이다.

이 방법논쟁은 책상물림 경제학자들의 한가한 논쟁으로 치부하기에는 오늘날의 경제학자들에게도 의미하는 바가 너무나 크다. 현재 계량경제학이 경제학자의 중요한 도구로 자리 잡았고 계량경제학을 이용한 추계가 경제학의 겉모습을 “과학적으로” 보이게

15) 이 글은 『경제학: 더 넓은 지평을 향하여』(박만섭 편, 이슈투데이, 2012)에 실린 같은 제목의 줄고를 조금 고친 것이다. 오스트리아학파가 무엇인지, 왜 주류경제학에 불만이 있으며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공통된 이해 기반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의 윤상호 박사의 미완의 글에 대해 토론하는 것보다 그런 공통의 이해 기반이 급선무여서 이 글을 제시했다. 윤박사의 글에 대한 토론은 개조식으로 제일 마지막에 키워드 중심으로 붙였다. 이 토론 이후 필요하면 완결된 형태로 완성할 생각이다.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통계적 기법이 경제이론을 대체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다. 계량경제학적으로는 무난한 추계를 하였는데 서로 다른 정책적 결론에 도달했다면 우리는 어떤 결론을 취해야할 것인가?

멩거의 책이 출간되고 뵘바베르크(Eugen Böhm-Bawerk, 1851-1914)와 비저(Friedrich von Wieser, 1851-1926) 등 출중한 학자들이 멩거의 이론을 계승·발전시키면서, 당시 경제학의 후진 지역이던 오스트리아 비엔나 대학은 일약 경제학의 중심지로 발돋움하였다. 사실 오스트리아학파라는 이름은 독일 역사학파가 촌뜨기라고 놀리려고 붙인 것이었으나, 1930년대에 들어와서는 비엔나대학은 영미의 경제학자들이 유럽을 방문할 때 반드시 들르는 곳이 될 정도로 경제학의 중심으로 성장하였다.

뵘바베르크는 이자현상에 대한 주관적 시간선호(subjective time preference) 이론을 제시하였다. 당시 이자현상은 이윤과도 잘 구별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이자의 수취를 일종의 부당한 착취로 보는 경향이 있었다. 그는 재화에 대해 선호를 가지듯이 시간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주관적인 선호를 가진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이자 현상을 발생시키는 원인(originating cause)에 대해 설명하였다. 뵘바베르크의 주관적 시간선호이론은 루트비히 폰 미제스(Ludwig von Mises, 1881-1973)에 의해 다듬어져 순수시간선호이론(Pure Time Preference Theory)으로 발전하였다.

멩거는 소비재와 자본재를 구별하고 최종소비재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가가 그 소비재 생산에 기여하는 자본재의 가치의 원천임을 강조하여 투입비용이 소비재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의 주관적 평가가 자본재의 가치를 형성하게 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멩거의 전통을 이어 뵘바베르크는 이자이론과 자본이론을 결합하여, 시간선호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되는 정도까지 우회생산의 정도가 결정된다는 이론을 개척한 바 있다.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의 개념은 경제학의 핵심적 개념 가운데 하나이다. 여러 대안 가운데 한 가지 길을 선택하면 언제나 다른 가보지 않은 길이 남게 된다. 경제학에서는 이런 선택하지 않았던 기회가 주었을 (예상)효용, 즉 잃어버린 효용(forgone utility)을 기회비용이라고 부른다. 이 기회비용의 개념을 경제학에 처음 도입하고 일반화시킨 사람은 다름 아닌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자 비저이다.

1930년대 비엔나대학이 경제학의 중심으로 성장했다는 것은 달리 표현하면 오스트리아학파의 이론이 주류경제학으로 흡수되어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사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 심지어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자들조차 1930년대까지는 오스트리아학파를 고전학파에 대해 반기를 들고 주관주의 한계혁명을 일으킨 신고전학파 주류경제학의 일부로 간주하였다.

예컨대 미제스는 1932년에 쓴 『경제학의 인식론적 문제』(Epistemological Problems of Economic Science)에서 “현재의 주관주의 경제학에서 오스트리아학파, 영미학파, 로잔느학파를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이 학파들은 표현하는 방식에서만 다를 뿐 똑같은 근본적 사상을 설명하고 있다”고 적고 있다.¹⁶⁾

16) 하이에크도 이 점에서는 마찬가지였다. 라이오넬 로빈스(Lionel Robbins, 1898-1984)의 초청으로 영국 런던의 LSE(London School of Economics)에 초빙되어 LSE 교수가 되었던 하이에크 역시 1933년의 LSE 취임 연설, “경제학의 조류”(Trend of Economic Thinking)에서, 실업, 인플레이션 등 경제문제가 그 어떤 다른 문제보다 자주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경제학자들의 분석이나 처방이 일반대중에게 외면되는 이유가 이론에 대한 경시와 무관하지 않음을 걱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런 동류의식은 뵘바베르크의 자본이론과 이자율 이론, 비저의 기회비용과 같은 오스트리아학파에서 비롯된 경제학적 개념들이 이미 주류경제학에 흡수되었다는 생각과 함께, 독일의 역사학파처럼 이론을 경시하는 학파가 끼칠 악영향에 대한 우려로 인해 강화되었다.

나.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오스트리아학파

이러한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오스트리아학파의 주관주의 한계혁명을 시작한 3사람 가운데 한사람인 멩거는 제본스나 왈라스와는 달리 주관적 효용만이 아니라 “지식”의 측면을 함께 강조한다는 점에서 매우 독특한 측면을 지니고 있었다.

예컨대, 멩거는 어떤 것이 “재화”가 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물리적 속성을 지녀야하지만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런 물리적 속성 이외에도 이에 대한 인간의 인식이 전제되어야 비로소 재화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산딸기가 비록 인간의 배고픔을 충족시키는 물리적 속성을 가지고 있더라도 산딸기가 독성이 없고 배고픔을 충족시킨다는 “지식”이 전제되어야 비로소 산딸기가 재화가 된다는 것이다.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 나오는 유명한 핀 공장의 예는 분업(division of labor)의 이익을 설명하는 것으로 자주 인용되지만, 멩거는 바로 “분업을 통한 생산성 향상”의 가능성에 대한 인간의 지식이 이런 분업을 촉진하는 원동력이라고 보았다.

이처럼 오스트리아학파에 특유하게 내재된 관점들은 양차대전 사이에 일어났던 「사회주의 계산논쟁」을 계기로 부각되었다. 이 논쟁을 통해 신고전학파적 훈련을 받았던 사회주의에 경도된 경제학자들이 오스트리아학파와 서로 다른 언어를 쓸 뿐 아니라 시장에 대해서도 다르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특히 이 논쟁을 계기로 미제스와 하이에크(Friedrich A. Hayek, 1899-1992)는 오스트리아학파의 특징적 요소들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논문들과 서적들을 출간하였다. 이 논문들과 책들은 시장균형(균형의 존재 및 안정성 조건)보다는 시장과정을 중시하고,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직면한 “인지적 한계”로 인한 “지식의 문제”로부터 시장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즉 신(新)오스트리아학파를 형성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다. 사회주의 계산논쟁

1920년대와 30년대 양차대전 사이에 있었던 사회주의 계산논쟁(socialist calculation debate)은 왜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잘 작동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정부의 간섭주의 정책의 한계에 대해서도 훌륭한 통찰력을 제공해준다. 미제스와 하이에크는 희소성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있는 경제학자들이 자신들과 다르게 시장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민주적 방식으로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시장경제보다 더 효율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

미제스가 제기한 사회주의 계산문제의 핵심은 자본재가 사회적으로 소유되면 자본재에 대한 시장과 그 가격이 형성될 수 없고, 이에 따라 어떤 생산수단들을 어떤 방식으로 조합하여 생산할 때 가장 자원을 절약하는 것인지에 대해 아무런 아이디어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오스카 랑게(Oscar Lange, 1904-1965)와 같은 경제학자는 중앙계획당국이 왈라스의 경매인(auctioneer)처럼 행동하면 미제스가 제기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다.

중앙계획당국이 어떤 구체적 자본재에 대해 어떤 가상적 가격을 제시하고 집단 농장이나 집단공장과 같은 각 공동생산단위의 관리인들이 이 가상적 가격에서 수요 혹은 공급하고자 하는 양을 중앙당국에 전달한다. 그러면 중앙계획당국이 이를 집계하여 그 특정 자본재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할 때까지 “경매가격”을 조절하면 희소성을 반영하는 “행정가격”(administered price)이 “시장”가격을 흉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마치 중앙 계획당국이 시장을 흉내 낸다면 미제스가 제기한 문제는 최소한 단순화시킨 모델 안에서는 해결가능하다는 것이다.¹⁷⁾

미제스로서는 인간행동은 언제나 미래의 상황을 현재와는 다르게 개선해보려는 노력이므로 미래지향적이며 그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개재되어 있다. 따라서 이런 랑게식 “행정가격”을 통해서도 결코 시장에서 일어나는 기업가적 경쟁과정을 흉내 낼 수 없었던 것이다. 사실 공장 관리인이 마치 시장에서 기업가들이 그러하듯이 미래의 수요를 예상하여 손실을 보지 않고 이윤을 얻기 위해 노력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런 유인이 랑게의 경매인 모델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시장에서 잘 해결하고 있는 것을 복잡하고 어색하게 흉내 내고자 할 수 있을 뿐이다.

미제스가 주관주의 학파들이 같은 내용을 단지 서로 다른 언어로 말하고 있을 뿐이라고 했을 때, 그는 여타 학파들도 자신처럼 시장을 이해하고 있으며 연립방정식과 같은 수학의 사용은 다만 이론의 제시를 편리하게 하는 의미를 지닌 것으로 보았다. 당시 많은 경제학자들은 랑게가 미제스가 제기한 사회주의 계산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하여 미제스를 “패퇴”시켰다는 성급한 결론을 내렸었다. 이런 사실은 주류경제학자들이 이자이론, 기회비용 등 오스트리아학파의 개념을 흡수했는지는 모르지만 정작 핵심적인 시장에 대한 이해는 제대로 습득하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한다.

미제스의 제자이며 미제스와 하이에크의 이론을 종합하여 기업가이론과 시장과 정론을 정립시킨 커츠너(Israel Kirzner, 1930-)¹⁸⁾ 교수는 “경제계산논쟁의 교훈”(The Economic Calculation Debate: Lessons for Austrians,” 1987)에서 사회주의 계산논쟁을 다음과 같은 3가지 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첫 번째 단계는 자원의 희소성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대해 시장가격이 지닌 정보전달의 의미를 전달하는 단계이다. 동경에 지진이 발생하여 재건에 필요한 자재의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희소한 자원을 보다 시급한 곳에 쓰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랑게는 이 점에 대해 이해하고 있었으며 그래서 중앙계획당국이 왈라스의 경매인의 역할을 대신하는 모델을 제시하였던 것이다.

둘째 단계는 자원의 희소성과 관련된 가격의 역할을 이해하는 랑게와 같은 경제학자들에게 시장가격과 행정가격의 차이를 설명하는 것이었다. “행정가격”을 제시한다고

17) “칼”을 예로 들자면 그 유형이나 강도, 쓰임새 등에 따라 수십만 종류가 있을 것이다. 랑게의 모형에서는 그 수십만 종류의 칼에 대해 일일이 수요와 공급을 파악하든지 아니면 다양한 쓰임새를 무시하는 수밖에 없다. 이것은 모든 자본재들에 대해 마찬가지이다. 일본에서 전시에 필요에 알맞은 수준으로 동원할 가구를 분류하고자 했을 때 수십만 종이 넘었다는 사실은 이런 랑게식 과정이 얼마나 무모할 것인지를 보여준다. 어떤 새로운 상품을 생산할지 그 자체도 시장경쟁의 대상이며, 시장경쟁을 통해 출현하는 새로운 상품을 생산하거나 종전의 상품을 생산하는 어떤 새로운 기술(새로운 자본재)을 도입할 것인지도 시장경제에서는 경쟁을 통해 발견되어 간다.

18) 커츠너의 세계에 대해서는 김이석, “커츠너의 세계: 이윤동기가 불붙이는 기업가정신과 시장과정” 에머지 2002.12 참고.

하더라도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에서 관료화한 공장관리인들이 시장경제에서 기업가들처럼 이 행정가격에 기민하게 반응할 것으로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라보이(Lavoie, Don)는 『경쟁과 중앙계획』(Rivalry and Central Planning, 1985)에서 교과서식으로 수동적으로 주어진 가격을 받아들이는 상태를 경쟁이 완전한 보다 바람직한 상태인 완전경쟁이라 부르는 것을 반대하면서, 경쟁상대방을 앞서려는 기업가적 노력을 경쟁의 요체로 파악하고 중앙계획당국의 계획과정과 이런 시장 경쟁과정이 서로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논하고 있다.

하이에크는 가격이 현장에서 벌어지는 변화와 현장에 대한 지식들을 통합하는 정보전달 장치이며, 이런 정보 속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없는 암묵적 지식이 포함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말하자면 행정적으로 현장의 개별 주체들에게 분산된 지식을 “행정가격”을 통해 중앙계획당국에 통합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며, 시장은 바로 각 개별 주체들에게 분산된 현장의 지식을 활용하는 시스템이라는 점을 설파하였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발견절차(discovery procedure)로서의 경쟁에 대한 의미를 전달하는 단계이다. 하이에크는 만약 우리가 경쟁을 하기 이전에 경쟁을 통해 나타날 결과를 미리 알고 있다면, 즉 어떤 기업이 더 저렴하고 좋은 품질의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지를 미리 알 수 있다면, 자유로운 경쟁을 허용하는 것 자체가 낭비적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경쟁의 필요성은 바로 우리가 경쟁을 통하지 않고서는 발견할 수 없는 것들을 발견해 준다는 데 있다. 우리가 경제학 교과서에서 편의상 소비자의 선호는 “주어져 있다”고 가정하지만, 실은 생산자들이 미리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경쟁과정을 통해 소비자들이 무엇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또 어떤 생산방식이 더 나은 방식인지와 같은 것들을 발견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자원이 희소하면 다른 사람의 유용한 지식을 잘 활용할 필요가 발생하며, 이런 점에서 시장은 바로 다양한 사람들의 지식을 잘 활용할 뿐 아니라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도록 유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이런 경쟁의 기능이나 가격의 기능은 더 이상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균형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균형이론은 근본적으로 동태적인 시장과정의 본질을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고, 균형개념에 익숙해지는 만큼 이런 과정에 대한 이해가 취약해지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당연한 귀결이라 할 수 있다.

2. 주류경제학 비판과 대안

가. 비판

(1) 경제현상에 대한 이해보다 과학적 외양에 치중

앞서 설명하였듯이 오스트리아학파들에게는 “과학적” 외양 갖추기보다는 경제현상에 대한 진정한 이해가 경제학 연구의 가장 핵심적 과제이다. 예컨대, 고도로 발달한 화성의 생명체가 망원경으로 뉴욕의 그랜드 센트럴 역에 사람들이 아침 9시경과 저녁 5시경에 모여든다는 것을 관찰하고 “9시-5시 가설”을 세우고 이를 한동안 정확하게 예측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으로 이 현상을 진정으로 이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오스트리아학

파에 따르면, “출퇴근”이라는 개인들의 목적을 통해 이 현상을 설명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이 현상을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학파는 경제현상을 설명할 때 총량변수 간의 관계를 추정하거나 비현실적 가정에 근거한 이론을 펼치고 비현실적 가정을 모델의 예측력에 기대어 정당화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들은 철저한 방법론적 개인주의의 입장을 견지한다. 방법론적 개인주의란 경제현상을 개인들의 주관적 의사 결정으로부터 출발하여 설명해야한다는 방법론적 입장이다. 이 입장을 취한다고 해서 관습, 언어 등 제도가 미치는 영향을 등한시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스트리아학파는 “인간 행동의 결과지만 그 누구의 의도의 결과로 형성된 것은 아닌” 관습과 제도의 형성 과정 자체를 개인들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설명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렇게 형성된 관습이나 제도가 개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의미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

예컨대 멩거는 화폐의 출현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갑옷을 가지고 있으나 바늘이 필요한 사람이 마침 갑옷이 필요하면서 바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기는 어려울 것이다. 더구나 갑옷과 바늘의 교환비율이 서로가 합의할 수 있는 범위에 있는 경우는 더 드물 것이다. 이 때 시장에서 수요자를 쉽게 찾을 수 있는 쌀과 같은 상품으로 먼저 교환하고 쌀을 바늘로 교환하면 자신이 원하는 물건을 좀 더 쉽게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많은 다른 사람들이 이런 방식의 교환을 모방하게 될 때, 개별 경제주체들의 행위의 결과이지만 누구도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the result of human action, not of human design)로 “일반적 교환의 수단”인 화폐가 출현한다.¹⁹⁾

사실 대다수 주류경제학자들도 방법론적 개인주의를 견지하고 있으나 오스트리아학파에 비해 일관되지 않거나 이런 방법론에 대한 충성도는 매우 얇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컨대 현대 주류경제학자들에 있어 개인은 그의 선호를 보여주는 무차별지도만 남기면 사라져도 되는 존재이거나, 심지어 총량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를 추정한 후 이런 관계가 왜 발생하는지를 개인들의 선택의 상호작용으로 환원하여 설명하지 않고도 마음이 별로 불편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반해 오스트리아학파에게 있어 개인은 경제학자들에게 단순히 무차별지도만 드러내주면 그 역할이 끝나는 존재가 아니다. 개인들의 계획은 언제나 자신이 원하는 미래의 변화를 지향하고 있고, 미래는 미리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을 띤다. 오스트리아학파로서는 개인들의 상호작용을 배제한 채 마치 총량 변수들이 개인들의 행동과 무관하게 존재하는 것처럼 보고 이를 통해 경제현상에 대한 이해가 증진되는 것처럼 여기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비록 총량을 다루는 경우에도 이를 시장참여자들의 행위와 상호작용으로 설명함으로써 경제현상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자 노력한다.

수학적 도구로 논증하여야 논리적 엄밀성을 보증하는 반면, 말로 된 논리는 비과학적인 것처럼 취급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한 오스트리아학파의 생각은 다르다. 시장에서 개별 인간이 직면한 선택 상황은 수리적 모형에서 설정하는 것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점에서, 수리적 모델이어야만 과학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본다.

19) 미제스는 멩거의 화폐이론을 확장하여 화폐의 시장 가격을 설명함에 있어서도 주관적 한계효용론을 도입한다. 화폐의 가치는 화폐에 대한 이자율 획득이라는 기회비용을 지불하더라도 개인들이 얻게 되는 효용에서 비롯된다. 미제스는 이런 이론의 확립을 통해 한계주의 혁명 이후에도 베일 혹은 계산단위(뉴메레르)로만 취급되었고 한계효용으로 설명하지 못했던 화폐의 가치를 설명하는 공헌을 하였다.

우리가 선택에 직면하여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새클(G. L. S. Shackle)이 말한 것처럼 “인간의 선택은 항상 상상들 간의 선택이므로 사실들 간에 선택을 하려고 하면 이미 너무 늦기” 때문이다. 이런 인간의 선택에 내재된 불확실성의 측면은 수리화하기 어렵다. 왜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 공장 관리인들이 시장의 기업가들처럼 행동할 수 없는가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바로 이런 인간선택에 내재된 측면을 파악하여야 한다. “과학”에 대한 편향된 시각은 수리적 모델만을 과학적으로 여기게 하고, 인간선택에 불가결하게 수반되는 측면이 우리의 인식의 범위로부터 사라지게 만든다.

수리적 형식화에 빠져 인간이 직면한 근본적 문제를 무시하는 것은 바로 과학주의(scientism)의 오류에 빠지는 것이며, 이런 오류에 빠진 대표적 예가 바로 시장사회주의(market socialism)이다. 특히 하이에크는 시장과정에 대한 “진정한 이해”(Verstehn) 보다는 과학적인 듯이 보이게 하는 외양을 중시하는 태도는 지식을 가장하는(pretence of knowledge) 과학주의(scientism)에 다름 아니라며 신랄하게 비판한 바 있다. 수학은 비록 주어진 가정 아래에서는 논리적 일관성을 보장할 수 있지만(syntactic rigor), 앞의 인간 선택에 내재된 불확실성의 예에서 설명한 것처럼 수리적 형식화는 현실 적합성(relevance)이라는 면에서는 전혀 엄밀하지 않다. 물론 오스트리아들도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경제현상의 종류와 목적에 따라서는 수리적 기법을 이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지만 수학적 기법만이 과학적이라고 고집하는 것은 일종의 넌센스라고 본다.

(2) 개인들의 계획 조정과정에 대한 관심 부족

경제학에서 균형은 여러 가지 의미와 차원으로 쓰인다. 특정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어떤 시점에서 일치된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어떤 한 경제 내에 있는 그 어떤 개인도 더 이상 계획을 변경할 유인이 없어지게 되었다는 의미에서의 최종적 상태를 말하기도 한다. 이런 여러 가지 균형 개념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컨대 어떤 특정 시장에 일정한 가격 이상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상품을 공급하였으나 수요가 기대에 못 미쳐서 가격을 낮추어 출시한 생산품을 모두 팔았다고 하자. 이 경우 어떤 가격에서 초과공급이 없었다는 의미에서는 균형을 이루었지만 이 공급자가 공급 계획을 변경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획을 변경시킬 유인이 없다는 의미에서의 균형은 아닐 수 있다.

균형이 논의되는 수준 또한 다양하다. 균형 “가격”과 균형 “수량”의 차원에서 균형이 논의되기도 하고, 개인들이 서로 다른 전략을 구사할 때 더 이상 다른 전략을 구사하지 않고 종전의 전략을 계속해서 구사한다는 의미의 균형 “전략”의 차원에서 논의되기도 한다. 이런 전략을 창출하는 “이론”의 차원에서 논의될 수도 있으며, 이런 이론의 차원을 넘어서서 일정한 행동 패턴을 창출하는 관습이나 제도와 연관시켜 균형 “관습” 혹은 균형 “제도”의 차원에서 논의되기도 한다.

이러한 다양한 균형개념들은 나름대로 경제 분석에서 중요한 도구가 되고 있다. 어떤 전지한 존재가 개인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해주지 않는 데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의 계획들이 어떻게 서로 조정되는지, 개인들의 계획들이 충돌하지 않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은 균형 분석이 아니라 균형으로 가는 과정을 설명함으로써 가능해진다.

하이에크에 의하면 경제학자들은 “로빈슨 크루소”가 직면한 선택의 문제(Pure

Logic of Choice)를 다루고 난 후, 개인들로 이루어진 사회 안에서 개인들 사이의 계획의 충돌이 어떻게 해소되어 가는지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일반경쟁균형 상태란 실은 이미 개인들의 계획들이 충돌하지 않게 된 상황이므로 일반경쟁균형 상태에 관한 분석만으로는 개인들 사이의 계획의 양립성이라는, 한 개인이 아니라 여러 개인으로 구성된 “사회적” 문제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경제학자들은 이런 어려움을 간파한 경우에도 일반경쟁균형을 향한 경향성(tendency toward general equilibrium)을 도입하여 이 과정을 설명한 듯이 착각하지만, 이 경향성의 가정은 필요한 대답을 한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왜 그런 경향성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회피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이런 하이에크의 관심을 인위적 신용팽창에 따른 경기변동의 문제와 연관하여 오드리스콜(Gerald O'Driscoll, Jr.)은 『조정문제로서의 경제학』(Economics as a Coordination Problem, 1977)이라고 이름붙인 바 있다.

(3) 개인들이 직면한 "지식의 문제"에 대한 이해의 결여

현재 경제학은 개인들의 인센티브의 문제에 대해서는 높은 이해를 보이고 있으나 개인들이 직면한 인지적 한계에 대한 이해의 수준은 그리 높지 않다. 최근 거래비용경제학(transaction economics), 정보경제학(economics of information) 등의 발전으로 경제학자들은 종전과는 달리 정보를 그저 주어진 것, 혹은 공짜로 획득되는 것으로 더 이상 보지 않으며, 거래상대방의 탐색, 거래의 이행, 감시 등에는 비용이 수반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류경제학에서는 시간의 경과 속에서 행동해야 하는 각 개인들이 직면한 무지(ignorance)의 종류와 그 내용, 이 문제가 시장에서 어떻게 극복되는 것인지, 불확실성에 따른 손실 가능성과 시장경쟁, 혹은 기업가정신은 지식의 문제와 어떤 관련을 맺는 것인지 등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도서관에 가서 필요한 책을 찾는데 얼마 정도 탐색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문제를 설명할 때 우리는 최적 탐색이론을 이용할 수 있다. 좀 더 시간을 들여 찾으면 내 목적에 맞는 책을 찾을 확률이 높아지겠지만 그만큼의 탐색비용을 들여야 한다. 결국 예상수익과 비용을 고려하여 한계적 이득이 한계적 비용과 일치할 때 탐색을 멈출 것이다.

그러나 “책”을 찾으려면 “도서관”에 가야한다는 아이디어는 어떻게 창출되는 것일까? “이윤”을 얻으려면 아직 충족되지 않은 수요를 발견하고 이를 수요자들이 지불하려는 가격보다 더 싼 가격으로 이를 공급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필요하다.

시장가격은 기본적으로 “무엇”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 사실 투입요소들의 가격이 없고 이윤과 손실의 인센티브가 없으면 이런 발상 자체가 제약된다. 사회주의 계산논쟁의 요체도 결국 자본재의 소유를 철폐하여 이들 자본재의 시장가격이 없어지면, 합리적 경제계산이 불가능하므로 기업가적 발상의 경쟁과정이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에 있다. 시장은 개인들에게 흩어져 있는 지식(혹은 정보)을 활용하는 곳이며, 동시에 새로운 지식이 창출되는 과정이다. 이런 경쟁과정을 통해 시장에서는 소비자들의 장래 수요에 대한 다양한 가설들이 실험된다.

나. 대안

(1) 시장과정이론(market process theory): 경쟁과정과 기업가정신

앞서 하이에크가 제기한 균형이론의 비판에서 보았듯이 한 개인이 아니라 여러 개인들로 구성된 사회에서 개인들 간의 계획의 양립성이 어떻게 성취되는지에 대한 문제는 경제학에서 오래된 관심사이다. 누가 명령하지 않아도 유지되는 시장에서의 자생적 질서를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개인들이 직면한 상황, 즉 다른 개인들의 계획을 알지 못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계획의 양립성을 성취해 나가는 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즉, 이미 이런 문제들이 해결된 상태인 균형(equilibrium) 분석에 만족하거나 균형을 향한 경향성(tendency)을 가정하는 데 그치지 말고, 계획의 양립성을 이루어나가는 “과정”(process)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런 시장과정(market process)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하이에크와 미제스를 종합하여 기업가적 경쟁과정이론을 제시한 대표적 학자의 한사람이 이스라엘 커츠너(Israel Kirzner)이다. 그는 미제스로부터는 “인간행동”에 내재하고 있는 이윤기회에 대한 기민성(alertness to profit opportunity)이라는 기업가정신을 찾아내고, 하이에크로부터는 시장 경쟁과정을 개별 경제주체들에게 흩어진 지식을 활용하는 의사소통과정으로 보는 관점을 받아들여, 기업가들이 이윤기회의 간격을 끊임없이 메움으로써 흩어진 지식도 활용되면서 동시에 시장의 불균형이 메워지는 것으로 보았다.

이런 과정을 이론화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는 이런 과정이 일반균형이론이 가정하는 균형 수량과 균형 가격으로 수렴하는 과정을 생각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 균형 “전략”으로의 수렴을 생각해볼 수도 있다. 커츠너가 『경쟁과 기업가정신』에서 이론화한 것은 일반경쟁균형이론에서의 균형 가격과 수량으로 수렴하는 과정이었다. 그러나 우리가 개인들이 자신의 계획을 수립할 때 다른 사람들의 계획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계획해야 한다는 사실은 개인들의 계획들이 상호 작용하여 나타날 미래를 정확하게 예상하고 이를 바탕으로 계획을 세울 수 없다는 문제이기 때문에, 라흐만(Ludwig Lachmann)은 커츠너의 이론을 미래에 대한 예상의 측면에서 비판하였다.

오드리스콜과 리조(Mario Rizzo)는 이런 라흐만의 비판을 염두에 두고, 개별 경제주체들이 세운 계획들의 정확한 양립성은 결코 확보될 수 없으며 행위 패턴들만이 일정한 양립성을 획득할 수 있을 뿐이라고 보고 그들의 책, 『시간과 무지의 경제학』(Economics of Time and Ignorance, 1985[1996])에서 패턴 조정(pattern coordination)으로의 수렴을 이론화할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2) 지식의 문제와 그 극복 과정에 대한 연구

타인들의 계획들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계획의 실패가능성이 시장에서 어떻게 해소되어 가는가?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 놓고 두 가지 방향에서 이 질문을 다시 제시해볼 수 있다. 그 하나의 방향은 “개인들이 자신

들의 계획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 혹은 지식을 시장에서 어떻게 획득할 수 있는가?”라고 물어보는 것이다. 또 다른 방향의 질문은 “시장에서 이런 개인들의 지식의 부족, 혹은 인지적 한계가 별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개인들의 지식부족을 메워주는 과정은 어떤 것인가?”이다.

하이에크의 경우 비록 그 시기를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힘들지만 대체로 처음에는 첫 번째 방향의 질문을 제시하다가 후에는 두 번째 방향의 질문을 제기한다. 사실 시장에서 개인들이 시장과정이 진행되어 감에 따라 일정한 정도까지는 타인들의 계획에 대해 보다 정확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설명은 곧 한계에 부딪힌다. 개인들의 상호작용의 결과인 미래를 점점 더 잘 예측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시장에서 개인들이 필요한 정보를 획득해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잘못된 예상이 체계적으로 배제되는 과정이 있다면 일정한 정도까지 계획의 양립성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열린다. 칼 포퍼(Karl Popper)가 과학의 과정을 잘못된 가설을 배제해 가는 과정으로 파악한 것처럼, 시장에서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잘못된 미래 예상에 근거한 계획들은 실패한다. 하이에크는 시장에서 실패한 계획들이 체계적으로 배제된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이를 계획들 간의 상호양립성이 나름대로 확보될 수 있는 근거로 내세운 바 있다. 물론 잘못된 예상의 “체계적” 배제를 통해 시장에서 자생적 질서가 형성되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으려면 “체계적”이라는 말 속에 숨겨진 과정이 보다 구체적으로 상술되어야 한다.

사실 하이에크가 강조한 가격의 정보 전달 기능, 예컨대 동경에 지진이 나면 재건축 자재 값이 올라 동경에 지진이 났다는 사실을 모르는 개인들도 재건축 자재를 덜 쓰게 되는 이 기능도 정보의 제약 문제를 완화하는 하나의 방식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멩거가 제시한 화폐의 출현은 자신이 원하는 재화를 가진 사람들과 그들이 원하는 거래 조건을 알 수 없는 문제를 완화한다. 서로 교환할 수 있는 조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찾는 것에 비해서, 단순히 돈을 받고 자신이 지닌 갑옷을 원하는 사람을 찾아 팔고 나중에 이 돈으로 원하는 것을 사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보 부담이 적다.

이처럼 오스트리아학파는 개인들이 직면한 여러 형태의 지식의 문제를 완화하는 방식에 대해 연구함으로써 개인이 직면한 지식의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패턴화된 행위 혹은 암묵적으로 따르는 규칙으로서의 “제도”가 지닌 농축된 지식(congealed knowledge)으로서의 성격에 대해서도 이런 맥락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3) 방법론적 개인주의에 입각한 거시경제이론

미시경제학은 개인들의 행위와 관련되며 경제 전체에 대한 이론은 거시이론이 다루는 듯이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지만, 미시이론도 궁극적으로는 시장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방법론적 개인주의를 채택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오스트리아학파는 소위 거시현상에 대한 미시이론적 바탕을 중시한다.

예컨대 경기순환이론에서 이자율의 인위적 변경은 단순히 총투자를 늘려 유효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도구이지만 유동성함정에 빠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투

입을 통한 재정정책이 실효성이 높은 유효수요를 창출하는 정책이라는 것이 케인지언 거시경제 정책의 한 결론이다. 반면 통화주의자들은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강조한다. 그래서 거시경제이론에서는 어느 이론이 맞는지는 경험적 문제라는 생각이 적지 않다. 그래서 이자율의 인위적 인하로 총투자를 얼마나 늘릴 수 있겠는가에 대해 논쟁을 벌이고, 자신의 주장을 과거의 자료에 대한 계량경제학적인 추계를 통해 증명하고자 노력한다.

그러나 오스트리아학파로서는 이자율은 가격의 하나이며 따라서 정보전달 기능을 한다. 이자율의 인위적 인하는 투자할 재원의 공급이 수요에 비해 종전보다 많아졌다는 신호를 잘못 전달한다. 오스트리아학파의 경기순환론이 인위적 이자율 인하가 과잉투자를 불러올 수 있다는 이론으로 잘못 알려져 있지만, 실은 잘못된 투자(*mal-investment*)를 촉발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을 통제할 때 나타날 폐해에 대해서는 경제학자들 간에 광범위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자율이 하나의 가격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이하게도 가격의 하나인 이자율에 대한 인위적 조작이 마찬가지로 심각한 폐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데 대해서는 경제학자들은 별로 일치된 견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오스트리아학파는 거시경제현상에 대한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도 방법론적 개인주의를 견지한다. 미시이론적인 바탕을 중시하며, 되도록 대표적 경제주체(*representative agent*)의 가정에 의존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사실 시장경제에서 교환이 이득이 되는 것은 각자가 처한 처지나 선호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심지어 한 개인에 있어서도 현재와 미래에 대해 부여하는 가치의 비중이 다르기 때문에 현재의 소비를 미래의 소비와 교환하기도 한다. 자칫 대표적 경제주체라는 이름으로 이런 개별 경제주체들 사이의 차이를 제거할 위험이 있다. 오스트리아학파는 이런 위험을 최소화하고, 거시경제현상을 설명할 경우에도 개인들 사이의 이런 차이를 무시하는 것이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 이외에는 이런 차이를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한다.

3. 최근의 관심사

오스트리아학파의 최근 대표적인 연구 주제들을 살펴보면 앞서 언급한 바 있는 기업가정신에 대한 연구, 지식의 문제를 극복하는 방법으로서의 법 혹은 제도에 대한 연구, 동구 등 체제전환기의 경제에 대한 연구, 그리고 화폐금융제도에 대한 연구 등이다.

가. 기업가정신 이론의 확장

기업가정신에 대한 연구는 커츠너가 하이에크와 미세스의 연구를 종합하여 신고전파 주류경제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쓴 책, 『경쟁과 기업가정신』(*Competition and Entrepreneurship*, 1973)이 대표적이다. 이 책은 나이트(*Frank Knight*, 1885-1972)의 『위험, 불확실성 및 이윤』(*Risk, Uncertainty, and Profit*, 1920), 슈페터(*Joseph Schumpeter*, 1883-1950)의 『경제발전의 이론』(*The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1912[1934, 1961]) 등의 책과 함께 기업가정신에 대한 고전이 되고 있다.

커츠너를 시작으로 톰센(E. Thomsen)은 『가격과 지식』(Prices and Knowledge)이라는 저술을 통해, 가격이 어떻게 지식의 부족을 메워주는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커츠너의 시각을 보다 심층적으로 연구하였으며, 소테(Frédéric] Sauté)는 기업가정신의 이론을 기업이론에 접목하여『기업가적 기업이론』(An Entrepreneurial Theory of the Firm, 2000)을 썼다.

한편 하퍼(David Harper)는 칼 포퍼의 세련된 반증주의(sophisticated falsificationism)²⁰⁾에 입각하여 기업가들 역시 끊임없이 문제를 푸는 과정(endless process of problem solving)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커츠너의 기업가이론과는 상당히 다른 유형의 기업가이론을 이론화한 『기업가정신과 시장과정』(Entrepreneurship and the Market Process, 1996)을 저술하였다.

이에 반해 김이석(Yisok Kim)은 규칙을 따르는 행위"에 대한 하이에크의 관점을 확장하여, 규칙을 따르는 행위와 기업가정신의 발휘가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다는 점을 이론화하기도 하였다.

나. 제도, 법경제학, 전환기경제

공간화한 시간이 아니라 예기치 않은 변화를 동반하는 “시간의 경과”(passage of time)가 주는 의미에 대해 천착함으로써 오스트리아학파의 특징적 측면을 부각시킨 대표적 저술이 앞서 언급했던 오드리스콜과 리조의 『시간과 무지의 경제학』이다.

이런 시간의 경과와 인간의 인지적 제약을 고려할 때 법경제학적 시사점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 리조는 “변화무상 속의 법”(Law amid Flux: The Economics of Negligence and Strict Liability in Tort, 1980) 등의 논문에서 분석하였다.

로스비(Brian Loasby)는 마샬(Alfred Marshall, 1842-1924)의 전통을 이어받아 하이에크와 마샬의 종합을 통해 조직과 지식의 문제의 통합을 시도한 『균형과 진화』(Equilibrium and Evolution, 1991)를 저술하였다. 시간의 경과의 문제는 진화경제학에서도 일정부분 다루어지고 있는데 진화과정, 복잡성 이론 등을 통합하여 조직의 문제, 규칙을 따르는 행위, 지식의 문제를 함께 다룬 논문들도 나오고 있다.

보트키(Peter Boettke)는 『왜 페레스트로이카가 실패했는가?』(Why Perestroika Failed?, 1993)에서 뷰캐넌(James Buchanan)의 공공선택론과 하이에크의 이론을 종합하여 사회주의 구소련의 경제·정치체제를 분석하였는데 최근에는 시장경제로 이행하는 동구국가의 문제들을 분석하고 있다.

다. 거시 및 화폐금융론

맹거의 화폐제도의 출현에 대한 이론, 뵘바베르크의 자본이론, 미제스의 화폐이론, 하이에크의 경기순환론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오스트리아학파는 거시경제이론 분야에도 꾸준

20) 처음 반증주의가 제시되었을 때에는 한 번의 반증으로 종전의 가설의 오류를 증명할 수 있다고 믿었으나 이 믿음을 버리고 “테스트의 강도”를 통해 반증의 신뢰성을 검토하는 과학철학을 세련된 반증주의라고 한다..

히 관심을 기울여왔다. 커츠너의 『자본에 대한 에세이』(Essays on Capital, 1966)와 라흐만의 『자본과 자본구조』(Capital and Its Structure, 1956)의 자본이론에 대한 저술은 오스트리아학파의 거시분야 관심을 후세대로 연결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로스바르트(Murray Rothbard)는 미제스의 『인간행위의 경제학』에 버금가는 그의 대작 『인간, 경제, 국가』(Man, Economy, and State, 1962)에서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키는 인위적 확장정책의 문제점을 드러내 보였다.

이런 연구를 이어받아 오드리스콜, 개리슨(Roger Garrison), 르윈(Peter Lewin), 호르위츠(Steve Horwitz) 등이 거시경제이론 분야에서 오스트리아학파의 이론을 다듬고 있다. 하이에크는 정부의 화폐공급 독점권의 제거를 주장하였는데 하이에크의 주장을 이어받아 화이트(Lawrence White), 셀진(G. Selgin) 등의 학자들이 자유금융제도(free banking) 등 거시.금융 분야의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4. 결론

비록 주마간산 격으로 살펴보았지만 우리는 오스트리아학파가 역사 속에 묻힌 죽은 전통이 아니라 생생하게 살아있는 전통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오스트리아학파는 그 방법론적 독특성으로 인해 주류경제학의 위치를 차지할 만큼 그 저변을 확대하지는 못하였지만, 여타 경제학자들이 빠지기 쉬웠던 오류를 범하지 않을 수 있었고 경제현상에 대한 이해에 관한 한 어느 학파보다도 확실한 기초를 가질 수 있었다.

현재 주류경제학자들은 수리적 방법과 계량경제학적 방법을 중시한다. 수리적 방법은 문제가 잘 정의되지 않는(ill-structured) 상황에는 적합하지 않으며, 총량 변수간의 상관계수의 추정에 치중하는 계량경제학이나 거시경제학은 개별 경제주체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생략하기 때문에 그 미시적 바탕이 취약하지만 이런 문제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 실정이다.

오스트리아학파는 수리적 방법, 계량경제학적 방법 자체에 대해 반대한다기보다는, 그 한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필요하며 경제학을 과학으로 만드는 요체는 그 외양이 아니라 시장현상에 대한 “이해”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이해를 얻기 위해 오스트리아학파는 지금도 다양한 분야에서 이론을 다듬고 확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더 읽을거리>

멩거의 『국민경제학의 기본원리』(Principles of Economics)는 오스트리아학파를 형성한 기초가 되었을 뿐 아니라, 뵘바베르크, 미제스, 하이에크 등 위대한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자들의 영감의 샘이 되었던 책이다. 번역본(민경국.이상헌.김이석 공역, 자유기업원 간, 200x)이 있으니 읽어보기 바란다.

미제스의 『인간행동』(Human Action)(민경국 박종운 공역)은 오스트리아학파의 경제학이 주류경제학과 어떤 점에서 같고 또 다른 것인지를 알게 해 주는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에 대한 좋은 입문서 역할을 한다. 미제스 경제학의 전반적 체계를 더 쉽게 안내한 서적인 『루드비히 폰 미제스』(이문 버틀러 저, 김이석 역, 자유기업원 자유주의시리즈, 발행연도))를 먼저 읽고 난 후, 이 책을 읽으면 좋을 것이다. 미제스의 위의 책을 현

대의 경제학원론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서술하면서도 독점 문제, 카르텔 문제, 세금 등의 문제를 새롭게 해석하고 제시한 로스버드의 『인간·경제·국가』(Man, Economy, and State)(전용덕 김이석 공역)도 경제원론에 익숙한 독자들에게 좋은 안내서가 될 것이다.

하이에크가 저술한 다음 3편의 논문은 하이에크의 경쟁과 지식의 관점,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잘 작동할 수 없는 이유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므로 반드시 읽기를 권한다. 각 개인들에게 흩어져 있는 정보(지식)를 활용하는 시장의 기능에 대해서는 “사회에서의 지식의 활용”(The Use of Knowledge in Society), 교과서의 완전경쟁개념과는 다른 경쟁의 의미에 대해서는 “경쟁의 의미”(The Meaning of Competition) 두 편의 논문을 보라. 발견과정으로서의 경쟁, 무시간적으로 경쟁을 다루는 데 따른 문제에 대해서는 “발견과정으로서의 경쟁”(Competition as a Discovery Procedure)을 읽어보기를 권한다.

하이에크가 정보의 암묵적 성격(tacit dimension of knowledge)으로 인하여 중앙계획당국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없는 한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데 반해, 스티글리츠(J. Stiglitz)는 *Wither Socialism?*에서 남이 생산한 정보에 무임승차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정보가 과소 생산되는 시장실패가 일어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이에크의 저술들을 읽고 난 후, 스티글리츠의 위의 글을 대조하면서 생각해 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이다.

하이에크의 주요 논문 중 대부분은 『개인주의와 경제질서』(서병훈 역)에 번역되어 있으며, (그 외 『사회주의나 자본주의나』(민경국 역)도 참고), 민경국의 『시장경제의 법과 질서』(자유기업원, 1997)에는 하이에크가 강조한 개별 경제주체의 인지적 한계 문제를 자세히 다루고 있어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

오스트리아학파의 거시경제이론의 최근의 발달에 대해서는 오드리스콜(Gerald O'Driscoll, *Economics as a Coordination Problem*, 1977), 개리슨(Roger Garrison, *Time and Money*, 2000), 르윈(Peter Lewin, *Capital in Disequilibrium*, 1998), 호르위츠(Steve Horwitz, *Microfoundation and Macroeconomics*, 2000) 등의 저작을 참고하면 될 것이다. 하이에크의 정부의 화폐공급 발행 독점권에 대한 반론은 그의 *Denationalization of Money*, 1976에 제시되어 있으며, 화이트(Lawrence White)의 *Free Banking in Britain*, (1984), *The Theory of Monetary Institutions* (1999, Blackwell) 등의 연구가 하이에크의 자유은행제도에 대한 관점을 계승한 연구들이다. 로스바드의 『정부는 우리 화폐에 무슨 일을 해왔는가』(What Has Government Done to Our Money?)(전용덕 역)은 화폐제도의 역사적 변천을 한 눈에 알 수 있게 해주는 좋은 안내서이고, 홀스먼의 *Ethics of Money Production*도 화폐문제를 다룬 훌륭한 최근의 책이다. 이러한 책들을 읽으면, 멩거, 미제스, 하이에크, 로스바드로 이어져온 상품화폐제도가 지닌 장점과 반대로 현대의 불환지폐제도와 부분지급지불준비제도가 지닌 문제들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Boettke, Peter, "Where Did Economics Go Wrong?", *Critical Review* 11 no. 1

(Winter 1997).

- Boettke, Peter, *The Political Economy of Soviet Socialism: The Formative Years, 1918-1928*, Boston, Kluwer Academic Publishers, 1993.
- Boettke, Peter, *Why Perestroika Failed: The Politics and Economics of Socialist Transformation*, London, Routledge, 1993.
- Cowan and Rizzo, "The Genetic-Causal Tradition and Modern Economic Theory," *Kyklos*, vol. 49, 1996, pp. 273-317.
- Garrison, Roger, *Time and Money*, New York, Routledge, 2000.
- Harper, David, "New Approach to Modeling Endogenous Learning Processes in Economic Theory," in Peter Boettke and Mario Rizzo (eds) *Advances in Austrian Economics*, Vol. 1, Greenwich, CT: JAI Press, 1994.
- Harper, David, *Entrepreneurship and the Market Process: An Inquiry into the Growth of Knowledge*.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96.
- Hayek, *Individualism and Economic Order*, Chicago, Chicago University Press, 1948.
- Hayek, *The Denationalization of Money*, London, Institute for Economic Affairs, 1976.
- Hayek, "Economic Thought VI: The Austrian School of Economics,"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s*. New York: Mcmillan, 1968.
- Horwitz, Steven, *Microfoundations and Macroeconomics*. New York: Routledge, 2000.
- Kim, Yisok, *The Obviation of the Coordination Problem in a Changing World*, 1998. New York University Ph.D. Dissertation.
- Kirzner, Israel, *An Essay on Capital*, New York: Augustus M. Kelley, 1966.
- Kirzner, Israel, *Competition and Entrepreneurship*,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3.
- Kirzner, Israel, "The Austrian School of Economics," *New Palgrave Dictionary of Economics*, New York: Macmillan, 1986.
- Kirzner, Israel, "The Socialist Calculation Debate: Lessons for Austrians," *Review of Austrian Economics*, Vol. 2, pp. 1-18, 1987.
- Lachmann, Ludwig, *Capital and Its Structure*, Kansas City: Sheed and McMeel, 1956.
- Lachmann, Ludwig, *Capital, Expectation, and the Market Process*, Kansas City: Sheed and McMeel, 1977.
- Lavoie, Don, *Rivalry and Central Planning: The Socialist Calculation Debate Reconsidere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5.
- Lewin, Peter, *Capital and Disequilibrium*, New York: Routledge, 1998.
- Machlup, Fritz, "Austrian Economics," *Encyclopedia of Economics*, New York: McGraw-Hill, 1982.

- Mahoney, Paul, "The Common Law and Economic Growth: Hayek Might Be Right," *Journal of Legal Studies*, 30(2) June, pp. 503-525.
- Mises, Ludwig, *Epistemological Problems in Economics*,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1981.
- Mises, Ludwig, *Human Action: A Treatise on Economics*, Henry Regnery, 1966.
- O'Driscoll, Gerald, *Economics as a Coordination Problem*, Kansas City: Sheed and McMeel, 1977.
- O'Driscoll, Gerald and Mario Rizzo, *The Economics of Time and Ignorance*, Oxford: Basil Blackwell, 1985.
- Rizzo, Mario, "Law amid Flux: The Economics of Negligence and Strict Liability in Tort," *Journal of Legal Studies*, 1980.
- Rizzo, Mario, "Rules versus Cost-Benefit Analysis in the Common Law," *Cato Journal* vol. 4, 1985.
- Rizzo, Mario, "Uncertainty, Subjectivity, and the Economic Analysis of Law," in Mario Rizzo (ed.) *Time, Uncertainty, and Disequilibrium: Exploration of Austrian Themes*, Lexington, 1979.
- Rothbard, Murry, *Man, Economy, and State*, 2 volumes, Princeton: Van Nostrand, 1962.
- White, Lawrence, *Free Banking in Britai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4.
- White, Lawrence and George Selgin, "How Would the Invisible Hand Handle Money?,"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32(4), pp. 1718-1749.
- Vaughn, Karen, *Austrian Economics in America*,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 Saute, Frederic, *An Entrepreneurial Theory of the Firm*, Routledge, 2000.
- Kim, Yisok, "The Obviation of the Coordination Problem in a Changing World," New York University Ph.D. Thesis, 1998.
- 김이석, "커츠너의 세계: 이윤동기가 불붙이는 기업가정신과 시장과정" 에머지 2002.12.
- 민경국, 『시장경제의 법과 질서: 질서경제학과 주류경제학』, 자유기업원, 1997.

<윤상호 박사의 글과 관련된 요지>

○ 확률 문제: 인간의 무지의 종류(미제스):

- 주사위 던지기 대 두 축구팀의 역사 알기

○ 커즈너의 sheer ignorance 개념:

- 모든 이윤기회의 발견이 의식적 계산에 의한 인간의 노력을 비롯한 자원 투입의 결과인가?
- 누구도 줍지 않은 길바닥에 떨어진 100달러 지폐는 있을 수 없는 일?

○ 불확실성과 확률

- 보험과 확률: 보험으로 커버할 수 있는 위험과 그렇게 할 수 없는 불확실성

가설-예측과 다른 인간들의 의도를 이해하는 인간(서울역 9시-6시 가설)

○ Stigler 방법론은 가장 만년에

- 실제 연구를 충분히 해보지 않은 채 방법론에만 빠질 때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는 받아들일 만함.
- 그러나 과연 방법론에 대한 고민이 없어도 되나?
역사학파의 오류(이론이 빠진 역사기록의 오류)
- money debasement, 투기자 처벌의 기록: 투기자들의 문제라고 결론을 내리면 오류: 통화이론이 있었다라면 빠지지 않았을 오류
- 지금 상당수의 실증 계량분석이 빠져 있는 오류

○ 매우 엄밀한 조건들 아래 설명을 해나가다가 갑자기 그런 조건들이 맞지 않는 무수한 상황에 그대로 적용:

- 기수적 효용, 서수적 효용 (expected utility, 니아르코)

○ subjective nature of costs:

- 진정한 비용은 opportunity cost: 가보지 않은 길이 나에게 주었을 것으로 예상하는 효용들 가운데 가장 큰 것

○ 정말 일반균형의 해(균형 가격들과 수량들)가 존재한다는 증명이 시장이 중앙통제장치가 없이도 잘 작동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일까?

- false trade(Walras); Joan Robinson, 일반균형에서 한 번 벗어나면 전혀 돌아올 수 없다.

시카고학파의 경제학²¹⁾

1997. 12

박 기 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

전 한국노동경제학회 회장

1. 序 論

필자가 1982년 시카고대학 대학원 경제학과에 입학할 때 아놀드 하버거 (Arnold C. Harberger)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사람들이 시카고대학은 이데올로기(ideology)를 가르친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러한 것을 전혀 가르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 시카고대학은 무엇을 가르치는가? 나아가서 시카고학파는 어떻게 구별되는가? 본고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 필자 나름대로의 답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시카고학파 경제분석의 특징으로 근본적인 분석, 市場清算 均衡, 最適化, 合理的 期待 假說, 價格理論 등을 제시한다. 제3장에서는 1930년대, 1940년대, 1950년대를 거치면서 시카고학파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보여준다. 제4장과 제5장에서는 현재 시카고학파의 대표적인 두 학자인 게리 베커 (Gary S. Becker)와 로버트 루카스 (Robert E. Lucas, Jr)의 학문세계를 개관함으로써 시카고학파의 진수를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현재의 주류경제학자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시카고학파의 방법론에 동의하고 있으며 따라서 시카고학파의 독특성 (uniqueness)이 많이 감소했음을 지적한다.

2. 시카고學派의 特徵

일반인들에게 시카고학파는 밀튼 프리드만 (Milton Friedman)의 독특한 주장들로 알려져 있다. 모든 복지프로그램 대신에 負의 소득세 (negative income tax)를 신설하여 사회의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고, 비경쟁적인 공립학교를 운영하는 대신에 교육소비자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 줄 수 있도록 정부가 사립학교를 보조하고 (substitution of publicly subsidized private schools for public schools), 강제적인 사회보장제도 대신에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제도를 자발적으로 만들고 (making participation in social security voluntary), 의사들의 독점적 지대를 없애기 위해 의사면허제도를 폐지하고 (abolishing licensure for doctors), 징병제 대신 지원제 (volunteer army in lieu of the draft)를 실시하는 것 등이 대표적인 예들이다 (Reder 1982). 이러한 주장들은 가격기구의 최대한 활용과 정부 역할의 최소화로 요약될 수 있다.

21) 본고는 朴基性(1997)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은 시카고학파의 경제분석의 결과이지 시카고학파를 구별지우는 본질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 없다. 시카고학파는 매우 근본적인 경제적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답을 추구한다. 모형 내에서 가능한 한 모든 변수들을 설명하려고 노력한다. 즉, 모형 외부에서 주어지는 외생변수의 수를 최소화한다. 시카고학파의 경제학자들이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市場清算 均衡 (market clearing equilibrium)을 가정하는 것을 적절한 근사 가정 (good approximation assumption)으로 볼 수도 있으나 (Reder 1982), 근본적인 경제분석을 위한 가정으로 볼 수 있다. 분석대상에 따라 均衡의 개념을 달리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市場清算 均衡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현상을 설명하려고 한다. 不完全競爭市場 (imperfectly competitive markets) 또는 分斷市場 (segmented markets)의 모형을 구성하는 경우도 不完全競爭市場 또는 分斷市場이 처음부터 가정되는 것이 아니라 왜 不完全競爭市場 또는 分斷市場이 되는지를 모형 내에서 충분한 설득력을 가지고 보여주어야 한다. 따라서 市場清算 이외의 均衡이나 不均衡 (disequilibrium) 모형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시카고학파의 경제학자들은 경제주체들이 주어진 상황에서 모든 면에 걸쳐 最適化 (optimization)를 한다고 본다. 재화와 용역의 생산, 거래, 소비 뿐만 아니라 정보의 취득 및 이용에서도 最適化를 한다. 合理的 期待 假說 (rational expectations hypothesis)이란 경제주체들이 주어진 정보를 최대한 활용해서 最適化를 한다는 것이다.

거시경제학 (macroeconomics)은 존 케인즈 (John M. Keynes)의 『고용, 이자, 및 통화에 관한 일반이론』(*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부터 시작되었다. 그는 기존의 경제이론을 무시하고 소비성향 (the propensity to consume), 명목임금의 경직성 (rigid money-wages), 등을 가정하여 국민소득의 결정 모형을 제시하였다. 기존의 경제이론은 價格理論 (the price theory)으로 대표되는데, 경제주체들의 最適化에 기초한 이론이었다. 이 이론과 달리 케인즈와 그를 추종하는 케인지언들 (Keynesians)은 총합 변수들 (aggregate variables) 간의 관계를 가정하여 총합 변수 간의 관계에 대한 이론을 전개했기 때문에 이들의 경제학을 거시경제학이라고 그리고 價格理論을 미시경제학 (microeconomics)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그러나 시카고학파의 경제학은 사실상 價格理論이다 (Valdes 1995). 이 價格理論으로 미시경제현상 뿐만 아니라 거시경제현상을 일관되게 설명한다. 더욱이 사회학적, 정치학적, 교육학적, 법학적 문제 등 비경제학적 문제라고 간주되었던 것들에 대해서도 價格理論을 적용하여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처방을 제시하고 있다. 시카고대학 경제학과와 공식 강좌명에는 거시경제학과 미시경제학이 없으며 그 대신 화폐금융론과 價格理論이 있다.

3. 시카고學派의 形成¹⁾

제2차세계대전 전의 시카고대학에는 지금의 시카고학파에 속하는 경제학자들 뿐만 아니라 여러 부류의 경제학자들이 있었다. 1930년대 말경에 있었던 프랭크 나이트 (Frank Knight), 제이콥 바이너 Jacob Viner), 헨리 사이몬스 (Henry Simons), 및 로이드 민츠 (Lloyd Mints)는 밀튼 프리드만, 조지 스티글러 (George Stigler), 게리 베커, 로버트

1) Reder (1982)를 기초로 하였다.

루카스의 선구자들로 생각될 수 있다. 두번째 부류로는 그 당시의 다른 대학과 유사하게 제도학과 경제학자인 존 네프 (John U. Nef), 체스터 라이트 (Chester Wright), 시미언 릴란드 (Simeon Leland), 밀리스 (H. A. Millis)가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동료 교수들의 이론이나 이념에 거의 영향을 주지 못했고 관심도 없었다. 세번째 부류로는 초기 계량경제학자들인 폴 더글라스 (Paul Douglas), 헨리 숄츠 (Henry Schultz), 오스카 랑에 (Oscar Lange)가 있었다. 이들은 그 수가 작았지만 시카고경제학의 발전에 매우 큰 영향을 주었다.

나이트와 그의 제자인 사이몬스가 부임하기 전까지 시카고대학 출신의 경제학 박사들을 다른 경제학자들로부터 구별짓는 특징은 거의 없었다. 나이트는 매우 깊은 통찰력을 가진 경제학자였으나 수리 및 계량경제학에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다. 헨리 숄츠는 그 당시 막 발전하기 시작한 수리 및 계량경제학적 기법을 학생들에게 소개하려고 노력했으나 나이트의 강한 반대에 부딪치게 되었다. 나이트의 제자들은 나이트를 다양하게 회고하고 있다. 리더는 賢人과 神의 使者 (a sage and an oracle)로, 파틴킨는 점잖은 批評者 (a gentle cynic)로, 스티글러는 聖人の 범주에 속하는 學者 (an intellectual approaching the category of a near saint of scholarship)로 서술하고 있다 (Valdes 1995). 나이트는 학생들에게 개인적 자유 (individual freedom)를 최고의 가치로 강조했으며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합리성에 대한 열정 (an irrational passion for dispassionate rationality)을 요구했다. 그러나 그는 경제학에 근거한 정책 처방에 회의론을 가지고 있었다.

사이몬스는 價格理論과 재정학을 가르쳤다. 스티글러에 의하면 그는 시카고학과 경제학이라는 이론적 왕국의 황태자였다. 그는 1934년에 출간된 소책자 (*A Positive Program for Laissez Faire*)에서 민간 경쟁시장에 의한 생산과 소비 그리고 매우 제한적인 정부의 역할이라는 관점에서 많은 정책들을 제시했다 (Stigler 1988). 나이트와 사이몬스는 밀튼 프리드만과 로즈 디렉터 프리드만 (Rose Director Friedman), 조지 스티글러, 알렌 왈리스 (Allen Wallis), 아론 디렉터 (Aaron Director) 등의 매우 독특한 제자들을 갖게 되었다. 이들은 개인적 애정과 상호 존중 속에서 학문적으로 협력하는 하나의 집단을 형성하게 되었다.

제2차세계대전을 전후하여 시카고대학 경제학과는 많은 변화를 겪게 된다. 1938년 헨리 숄츠가 죽고 랑에가 조교수가 되었으며, 1939년 더글라스가 정계에 진출하여 학계를 떠났고 코울스 위원회 (Cowles Commission)가 들어왔다. 전쟁이 끝나면서 바이너는 프린스턴으로 랑에는 폴란드의 정계로 떠났고 사이몬스는 죽었다. 전쟁 중에 티 숄츠 (T. W. Schultz)가 부임해와서 곧 학과장이 되었고 1946년 프리드만이 경제학과에 그리고 왈리스가 경영대학원에 부임해왔다.

프리드만이 시카고대학에 대학원생으로 온 것은 1932년이였다. 그는 헨리 숄츠에게 통계학을 그리고 나이트, 사이몬스, 바이너에게 정치경제학을 들었다. 시카고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1933년), 컬럼비아로 가서 헤롤드 호텔링 (Harold Hotelling) 밑에서 수리통계학과 수리경제학을, 제임스 엔젤 (James Angell) 밑에서 사상사를, 웨슬리 미첼 (Wesley Mitchell) 밑에서 경기변동론을 연구했다. 1937년에서 1940년 동안 미첼의 엔비이알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에서 경험적 연구 (empirical work)를 발전시켰다. 시카고에 돌아온 그는 철학과의 루돌프 카날 (Rudolf Carnap)과 프레드

릭 하이에크 (Frederick Hayek)를 만났고 칼 포퍼 (Karl Popper)와 가까운 접촉을 가졌다 (Frazer and Boland 1983). 프리드만은 나이트, 사이몬스로 이어지는 철학과 아이디어들을 정교한 價格理論과 결합하여 독특한 분석과 주장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1958년 스티글러가 시카고대학의 경영대학원과 경제학과의 석좌교수로 부임해오면서 시카고학파의 중요한 세 인물 (프리드만, 스티글러, 왈리스)이 시카고에 모이게 되었다. 스티글러도 위에서 서술한 시카고학파의 철학과 방법론에 따라 분석을 하지만 1940년대 중반 이후 프리드만과 다른 지적 발전을 보인다. 프리드만은 정치적 실행 가능성 (political practicability)을 무시하고 경제학적으로 견고한 정책을 제시한다. 경제학자의 의무는 가장 좋은 충고를 주는 것이고 이 충고를 받아들이는지의 여부는 정치과정의 영역으로 간주한다. 이에 반해 스티글러는 산업조직론의 다양한 주제를 연구하면서 왜 경제학적으로 견고한 충고가 정책결정자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가도 연구영역에 포함하게 된다. 즉, 그는 정책결정자를 정치-경제과정 속에서 자기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내생적 참여자로 보고 분석한다. 예를 들어 정책결정자의 관심은 오직 정치적 지지를 얻고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학자가 추천하는 정책을 취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점도 고려하여 정책적 충고를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다. 프리드만이 改革家라면 스티글러는 바로 이러한 면에서 規範的 判斷을 실제적으로 배제한 實證經濟學者이다.

코울스 위원회가 시카고대학에 들어온 후 나이트 및 그의 제자들과 이 위원회 및 그 지지자들 사이에 연구방법론, 정치적 이념, 교수 채용 등을 둘러싸고 꽤 심한 싸움이 계속되었다. 이 싸움은 결국 1953년 이 위원회가 예일로 떠남으로써 끝나게 되었는데 이 두 집단 사이의 역감정은 그후에도 정도는 줄었지만 지속되었다.

4. 게리 베커²⁾

게리 베커는 사회과학 전반에 걸쳐 크나 큰 업적을 가지고 있다. 베커 이전까지 경제학의 전통적인 분석 대상은 재화와 용역을 생산해서 소비하는 경제행위 특히 시장행위 (market behavior)였다. 베커는 경제행위 뿐만 아니라 다방면의 인간행위들 특히 인간 사이의 상호작용과 비시장행위 (non-market behavior)에까지 경제학적 분석을 시도하여 새로운 이론들을 제시했다 (Becker 1976). 교육, 가정, 출산, 결혼과 이혼, 인종차별, 범죄, 압력집단, 마약중독 등 다방면의 인간행위들에 비용과 편익이라는 인센티브를 근간으로 하는 경제학적 분석을 적용하여, 과거에는 습관적이거나 非合理的이라고 생각되었던 인간행위들이 合理的인 選擇의 결과라는 것을 명쾌하게 보였다.

그는 시카고대학 대학원 경제학과 2학년 때인 1952년 미국경제학회지와 이코노미카에 발표한 논문들을 시작으로 40여년간 10권의 저서와 50여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그의 박사학위 논문은 『差別의 經濟學』(*The Economics of Discrimination*)으로 1957년 시카고대학에서 책으로 출간되었다. 이 저서에서 그는 미국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인 인종차별을 경제학적으로 분석하였다. 백인이 흑인에 대해 가지는 인종차별감을 일종의 기호 (taste)로 개념화하여 효용함수에 집어넣음으로써 경제학적 분석방법을 적용할 수 있었다. 그의 분석에 의하면 경쟁시장에서는 차별감이 가장 작은 기업이 가장 싸게 제품을

2) 朴基性(1992)을 기초로 하였다.

생산하게 되므로 인종차별이 최소화되나, 독점시장에서는 경쟁기업이 없기 때문에 독점기업의 인종차별을 제어할 수 없다. 즉, 시장이 경쟁적일수록 인종차별의 정도가 낮아진다.

이 분석은 한국의 지역감정문제에 적용될 수 있다. 기업가의 타지역 출신에 대한 차별감을 일종의 기호로 개념화할 수 있다. 주관적 지역차별의 정도가 같다 하더라도 산업구조가 경쟁적이나 독점적이나에 따라 노동시장에서 실현되는 지역차별의 정도가 다르다. 경쟁 산업에서는 어떤 기업가가 지역차별을 많이 하고 싶어도 그렇게 하면 이윤이 감소하여 산업에서 도태되므로 그 산업에서 가장 적게 지역차별을 하는 기업가 만큼만 하게 된다. 그러나 독점 산업의 기업가는 지역차별로 인한 손실을 그가 감내할 수 있는 한 하고 싶은 만큼 지역차별을 한다. 지역차별이라는 기호를 충족하기 위해 기업가는 특정 지역 출신의 생산성이 높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다른 지역 출신의 생산성이 낮은 근로자를 고용함으로써 야기되는 이윤 감소라는 비용을 지불한다. 경쟁 산업에서는 어떤 기업가가 최소한의 지역차별을 초과하는 경우 제품 생산의 평균비용이 상승하여 정상 이윤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폐업해야 한다. 독점 산업의 기업가는 독점 이윤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가 원하는 만큼 지역차별을 하여 제품 생산의 평균비용이 상승하고 이윤이 감소하지만 폐업하지 않는다. 경쟁 산업에서는 어떤 기업가가 최소한을 초과하는 지역차별을 하게 되면 그 댓가로 폐업하게 되므로 최소한의 지역차별만이 실현된다. 그러나 독점 산업에서는 기업가가 원하는 만큼 지역차별을 해도 그 댓가로 독점 이윤의 일부만 없어지면 되기 때문에 심한 지역차별이 실현된다. 필자의 연구에 의하면 이 주장은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에 부합된다(朴基性 1990). 일반적으로 독점 산업의 폐해는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합이 경쟁 산업의 그것보다 작다는 것이지만, 이외에도 위의 주장에 의하면 독점 산업은 한국의 경우 지역차별을 심화시키는 폐해가 있을 수 있다. 이것은 또한 경쟁을 제한하는 산업정책이 지역차별을 심화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의 대표적인 저서는 1964년에 출판된 『人的資本』(*Human Capital: A Theoretical and Empirical Analysis, with Special Reference to Education*)이다. 그의 기본적인 생각은 개인이 받는 교육과 훈련도 기업이 새로운 설비투자를 하는 것과 같은 투자라는 것이다. 즉, 개인의 생산능력을 人的資本이라고 하면 교육과 훈련은 생산능력 향상을 위한 투자가 된다. 이러한 이론으로 학력간 임금격차 및 연령증가에 따른 임금상승등 노동시장의 많은 현상들을 설명하였으며 人的資本에 입각한 경제성장론의 기초를 제공하였다. 부존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에서는 이 이론을 이용하여 유일한 자원인 인력자원의 개발 및 활용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모색할 수 있으며, 미시적으로는 기업의 인력개발과 활용 방안을 찾을 수 있다.

1971년 출간된 『經濟理論』(*Economic Theory*)은 미국대학 대학원 미시강좌의 기본교재중의 하나이다. 이 책 서문에서 그는 미시경제에 적용되는 이론과 거시경제에 적용되는 이론이 다를 수 없기 때문에 서명을 『經濟理論』이라고 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시카고대학 경제학과의 전통적인 견해이다. 통화론자로 잘 알려진 밀튼 프리드만이 게리 베커가 가르치고 있는 價格理論을 가르쳤으며, 合理的 期待 假說을 창시한 로버트 루카스가 거시경제이론의 미시적 기초를 강조한다는 점 등에서도 이 전통적인 견해를 확인할 수 있다.

베커의 가정에 대한 연구는 1981년에 출간되어 1991년에 증보판이 나온 『家庭에 관

한 論文』(*A Treatise on the Family*)에 집약되어 있다. 이 저서에서 그는 부모와 자식, 남편과 아내, 자식과 자식 사이 등 가족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하였다. 부모가 자식을 위한다는 것을 자식이 누리는 효용이 커질수록 부모의 효용이 증가한다고 개념화함으로써 가족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을 명확하게 분석하였다. 이 이론에 의하면 부모는 자식을 낳아 양육하는데 드는 비용과 자식으로부터 얻게 되는 효용을 고려하여 자신의 소비와 자식의 수 및 유산을 결정한다. 그리고 아무리 못된 자식 (rotten kid)이라도 부모가 살아 있는 동안은 가족 전체에 해가 되는 행동을 삼가한다.

이 이론을 생산현장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추론이 가능하다. 기업가나 관리감독자가 근로자의 부하직원을 부모가 자식을 위하듯이 위한다면, 근로자나 부하직원이 아무리 이기적이라도 작업을 게을리하지 않으며 기업이나 부서의 성과를 극대화한다. 따라서 기업가나 관리감독자에 대해 근로자나 부하직원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베커는 가정을 일종의 작은 기업으로 간주하여 이론을 전개하였다. 주부의 요리 및 청소 그리고 자식양육 등 모든 가사를 家庭生産 (household production)이라고 보면, 여성의 임금이 상승함에 따라 家庭生産의 기회비용이 상승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지고 출산율이 감소하며 이혼율이 높아진다.

이 이론은 고임금과 단순인력 부족이라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큰 시사를 준다. 여성 또는 중고령자의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시장 밖에서 하고 있는 일 즉, 가사노동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어야 한다.

그는 범죄와 부정에 대해서도 경제학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주어진 자원을 가지고 범죄와 부정을 줄이기 위해서는 적절한 적발률과 형벌 그리고 부정을 막는 제도적인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 필자는 이 이론에 입각해서 부당노동행위 및 기업가의 부도 등 경제범죄에 대한 우리나라의 정책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공무원 부정을 막기 위해서는 청렴결백하라고 주문해 봐야 별 효과가 없으며 적절한 인센티브 제도가 필요하다.

최근에 그는 담배나 마약 등에 대한 중독을 경제학적으로 설명하는 이론을 제시하였다. 담배나 마약은 소비하면 할수록 그 한계효용이 증가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소비하게 되면 끊을 수 없게 된다 (Becker and Murphy 1988). 그의 이론에 의하면 건강에 해로운 줄 알면서 담배를 피우고 마약을 먹는 것도 개인의 합리적인 선택이다. 이 선택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들을 정책을 통해 변화시킴으로써 담배나 마약중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마약을 한 두 번 복용하면 계속 복용하고자 하는 강한 욕구가 생긴다. 담배도 몇 번 피우다 보면 자꾸 피우고 싶어진다. 이러한 중독(addiction) 현상을 경제학적으로는 어떻게 설명할까? 시간이 지날수록 이러한 재화에 대한 욕구가 커지는가? 그렇다면 이것은 효용함수가 변하지 않는다는 경제학의 기본 가정과 어긋나는가? 이러한 재화는 지금까지 소비한 양이 현재의 효용함수에 영향을 준다. 지금까지 한번도 소비한 적이 없으면 그 재화에 대한 소비 욕구는 매우 작지만 지금까지 소비한 양이 많을수록 소비 욕구는 커지게 된다. 현재의 효용함수는 과거의 소비에 영향을 받아 변하지만 이 관계를 고려한 총효용함수(extended utility function)는 변하지 않는다(Becker 1996). 마약이나 담배는 지금까지 많이 소비하면 할수록 현재 그 재화를 소비함으로써 얻게 되는 한계효용이 커져 더 많이 소비하고자 하고 이 과정은 반복되면서 정도가 심해진다.

미국에서는 酒類의 제조, 운송, 판매가 금지된 기간(1920년-1933년)이 있었다. 그러나 술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를 없앨 수는 없었다. 이 욕구를 합법적으로 충족할 수 없었기 때문에 범죄 조직이 주류의 제조 및 판매를 담당하게 되면서 조직 폭력 및 살인 등 무시무시한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주류 제조 및 판매에 의한 독점적 이윤을 탈취하기 위한 처절한 싸움이었다. 국민들은 비싼 가격을 지불하고 범죄 조직이 취급하는 주류를 암시장에서 구입했다. 그후 미국 정부는 금주법(Prohibition)을 폐지했다. 이것은 정부가 과도한 음주나 알콜 중독을 지지한 것이 아니라 음주를 금지하는 것에 실패했다는 시인이었다 (Becker and Becker 1997, pp. 150-152. "Should Drug Use Be Legalized?"). 합법적으로 주류를 제조할 수 있게 되면서 주류회사 간의 경쟁에 의해 양질의 주류가 싼 값에 공급되게 되었고 주류 사업을 근간으로 했던 범죄 조직은 위축되었다.

지금 미국의 최대 문제 중의 하나는 마약 문제이다. 마약의 제조, 운송, 판매는 불법이다. 그러나 범죄 조직에 의해 마약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둘러싼 무시무시한 범죄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 베커 교수는 마약을 합법화하고 적절한 소비세(excise tax)를 부과하는 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지만 선택가능한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주장한다. 물론 미성년자의 마약복용은 철저히 금지되어야 하고 마약복용 후 운전이나 마약이 업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는 철저히 색출하여 엄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한 주장이다. 그의 주장은 마약중독자도 마약의 가격이 오르면 수요를 줄이고 엄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면 업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 마약 복용을 하지 않는다는 믿음에 기초한다(Becker 1987). 즉, "사람들은 誘引에 반응한다."("People respond to incentives." Landsburg 1993, p. 1)

베커는 학문적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사회문제들에 대한 실용적인 해결방안을 비즈니스 위크 (*Business Week*)의 고정 칼럼을 통해 발표하고 있다. 1996년 10월 21일자 비즈니스 위크에서 그는 경제가 취약한 아르헨티나에서도 퇴직급여제도를 성공적으로 민영화했으므로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국들도 퇴직급여제도를 하루속히 민영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베커는 경제학자가 아닌 다른 사회과학자들이 다루었던 문제들이나 習慣的이거나 非合理的이라고 생각되었던 사회문제들을 경제학의 영역으로 끌어들여 명쾌하게 분석했다. 따라서 초기에는 많은 반발이 있었다. 1992년 10월 16일 시카고대학에서 있었던 노벨상 수상축하 리셉션에서 그는 엄청난 비판을 받았고 초기에는 출판하는 데도 어려움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 비판과 어려움을 시카고대학의 전폭적인 지원과 독특한 학문적 풍토로 극복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가 말한 시카고대학의 독특한 학문적 풍토란 學際研究가 가능한 개방된 태도이다. 이것은 그가 1983년에 시카고대학 사회학과로부터 교수의 자리를 제공받아 경제학과와 사회학과와 교수라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이 리셉션에서 시카고대학 경제학과장인 셔윈 로젠 (Sherwin Rosen)은 베커의 연구인생은 기존에 대한 도전으로 일관된 것이었는데 노벨상을 받음으로써 세계가 인정하게 되어 앞으로 방향 감각을 잃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농담을 하였다. 그는 이와 같이 엄청난 비판을 통과하였다.

5. 로버트 루카스³⁾

로버트 루카스는 合理的 期待 假說을 개발하고 응용하여 기존의 거시경제분석의 틀을 대신하는 뉴 클래식 경제학이라는 새로운 분석틀을 제공했으며 이를 통해 경제정책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켰다. 이외에도 그는 노동시장을 분석하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으며 지속적 경제성장의 가능성을 이론적으로 규명한 自生的 經濟成長理論 (endogenous growth theory)을 창시하였다.

미국 경제가 1960년대와 70년대에 직면했던 문제는 인플레이션(물가의 지속적 상승)과 景氣沈滯가 동시에 진행되는 소위 스태그플레이션이었다. 이것은 전후 세계 경제학계를 주도했던 케인지언 경제학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현상이었다. 케인지언 경제학의 핵심은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사이에 逆關係가 있다고 하는 필립스 곡선 (Phillips curve)이다. 이 필립스 곡선을 이용해서 정부가 실업률이 높아지는 경기침체시에는 인플레이션적인 정책을 펴서 경기를 부양할 수 있고, 실업률이 매우 낮아지는 경기과열시에는 디플레이션적 정책으로 경기를 진정시킬 수 있다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아무리 경기부양책을 써도 인플레이션만 가속될 뿐 경기가 좋아지지 않았다. 이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고 처방을 제공한 경제학자가 바로 로버트 루카스이었다.

사람들은 항상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해 나름대로 예측을 하면서 경제 행위를 한다. 그러나 케인지언 경제학에서는 이 점이 소홀하게 취급되었다. 구체적으로, 이 경제학에서는 사람들이 오늘의 물가수준이 내일도 지속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보고 이론을 전개하여 필립스 곡선이 존재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반면에, 루카스는 사람들이 내일의 물가수준을 예측할 때 오늘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동원하여 합리적으로 예측한다고 주장하였다. 이것이 바로 合理的 期待 假說의 핵심이다. 예를 들어 오늘 통화량이 갑자기 늘어났다고 하자. 合理的 期待 假說에 의하면, 사람들은 조만간 물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기대하게 되고, 내일이 되어 자기 제품의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경제 전체의 물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에 자기 제품에 대한 실질 수요가 증대되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생산을 늘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의 逆關係, 즉 필립스 곡선은 존재하지 않는다. 통화량의 증가가 물가상승을 초래한다는 것은 경제이론이다. 사람들이 이와 같이 예측한다는 것은 경제학자들이 예측하는 정도만큼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정부가 국민들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가장 바람직한 통화정책은 정부가 경기변동에 따라 임의적으로 통화량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비율로 증가시키는 것이라는 결론을 얻음으로써 밀튼 프리드만을 위시한 시카고 학파의 주장에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루카스는 일반적으로 거시경제학자로 알려져 있으나 그의 연구영역은 거시경제학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다. 1969년에 발표된 고용에 관한 논문에서 그와 레오나드 래핑 (Leonard Rapping)은 실업에 대한 이론적·경험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근로자가 오늘의 취직여부를 결정할 때 오늘의 임금 뿐만이 아니라 미래의 예상임금도 중요하다. 미래의 임금이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 오늘의 임금이 높더라도 노동공급을 줄이고, 반면에 미래의 임금이 크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오늘의 임금이 낮더라도 노동공급을 늘인다. 이것을 異時的 代替 (intertemporal substitution)라고 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미국 실업률의 변화를 설명하였다. 이 논문은 그후 노동시장에 대한 연구의 초석이 되었다.

3) 朴基性(1995)을 기초로 하였다.

어떤 정책의 효과를 알아 볼 때 흔히 사용되는 방식이 計量模型을 이용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計量模型을 추정한 후 정책변수의 특정한 값을 대입하여 정책효과를 추정한다. 루카스는 이 방식에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정책이 바뀌면 合理的 期待를 하는 사람들의 기대가 바뀌게 되어 과거와는 전혀 다른 경제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으나, 지금까지의 통계자료를 이용해서 추정된 計量模型에서는 이 점이 고려될 수 없다. 루카스의 이러한 지적에 따라 그후 計量經濟學의 방법론이 크게 바뀌게 되었다.

화폐금융론의 본질적 질문은 왜 사람들이 이자가 붙지 않는 화폐를 보유하느냐 하는 것이다. 루카스는 화폐로만 가격을 지불해야 하는 재화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그의 통화이론을 전개하여 최적의 재정·금융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자유시장경제가 가장 바람직한 資源配分을 달성한다는 것을 여러 상황에서 설득력 있게 논증하고 있으며, 정부의 시장개입이나 정책의 임의적 변경을 반대한다.

루카스는 1980년대 초반까지 경기변동의 원인을 규명하고 바람직한 정책을 모색하는 景氣變動理論을 집중적으로 연구하였고,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經濟成長理論에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경제성장에 관한 기존의 논의는 실물자본 및 학교교육에 대한 투자 및 그 효과에 집중되어 있었다. 루카스는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신흥공업국의 경제성장에 주목하였다. 이 지역은 빈약한 부존자원과 실물자본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의 생산현장에서의 人的資本蓄積을 통하여 경제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루카스는 생산현장에서 일어나는 人的資本蓄積이 기술진보 나아가서 경제성장의 원천임을 이론적으로 밝혔다. 기존의 經濟成長理論에서는 기술진보와 같은 외부적 요인이 존재해야 지속적 경제성장이 가능하나, 그의 經濟成長理論은 외부적 요인이 없더라도 경제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의 經濟成長理論을 自生的 經濟成長理論이라고 한다. 기존의 人的資本理論이 인간의 생산능력도 투자에 의해 증대될 수 있는 실물자본과 같은 자본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는데 반해, 루카스는 人的資本蓄積이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社會的 活動임을 강조하며 바로 이 점이 人的資本蓄積과 실물자본축적을 구별짓는 차이임을 지적한다. 생산현장에서 근로자들 간에 서로 가르쳐 주고 배우는 相互作用을 통해 대부분의 人的資本이 축적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의 가장 중요한 시사점은 경제환경에 비추어 人的資本蓄積 또는 學習을 극대화하는 기업조직 및 관행 그리고 경제·사회제도 및 정책 등을 얼마만큼 갖추고 있느냐가 경제성장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루카스의 自生的 經濟成長理論은 經濟成長理論 뿐만 아니라 노동경제학, 조직학습 및 경영전략 등의 분야에도 유용한 관점을 제시해 줄 것으로 예상된다.

루카스는 개인의 경제행위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바탕으로 하여 매우 엄밀한 분석을 통해 결론에 도달한다. 그는 항상 노동시장에 대한 분석과 같은 미시경제학적 분석을 기초로 하여 거시경제적 변수들의 관계를 규명한다. 이러한 그의 연구 태도는 시카고학파의 연구 학풍을 그대로 반영한다. 시카고학파는 미시경제이론과 거시경제이론이 구별된다고 보지 않으며 효용극대화라는 기본 전제 위에 미시경제현상과 거시경제현상을 일관되게 설명하는 이론을 추구한다. 따라서 시카고대학에서는 서로 다른 분야를 연구하는 경제학 교수들 간에 相互作用이 매우 활발하다. 1987년 봄학기에는 루카스와 노동경제학을 전공하는 셔윈 로젠이 공동으로 경제성장에 관해 강의했으며 서로 상대방의 강의를

경청했다. 시카고대학에는 경제학을 경제학과의 교수들만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법과대학원, 경영대학원, 교육학과, 사회학과, 정치학과 등의 교수들도 연구하며, 타분야와의學際的 연구도 활발하다. 이들은 수많은 워크샵에 참석하여 열린 토론을 벌인다. 그리고 점심시간에는 쿼드랭글 클럽이라는 교수식당에서 식사를 같이하며 논쟁을 한다. 특히 월요일 점심시간에는 경제학과의 게리 베커가 예약해 놓은 큰 원탁테이블에 모여 경제학 토론을 하며 식사를 한다. 이 모임의 고정멤버는 게리 베커, 루카스, 셔윈 로젠, 케빈 머피 (Kevin Murphy), 로버트 토펬 (Robert Topel) 등이다.

루카스는 1937년 미국 워싱턴주 야키마에서 태어났으며, 사회문제들에 대해 가족들과 활발한 토론을 하는 가정에서 성장했다 (Lucas 1981). 1959년 시카고대학 학부 역사학과를 졸업한 후 계속 역사학 공부를 위해 캘리포니아 주립대(버클리) 대학원으로 진학하였다. 그는 경제적인 힘이 역사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경제학 서적을 읽기 시작했으나 이해할 수가 없었다. 1년 후 그는 시카고대학으로 되돌아 와서 대학원 경제학과에 입학했다. 1963년 카아네기-멜론 대학의 조교수가 되었을 때 그의 전공은 화폐금융론과 노동경제학이었다. 카아네기-멜론 대학에서 그는 알란 멜처 (Allan Meltzer), 레오나드 래핑, 에드워드 프레스콜 (Edward Prescott) 등 유망한 경제학자들과 사귀었다. 알란 멜처와 레오나드 래핑은 그의 선배였으며 에드워드 프레스콜은 그의 논문지도 학생이었다 (Klamer 1983). 이들과의 교류를 통해 그의 연구는 더욱 발전하게 된다. 이와 같은 知的 相互作用에 대한 경험이 人的資本蓄積의 社會性を 강조하는 그의 自生的 經濟成長理論의 기초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루카스는 1975년 시카고대학 경제학과의 석좌교수로 부임하여 오늘에 이른다. 그의 부인인 낸시 스토키 (Nancy Stokey)역시 시카고대학 경제학 교수로 그와 공동연구를 많이 하고 있으며, 1989년에는 공동으로 經濟動態分析을 집대성한 저서 (*Recursive Methods in Economic Dynamics*)를 출간하였다.

6. 結 論

시카고학파 경제학의 특징은 매우 근본적인 분석을 한다는 것이다. 모형 내에서 가능한 한 모든 변수들을 설명하려고 노력한다. 즉, 모형 외부에서 주어지는 외생변수의 수를 최소화한다. 시카고학파의 경제학자들이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市場清算 均衡을 가정한 것도 근본적인 경제분석을 위한 가정으로 볼 수 있다.

시카고학파의 경제학자들은 경제주체들이 주어진 상황에서 모든 면에 걸쳐 最適化를 한다고 본다. 재화와 용역의 생산, 거래, 소비뿐만 아니라 정보의 취득 및 이용에서도 最適化를 한다. 合理的 期待 假說이란 경제주체들이 주어진 정보를 최대한 활용해서 最適化를 한다는 것이다.

시카고학파의 경제학은 사실상 價格理論이다. 이 價格理論로 미시경제현상 뿐만 아니라 거시경제현상을 일관되게 설명한다. 더욱이 사회학적, 정치학적, 교육학적, 법학적 문제 등 비경제학적 문제라고 간주되었던 것들에 대해서도 價格理論을 적용하여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처방을 제시하고 있다.

시카고학파의 특징을 이렇게 정리하면 현재의 주류경제학자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시카고학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로버트 배로 (Robert J. Barro)는 “지금은 우

리 모두가 프리드만주의자 (We're all Friedmanians now)"라고 말한다 (Barro 1998). 그러나 1960년대까지만 해도 이러한 시카고학파의 특징을 모든 주류경제학자들이 공유하고 있지 않았다. 그 후 수많은 논쟁을 거치면서 시카고학파의 방법론에 대한 공감각이 확산되었다. 이제 주류경제학자들은 이론을 구성할 때, 市場清算 均衡, 最適化, 合理的 期待 假說, 價格理論 등 시카고학파의 특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들을 이론에 집어넣지 않는다면 집어넣지 않는 충분한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끝으로, 필자는 본고가 시카고학파의 경제분석을 포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특히 시카고학파의 형성에 큰 기여를 한 그렉 루이스 (H. Gregg Lewis), 제임스 뷰캐넌 (James Buchanan), 로널드 코스 (Ronald Coase) 등에 대한 언급이 결여되어 있다. 이들의 기여를 포함한 좀 더 포괄적인 연구는 다음 기회로 미룬다.

參 考 文 獻

朴基性. 「地域差別의 經濟學」. 『勞動經濟論集』 13 (1990. 12): 97-114.

朴基性. 「노벨경제학賞 베커理論 분석」. 『中央經濟新聞』 (1992. 11. 2): 6.

朴基性. 「노벨경제학상 로버트 루카스 교수의 학문 세계」. 『週刊每經』 (1995. 10. 25): 34-35.

朴基性. “자유주의적 경제사상: 시카고학파의 경제학을 중심으로.” 美國學 20 (1997. 12): 309-321.

Barro, Robert J. “Milton Friedman: Being Right is the Best Revenge.” *Business Week* (July 13, 1998).

Becker, Gary S. *The Economics of Discrimination*. 2nd e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1.

Becker, Gary S. *Economic Theory*. New York: A. Knopf, 1971.

Becker, Gary S. *The Economic Approach to Human Behavior*.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6.

Becker, Gary S. *A Treatise on the Family*. enlarged ed.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91.

Becker, Gary S. *Human Capital: A Theoretical and Empirical Analysis, with Special Reference to Education*. 3rd e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1993.

Becker, Gary S. *Accounting for Taste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96.

Becker, Gary S. "A Social Security Lesson From Argentina." *Business Week* (October 21, 1996): 9.

Becker, Gary S, and Murphy, Kevin M. "A Theory of Rational Addictio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6 (August 1988): 675-700.

Becker, Gary S., and Becker, Guity Nashat. *The Economics of Life*. New York: McGraw-Hill, 1997.

Frazer, William J., Jr., and Boland, Lawrence A. "An Essay on the Foundations of Friedman's Methodology." *American Economic Review* 73 (March 1983): 133-134.

Klamer, Arjo. *Conversations with Economists*. Totowa, New Jersey: Rowman & Allanheld, 1983.

Landsburg, Steven E. *The Armchair Economist*. New York: The Free Press, 1993.

Lucas, Robert E., Jr. *Studies in Business-Cycle Theory*. Cambridge: MIT Press, 1981.

Reder, Melvin W. "Chicago Economics: Permanence and Change."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20 (March 1982): 1-38.

Stigler, George J. *Memoirs of an Unregulated Economist*. New York: Basic Books, 1988.

Stokey, Nancy L., and Lucas, Robert E., Jr. with Edward C. Prescott. *Recursive Methods in Economic Dynamic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9.

Valdes, Juan Gabriel. *Pinochet's Economist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5.

* 본고는 朴基性(1997)을 수정 · 보완한 것이다.

주류경제학의 반성과 미래

조 장 옥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한국경제학회 회장

울고 간 새와
올려 올 새의
寂寞 사이에서
-김수영 시 「冬麥」의 마지막 연-

거시경제학의 주류는 프리드먼(Milton Friedman), 루카스(Robert E. Lucas, Jr.), 프레스캣(Edward C. Prescott), 사전트(Thomas Sargent) 등을 필두로 한 고전학파계열과 케인즈(John M. Keynes)를 필두로 하여 사무엘슨(Paul A. Samuelson), 토빈(James Tobin), 모딜리아니(Franco Modigliani) 등이 주도한 케인즈학파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들 두 학파는 격렬한 대립과 논쟁을 통해 지금은 적어도 방법론에 있어서만은 서로 유사한 모형을 이용한다.

이들이 사용하는 모형은 소위 DSGE(dynamic stochastic general equilibrium)모형이다. 이는 실물경기변동이론을 개발한 키들랜드(Finn E. Kydland)와 프레스캣이 경기변동의 분석을 위해 처음 이용한 다음과 같은 간단한 모형에 기초하고 있다.

$$\begin{aligned} \max E_0 \left\{ \sum_{t=0}^{\infty} \beta^t [\ln(c_t) + \alpha \ln(1 - n_t)] \right\} \\ \text{s.t. } (1) c_t + i_t = A_t k_t^\theta n_t^{1-\theta}, 0 < \theta < 1 \\ (2) k_{t+1} = (1 - \delta)k_t + i_t, 0 < \delta < 1 \\ (3) \ln(A_t) = \rho \ln(A_{t-1}) + \epsilon_t, 0 < \rho < 1, \epsilon_t \sim i.i.d. N(0, \sigma^2) \\ (4) c_t > 0, 0 < n_t < 1 \end{aligned}$$

이 모형에서는 모든 경제주체는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있으며⁴⁾ 그들은 소비(c_t)와 노동(n_t)을 효용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선택한다. 각 기간 노동의 부존량은 1로 정규화하였다. 생산은 노동과 자본(k_t)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며 생산된 재화는 소비되거나 투자(i_t)된다. 생산에는 생산성충격(A_t)이 주어지며 생산성 충격은 $AR(1)$ 을 따른다. 이때 $\alpha, \theta, \delta, \rho$ 는 각각 여가에 대한 선호, 자본계수, 감가상각률 및 $AR(1)$ 파라미터이다.

지금 세계 거시경제학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모형들은 합리적 기대와 최적화에 바탕을 둔 이와 같은 DSGE모형의 변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위의 모형의 아름다움은 모형이 가지고 있는 정교함과 엄밀함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정교함과 엄밀함 때문에 다양하고

4) 즉 대표적 경제주체모형(representative agent model)이다.

복잡다기한 현실을 분석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국지적인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지난 30년 가까이 태평성대를 누리던 세계경제가 경제대국 미국으로부터 발생한 경제위기를 겪었고 그 후유증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그 사이 중국이 경제대국으로 부상하였고 유럽은 하나의 경제 단위로 통합되었으며 일본은 기나긴 장기불황을 겪었다. 최근 우리가 겪은 세계적인 경제위기는 1930년대에 발생한 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한 경제적인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위기가 왜 초래되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없을 수 없으며 위에서 본 모형에 기초한 주류경제학에 대한 반성 또한 거세다.

영국의 저명한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는 현재의 세계적인 경제위기에 비추어 거시경제학과 재무경제학(financial economics)에 대한 분석 기사를 실고 있다⁵⁾. 분석의 핵심은 거시경제학과 재무경제학에 어떤 오류가 있기에 지금과 같은 위기가 초래되었느냐는 물음이다.

이 기사의 모두에 고전학파 거시경제학에 대한 통렬한 비판이 소개되어 있다. 비판에 따르면 로버트 루카스(Robert E. Lucas, Jr.)와 그의 추종자들은 “거시경제학 전반에 걸쳐 근본적이고도 케케묵은 분석적인 오류를 범하였고(making ancient and basic analytical errors all over the place)”(Bradford DeLong), 로버트 배로(Robert J. Barro)는 “참으로 돌대가리 같은 주장을 하고 있으며(making truly boneheaded argument)”(Paul Krugman), 지난 30년간 미국과 영국의 대학들에서 이루어진 거시경제학 교육은 “너무나 비용이 큰 시간 낭비였다(costly waste of time)”(Willem Buiter). 나아가 한 강연에서 폴 크루그먼은 지난 30년 사이의 거시경제학은 “제일 잘 된 경우라 해도 전혀 쓸모가 없으며 잘 못 된 경우에는 틀림없이 해로운 것(spectacularly useless at best, and positively harmful at worst)”이라고 언급하였다고 한다.

사실 지난 30년은 고전학파 경제학이 이론적인 진보를 주도하였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1970년대의 합리적 기대가설(rational expectations hypothesis)과 효율시장가설(efficient-markets hypothesis)로부터 출발하여 1980년대의 실물적 경기변동이론(real business cycle theory)은 현재 경제학 연구의 중요한 패러다임으로 자리하고 있다. 그리고 합리적 기대이론과 실물적 경기변동이론이 이용하는 「불확실성 아래에서 동태적 일반균형모형(DSGE model, dynamic stochastic general equilibrium model)」은 학파에 관계없이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다. 따라서 지난 30년의 결과로 나타난 현재의 세계경제 위기가 고전학파 경제학 때문이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은 일견 당연해 보인다.

그렇다면 현재의 세계경제 위기가 고전학파 경제학의 책임일까?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리 간단한 것이 아니다. 먼저 지난 30년 동안 주류 경제학은 역시 케인즈 학파 경제학이었다고 생각된다. 비록 케인즈 학파 경제학이 1960년대와 같은 절대적인 주류

5) The Economist, "The other-worldly philosophers," July 18th-24th, 2009, pp. 58-60.
-----, "Efficiency and beyond," July 18th-24th, 2009, pp. 61-62.

의 위치에 있지는 못하다고 하여도 대부분의 경우 현실경제를 분석하는데 이용된 것은 역시 케인즈 학파 경제학이었다. 따라서 현재의 위기를 논할 때 그 책임을 일방적으로 고전학파 경제학에 떠넘기는 것은 타당한 것 같지 않다.

앞에서 언급한 이코노미스트지의 분석기사가 문제 삼는 것은 금융부문이다. 지난 30년 동안 금융시장에 관하여는 고전학파 계열의 효율시장이론과 신자유주의가 득세한 시기이다. 신자유주의에 따른 금융시장의 규제완화와 금융공학을 이용한 정체불명의 금융상품들의 등장은 금융시장의 위험이 도대체 어디에 숨어 있는지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와 같이 금융시장이 발전하고 확장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주류경제학은 금융부문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실물경기변동이론에 집착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구태의연하게도 화폐시장을 금융시장의 전부인 양 치부하였다. 경제의 현실과 주류경제학의 이론적인 전개가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금융위기가 도래한 것은 너무나 당연해 보인다.

세계경제가 지난 30년 동안 평온하였다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이론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는 불행하였음을 의미한다. 앞에서 언급한 이코노미스트지의 분석기사는 제이콥 마샬(Jacob Marschak)⁶⁾의 다음과 같은 글을 인용하고 있다.

"지진학의 발달은 주로 보다 나은 장비와 이론 때문이거나 잦은 지진 때문이라고 들었다. 그러나 우리(거시경제학)의 경우에는 지진이 거의 모든 일을 다 했다 (I hear that the progress of seismology may be due, in the main, either to better instruments and theories or to frequent earthquakes. In our case, the earthquakes did most of the job.)"⁷⁾

지금 우리는 주류경제학의 발전을 위한 큰 지진을 겪고 있다⁸⁾. 그리고 이 지진은 주류경제학의 내용을 크게 바꾸어 놓을 것이 틀림없다.

모두에 인용한 시구에서 시인 김수영은 무언가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⁹⁾. 무엇을 기다리는지는 인용한 시구의 앞에 매우 상징적으로 묘사되어 있지만 여기서 그것까지 운위할 필요는 없으리라. 다만 것처럼 우리도 과거의 주류경제학과 새로 등장할 주류경제학 사이의 적막 가운데 있다. 새 주류경제학은 아마도 금융부문을 보다 확장하고 경제주체들의 이질성을 보강한 내용일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을 해 보지만 두고 볼 일이다.

6) Marschak, J. (1945), "A Cross Section of Business Cycle Discussion," *American Economic Review* v.35, pp368-381.

7) 전개한 이코노미스트의 분석기사는 마샬이 위의 논문에서 처음 거시경제학(macroeconomics)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는 사실도 알려주고 있다.

8) 마샬의 글에서 거시경제학의 지진은 1930년대의 공황과 1940년대의 호황을 일컫고 있다.

9) 김수영 (1976), *달의 行路를 밟을지라도*, 민음사, pp66-67. 자유경제원은 김수영의 좌파적 시세계를 비판하는 심포지엄을 연 적이 있다.

2부

오스트리안 경제학의 장점과 단점

한 지붕 두 가정, 오스트리아학파와 시카고학파

김 인 철
성균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전 한국경제학회장
외국인투자 ombudsman

< 차례 >

1. 머리말
2. 오스트리아 (비엔나)학파
3. 시카고학파
4. 오스트리아-시카고 두 학파 간의 분석방법론 차이
5. 경제대공황의 원인분석: 두 학파의 대결
6. 한 지붕 두 가정, MPS 협회
7. 결론

1. 머리말

오스트리아학파와 시카고학파는 개별적으로 경제학 문헌에 비교적 많이 소개되어 있다. 그러나 두 학파의 특징을 비교한 연구는 적은 편이다. 자유주의사상과 시장자본주의를 바탕으로 하여 경제상황을 분석하고 경제문제에 대한 경제해법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두 학파 입장은 거의 동일하다. 그러나 분석방법론에 있어서 크게 다른 입장을 갖고 있으며 경제상황 특히 경기변동 상황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두 학파의 견해는 아주 다르다.

시카고학파를 대표하였으며 하이에크 (Friedrich Hayek, 1899. 5 - 1992. 3) 타계 후 MPS협회 (Mont Pelerin Society; MPS)의 좌장을 이어받은 프리드먼 교수 (Milton Friedman, 1912. 7 - 2006. 11)가 타계하기 얼마 전, 스카우젠 (Mark Skousen, 1947 -) 교수에게 오스트리아학파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이렇게 토로한 적이 있다. “오스트리아 학파 경제학이 어떤 것인가는 중요하지 않다. 다만 좋은 경제학이나 나쁜 경제학이나를 가리는 것이 중요할 뿐이다. 본인이 자주 이용하는 오스트리아 학파 경제학은 한계비용이론, 기회비용 등과 같은 전형적인 신고전학파 경제이론이다.” 스카우젠은 MPS 협회 회원이면서 두 학파의 특징을 오래 동안 연구하고 두 학파의 거리를 좁히려고 노력해온 현존하는 인물 중 한 사람이다. 그는 시카고학파 경제이론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서도 자신을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자로 분류한다.

오스트리아학파와 시카고학파 간에 차이점이 많으나 공통점도 많다. 역사적으로 오스트리아 학파가 시카고학파보다 먼저 생성되었다. 비엔나 대학의 하이에크 교수가 시카고 대학의 프리드먼 교수와 함께 1947년 4월 MPS 협회를 만든 이후 그 협회가 지금까지 존속되어 왔다. 그 동안 MPS 회원들의 구성은 오스트리아 학파 인물과 시카고학파 인물이 같이 섞여있으며 연차총회 때는 두 학파의 소속을 구별하지 않고 논문 발표와 토론을 같은 동료회원으로서 진행된다.

두 학파 간에 적지 않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학파의 학자들이 한 지붕 밑에서 70년 동안 서로 같은 동료로서 학술활동을 해 왔다. 이런 사실은 외부에서 보면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오스트리아학파와 시카고학파간의 공통점과 차이점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간략히 살펴보고 향후 두 학파 간의 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진전될 것인지 진단해 보고자 한다. 필자는 현재 MPS 회원으로서 과거 10여년 동안 두 학파에 속하는 학자들과 교류하며 연구 활동을 한 경험이 있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하여 두 학파의 학맥을 짚어 보고자 한다.

2. 오스트리아 (비엔나)학파

오스트리아 학파 또는 비엔나 학파로 불리는 학파는 현대 경기변동이론에 있어서 시카고학파와는 아주 다른 이론을 전개하고 있다. 정부의 임의적인 통화정책이 잘못된 자본재 생산을 초래하고 이로써 왜곡된 자원배분을 초래하며 따라서 경기호황과 위축을 가져온다고 주장한다.

2-A. 칼 멩거 (Carl Menger, 1840-1921)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1867-1918)은 당시 러시아 제국에 이어 유럽에서 두 번째

로 넓은 영토를 지닌 제국이었다. 오늘의 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공화국, 슬로바키아, 폴란드 일부, 우크라이나, 루마니아, 보스니아, 세르비아, 유고슬라비아, 이탈리아를 합친 거대한 제국이었다. 이곳은 서유럽과 동유럽이 만나는 교차지역이었다. 이 제국의 수도가 바로 비엔나 이었다. 1867년 이전에도 비엔나는 당시 찬란한 유럽문화의 상징이 되기도 하였다. 특히 레오폴드 1 세 통치기간 (1658-1705) 동안 비엔나는 예술, 종교, 사상의 센터이었으며 음악과 연극의 중심지로 그 위용을 자랑하였다.

1870년대에 비엔나 대학 (University of Vienna)은 유럽에서 가장 뛰어난 교육의 전당으로 인정받았다. 특히 경제학에 있어서 명성을 날렸으며 칼 멩거가 오스트리아 학파의 창시자로 불린다. 오스트리아학파는 시카고학파에 대칭되는 명칭으로서 비엔나학파라 불리기도 한다. 멩거가 오스트리아 학파의 창시자로 인정받는 이유는 그의 놀라운 업적, 즉 주관주의 원리 (the principle of subjectivism)의 주창 때문이었다.

아담 스미스와 다비드 리카도(Adam Smith, David Ricardo)에 따르면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은 생산비용이나 노동가치론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칼 멩거는 그게 아니고 소비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수요에 따라 움직인다고 하였다. 다시 말하여 모든 상품가격은 상품의 내재적 실질가치나 생산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최종 수요자의 필요성이나 욕망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였다. 재화, 서비스, 심지어 금융자산 까지도 각 상품에 내재하는 실질가치라는 것은 없다고 주장하였다.

오스트리아 학파 후세들이 특별히 지적하는 칼 멩거의 업적은 그가 경제활동에 있어서 시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는 것이다. 자동차와 같은 내구재로부터 식탁에 오르는 음식에까지의 모든 소비재는 많은 제조단계와 소비단계를 거치는데 소비재의 특징에 따라 어떤 것은 몇 달이 걸리기도 하고 몇 년이 걸리기도 한다. 이와 같이 재화와 서비스 상품이 시간구조(time structure)에 따라 시장가격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거시경제가 어떻게 작동하는 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칼 멩거가 일찍이 주장하였으며 이 것이 지금세대에 와서 오스트리아 학파의 새로운 도약을 하게하는 단초가 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Skousen)

2-B. 뵘바베르크 (Eugen Boehm-Bawerk: 1851-1914)

뵘바베르크는 칼 멩거의 학생이었다. 그는 자본, 금리, 경제성장이론 등 거시경제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 그는 1890년대에 오스트리아 재무장관을 3번이나 역임하였다. 그의 자본론 (The Positive Theory of Capital, 1889)과 성장이론이 Karl Marx의 자본가의 착취이론 (Das Kapital, 1867)을 황폐화시켰으며 현대 경제성장이론의 기초가 되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뵘바베르크는 멩거의 다단계 생산이론을 근거로 하여, 개인이나 기업이 '우회생산과정 (roundabout process)'을 거침으로써 경제성장을 실현하고 생활수준을 높여간다고 주장하였다. 그가 말하는 우회생산과정이란 현재소비의 일부를 희생하여 자본재를 더 생산하며 신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생산단계를 길게 하는 과정을 가리키는 데, 재봉틀 제조를 좋은 사례로 들고 있다. 손으로 옷 한 벌을 만드는데 이들이 걸리지만 재봉틀을 쓰면 하루에 다섯 벌 이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재봉틀을 만들려면 6개월이나 걸릴

수 있으나 일단 만들어 사용하면 생산성이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그는 경제활동에 있어 저축과 투자의 역할을 크게 강조하였다. 소비를 줄여 저축을 하면 그 돈을 가지고 신규 사업을 시작하고, 신기술을 도입하고, 자본을 축적하면 경제성장과 생활의 풍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2-C. 프리드리히 폰 위저 (Friedrich Von Wieser, 1851-1926)

위저는 뵘바베르크의 처남이다. 그는 1884년 비엔나 대학교수가 되었으며 1903년 멩거 교수에 이어 비엔나 대학 경제학과의 좌장이 되었다. 그리고 1917년 오스트리아의 상무 장관이 되었다. 이로써 멩거, 뵘바베르크, 위저 세 사람이 같은 시대에 오스트리아의 경제를 책임졌던 3인 방이었다.

위저가 저술한 사회적 경제이론 (The Theory of Social Economy, 1918)은 오스트리아에서 다년간 널리 사용되던 표준 교과서이었다. 한계효용, 한계비용, 기회비용 등이 위저가 창조한 개념이었으며 그 이후부터 신고전학파가 즐겨 쓰는 경제용어가 되었다.

2-D. 루드비히 폰 미제스 (Ludwig von Mises, 1881-1973)

미제스는 비엔나 대학에서 경제학 교수를 역임하였으며 19세기 오스트리아 경제학을 20세기로 옮겨온 경제학자로서 근대 오스트리아 학파의 아버지로 불리고 있다. 그는 저서 The Theory of Money and Credit (1912)를 통하여 주관주의 경제총론 (A comprehensive theory of subjective economics)을 주창한 오스트리아의 첫 번째 학자이다.

미제스는 사회주의에 대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였으며 공산주의 정권에 의한 경제계획에 대해서는 신랄한 비판을 퍼 부었다. 그는 저서 Socialism (1922)를 통하여 사회주의 정권은 반드시 망할 것이라고 단정하였으며 결국 그의 생각은 옳았다.

독일의 나치 정부가 오스트리아를 점령하자 미제스는 사랑하는 조국을 떠날 수밖에 없었으며 결국 1940년 미국 뉴욕에 이주하였다. 뉴욕대학 (NYU)에서 30여년을 재직하다가 1973년 타계했다. NYU에서 오스트리아 학파 경제학을 가르쳤으며 Israel Kirzner (1930-)는 미제스가 미국서 가르친 가장 뛰어난 제자로서 현존하고 있다.

2-E.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Friedrich von Hayek, 1899-1992)

하이에크는 비엔나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미제스 교수의 가장 뛰어난 제자였다. 그는 미제스가 타계한 이듬해 1974년에 노벨경제학상을 받았다. 그가 평생 동안 견지해온 경기변동이론과 “The Use of Knowledge in Society (1945)” 업적을 근거로 노벨상을 받았으며 오스트리아학파 사람으로 지금까지 노벨상을 받은 유일한 사람이다. 그가 노벨상을 받게 됨으로써 오스트리아 경제학은 다시 부활하게 되었다.

비엔나 대학의 하이에크와 시카고 대학의 프리드먼 (Milton Friedman)은 자유사상과 시장자본주의에 관한한 절대적으로 생각을 같이하는 동료이자 친구이다. 그러나 경기변

동이론에 대해서는 견해가 크게 다르며 경제대공황 (1929-1932)의 원인분석에 있어서는 견해가 정 반대이었기 때문에 말년에 거의 원수지간이 되기도 하였다.

하이에크는 저서 *Prices and Production* (1935)에서 경제공황기의 물가의 속락현상을 설명하였다. 그의 설명은 일찍이 스승인 미제스와 같이 개발한 경기변동이론인데 오스트리아학파 거시경제이론에 해당한다. 중앙은행이 통화를 증대하면 시장이자율은 인위적으로 자연이자율 이하로 내려가며 이어서 투자자들의 자본재 생산이 증가하고 (재봉틀 예) 경기가 활성화 (boom)된다. 그러나 이것은 통화가 억지로 늘어났기 때문에 경기는 지속되지 못하고 다시 경기는 원래 수준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본다. 이렇듯 하이에크는 인위적인 통화정책은 시장을 불안하게 만든다는 주장을 폈다.

2-F. 쉘페터 (Jeseph Schumpeter, 1883-1950)

1932년 비엔나를 떠난 쉘페터는 1950년 타계할 때까지 하버드 대학에서 교수직을 유지하였다. 그는 신고전학파가 전제로 하고 있는 완전경쟁, 완전한 지식을 근간으로 하는 경제모형을 거부하였다. 그대신 경제활동에 있어 주인공은 사업가 ‘entrepreneur’를 지목하였다. 자본가들은 항상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구가하며 소위 “창조적 파괴”라고 부르는 과정상의 개선을 끊임없이 추구한다고 하였다.

2-G. 무레이 로스바드 (Murray Rothbard, 1925-1995)

로스바드는 라스베이거스 대학의 교수로서 2차 대전 이후, 오스트리아 경제학을 미국에서 부흥시키는 일에 선두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의 대표적 저서는 1962년에 발간된 “*Man, Economy, and State*”인데 1000 여 쪽에 달하는 책이다. 또한 그는 1963년에 발간한 “*America's Great Depression*” 저서에서 대공황의 책임은 자유기업 자본주의가 아니라 바로 무능한 정부에 있었다고 역설하였다. 그가 오스트리아학파의 관점에서 실행한 연구업적은 프리드먼 교수가 안나 슈와르츠 (Anna Schwartz) 여사와 공동으로 연구한 “*미국의 화폐역사 (A Monetary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1867-1960)*”에 해당한다고 평을 받고 있다.

2-H. 이스라엘 커즈너 (Israel Kirzner, 1930-)

커즈너는 뉴욕대학 교수로서 오스트리아 학파에 속한다. 그는 미제스의 마지막 제자이었으며 시장조정과정과 기업가의 역할에 관하여 오스트리아학파의 이론적 틀을 만들었다. 그의 저서 “*Competition and Entrepreneurship*” (시카고대학 출판부, 1973)는 명저서로 알려져 있다.

그는 현실 시장에서 “discovery process”의 개념을 새로 개발하였다. 실제 경제상황에서는 불확실성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물건이 잘 팔리고 또 어떤 물건은 잘 안 팔리는지, 그리고 어떤 나라가 전쟁을 치르게 되고 어떤 배우가 갑자기 유명해지는가를 알게 될 때마다 놀라움을 느끼게 된다고 하였다.

3. 시카고학파 (The Chicago School of Economics)

시카고학파를 정의해본다면, 그것은 1940년 대 당시 시카고 대학의 밀턴 프리드먼 교수와 조지 스티글러 교수등이 중심이 되어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우월성을 신봉하는 학

자들이 모인 집단이라 할 수 있다. 시카고학파가 신봉하고 주장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유시장의 작동이 경제적 자원을 가장 잘 배분한다. 둘째, 정부개입은 최소화한다. 셋째, 통화주의자 (Monetarists)의 주장을 수용한다. 넷째, 통화 공급은 통화수요에 부응하여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3-A. 밀턴 프리드먼 (1912-2006)

프리드먼은 1933년 시카고 대학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받은 후 정부와 연구소 등지에서 일하다가 다시 대학원 공부를 계속하여 1946년 프린스턴 대학 (Princeton University)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마침 그해에 시카고 대학의 Jacob Viner교수가 프린스턴 대학으로 옮기게 되자 그 자리를 프리드먼이 차지함으로써 후에 시카고학파의 수장 (首長)으로 군림하게 된다.

3-B. 시카고학파 노벨교수들

그는 1976년 시카고대학 경제학교수로는 처음으로 노벨경제학상을 받았다. 프리드먼 교수에 이어 그의 동료교수인 조지 스티글러 (George Stigler), 코우스 (Ronald Coase), 티어도어 쉘츠 (Theodore W. Schultz), 게리 베커 (Gary S. Becker), 루카스 (Robert E. Lucas), 짐 헤크먼 (James Heckman) 교수, 한센 (Lars Hansen)등이 줄줄이 노벨경제학상을 받음으로써 시카고학파의 위용을 유감없이 나타내었다.

4. 오스트리아- 시카고 학파 간의 분석방법론 차이

경제현상을 분석하는 방법론에 있어서 오스트리아학파와 시카고학파 간에 명백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양 측의 방법론을 평가하는 사람의 가치기준에 따라서 평가결과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 시카고학파의 수장이던 프리드먼 자신이 직접 어떻게 평가하는지도 흥미롭다. 스카우젠(Mark Skousen)에 의하면 프리드먼의 평가는 이러하다. 경제과학을 토론하는데 있어서 시카고 경제학자들은 경제이론을 매우 진지하게 적용시키며 이를 도구로 사용하여 광대한 범위의 구체적 문제를 분석한다. 보기는 근사하나 예측능력이 거의 없는 수리모형을 분석도구로 사용하지 않는다.

오스트리아학파와 시카고학파가 분석방법에서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가를 비교하기 위하여 추가로 역사학파의 분석방법을 함께 비교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다음의 세 가지 유형의 분석방법을 같이 비교해본다. “이론은 없고 역사만 없다”와 “이론은 있으나 역사가 없다” 그리고 “이론도 있고 역사도 있다”를 차례로 짚어보기로 하자. 여기서 ‘역사’라 함은 순수경제이론과 사실관련 통계자료를 함께 포함한다.

4-A. “이론은 없고 역사만 있다” 경우

독일 역사학파는 영국의 계몽주의와 고전파 경제학을 싫어하였다. 독일의 Wilhelm Roscher와 Bruno Hildebrand 같은 역사학자들은 아담 스미스, 맬서스 (Malthus), 리

카도 (Ricardo)의 자유방임사상과 선형적이고 연역적 추리방법론을 거부하였다. 그 당시 독일 학자들은 정치, 관습, 법제도에서 분리되어있는 과학적인 경제법이라는 것은 없다고 믿었다. 오직 역사를 충분히 알아야 정치경제의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독일이 오스트리아학파의 한계이론과 신고전파 경제이론을 거부한 것은 독일이 자초한 큰 손실이었다.

4-B. "이론은 있으나 역사가 없다" 경우

이 연구 방법론은 오스트리아학파를 포함하여 고전학파의 리카도, 현대 사무엘슨 (Samuelson) 같은 학자들이었다. 20세기에 들어서서, 오스트리아의 경제학이 미국경제 학계를 지배하였다.

그러나 미제스를 비롯한 오스트리아 학자들이 역사 없이 선형적 연역추리 (deductive)에 의지하며 순수경제이론만을 극단적으로 주장함으로써 미국에서의 자신의 학문적 지위를 스스로 많이 떨어뜨렸다. 미제스가 선형적 연역추리 방법론에 집착한 이유는 그가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을 철저히 분리시켜 접근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는 사회과학을 인간행동학 (praxeology)이라고 간주하고 자연은 인간과 비인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간은 생각하고, 가치를 정하고 기회를 선택한다. 그러나 비인간은 동물과 사물로서 기계적이고 예측가능하기 때문에 인간과 확실하게 구별된다고 미제스는 믿었다. 그래서 인간의 미래행동과 미래에서 인간과의 경제적 상호작용의 결과를 예측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미래 불확실성이 인간이 논리적으로 가상하는 경제적 인과관계를 훨씬 능가하기 때문에 경제모형으로 미래경제상황을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믿었던 것이다. 미제스가 유럽이 겪었던 대공황이 일어날 것으로 사전에 인지할 수는 있었으나 그것이 정확하게 1929-33 기간에 일어날 줄은 전혀 알 수 없었다고 토로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오스트리아학파의 사상은 하이에크 때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였다. 하이에크는 1923년 뉴욕에서 1년 동안 Columbia 대학에서 가르치면서 미국생활을 경험하였고 당시 NBER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의 책임을 맡고 있던 미첼 (Wesley Mitchell)교수를 만났다. NBER의 연구시설과 업적에 감명을 받은 하이에크는 비엔나로 돌아와 미제스를 설득하여 오스트리아 경기변동연구소(Austrian Institute of Business Cycle Research)를 설립하였다.

그 후로부터 하이에크는 이 연구소를 통하여 유럽과 미국의 경제여건과 관련하여 통계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이 연구소 덕분에 세계경제의 붕괴의 시작에 관하여 중요한 실증적 연구를 할 수 있었다. 이 연구를 토대로 그는 오스트리아 경기변동이론을 정립할 수 있었다. 그 후로 오스트리아학파 학자들도 실증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시작하였으며 지금은 많은 오스트리아학파 학자들도 올바른 이론과 함께 역사적 경험과 통계의 사용을 매우 중요시 하고 있다.

4-C. "이론도 있고 역사도 있다" 경우

이 연구방법론은 시카고학파의 트레이드마크 (trade mark)이다. 시카고학파의 수장은 시카고대학의 밀턴 프리드먼이었다. 그는 연구방법에 있어서 좋은 이론과 통계적 검

증 둘 다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미제스의 二分論 법을 인정하지 않았다. 사회과학이든 자연과학이든 둘 다 통계적 검증이 필수이고 차이점이 있다면 연구주제, 분석기법, 성공비율 여하에 따라 결과가 조금씩 다를 뿐이라고 하였다. 미제스가 믿고 있는 불확실성 우위의 원리도 실증연구에 의해 증명될 수는 없다고 하였다.

프리드먼 교수의 제자이자 시카고대학 교수인 베커 (Gary Becker)에 따르면, 프리드먼은 경제이론이란 똑똑한 경제학자의 장난감이 아니라 엄중한 경제현실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도구라고 주장하였다. 그 때나 지금이나 이론 없이 통계자료를 분석하거나 실증연구 없이 이론을 개발한다는 것은 무의미한 것으로 시카고학파는 보고 있다.

5. 경제대공황의 원인분석: 두 학파의 대결

한 때는 오스트리아학파와 시카고학파는 서로 격렬한 대립관계에 있었다. 1929-1933년 대공황의 원인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두 학파는 전혀 다른 입장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참담한 희생을 당하였으며 그것이 다시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졌다는 책임론이 걸려 있었기 때문에 어느 한 쪽도 자신의 입장에서 물러설 수 없었다. 이 때문에 프리드먼은 미제스와는 말할 것도 없었으며 선배처럼 가혹처럼 좋아했던 하이에크와도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다.

하이에크가 시카고대학에 교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시카고대학 법경제학교수이던 아론 디렉터 (Aaron Director) 때문이었다. 그가 중간에 다리를 놓아 당시 시카고대학 총장 허친스 (Robert Maynard Hutchins)를 설득시켜 1950년 시카고대학에 교수로 초청하였다. 하이에크는 1931-1950 기간 동안 영국 LSE (London School of Economics) 가르치다가 시카고대학으로 와서 12년간 가르쳤다. 아론 디렉터는 프리드먼의 11살 손위 처남 이었다. 두 사람 다 1947년 MPS 창립총회에 참석하였다. 당시 프리드먼은 1946년 뉴욕 컬럼비아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시카고대학에 젊은 교수로 부임하였을 때이며 그는 스승이며 당시 시카고대학 교수인 프랑크 나이트 (Frank Knight)와 자신의 처남이자 시카고대학 법학교수인 아론 디렉터(Aaron Director)의 후광을 받고 당시 기라성 같은 세계석학들이 모였던 39인 창립총회 멤버가 될 수 있었다.

5-A. 오스트리아학파의 경기변동이론

오스트리아학파의 경기변동이론은 미제스가 초기 오스트리아 학자들의 이론과 주장들을 정리하여 만들었다. 그의 경기변동이론에서는 멩거와 뵘바베르크의 자본이론, 빅셀 (Knut Wicksell)의 자연이자율 가설, 흄-리카도의 금본위제도, 이 세 개가 축을 이루고 있다.

멩거와 뵘바베르크에 따르면, 제품을 생산하노라면 여러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자본재 생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우회생산단계를 거치는 경우도 많다. 일반적으로 통화팽창에 의한 경기부양책은 자본재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게 된다고 하였다. 통화증대는 부동산 붐을 일으켜 버블을 만들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며 R&D 산업과 채광산업을 진작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소비재와 자본재의 과잉생산은 오래가지 못하고 경기는 하강한다. 이 와중에 자본재 산업의 회복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향이 있다.

스웨덴 학자인 빅셀은 사회전체가 현재의 소비를 희생하고 미래의 소비를 위한 사회 저축을 즉 자연이자율과 기업이 사업자금을 대출시장에서 조달할 때 부담하는 시장금리를 구분하였다. 그러나 이 두 이자율은 중장기에 가서 같아지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통화당국이 통화를 더 많이 시장에 공급함으로써 시장금리를 자연이자율 이하수준으로 내릴 수는 있다고 하였다. 통화당국이 계속 이런 상태를 억지로 유지하려고 하면 인플레이가 일어나 통화정책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렇게 되면 결국 실질금리는 다시 자연이자율 이상이 되며 경기상승 (boom)에 찬물을 끼얹어 경기는 침체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흄-리카도의 가격-정화흐름(price-specie flow mechanism) 이론은 금태환이 보장된 지폐를 사용하며 무역수지 흑자 적자에 따라 금의 유출입이 되게 함으로써 가격이 조정되어 새로운 균형을 찾게 되는 메커니즘을 가리킨다. 무역수지 적자는 금의 유출을 초래하고 이것은 다시 국내 통화량을 줄이며 가격수준을 내리게 한다. 이렇게 되면 수출경쟁력이 생겨 무역흑자를 가져오고 따라서 새로운 균형이 이루어진다고 본 것이다.

미제스와 하이에크가 주장한 대공화의 원인은 이러하다. 1920년대에 들어 초기부터 약 10년 동안 미국 중앙은행은 통화를 팽창하여 화폐가치를 떨어뜨림으로써 이자율을 임의로 자연이자율 수준 이하로 낮추었으며 이로써 인플레이를 대동한 경기 붐을 일으켰다고 진단하였다. 금본위제도 하에서는 인플레이를 통한 경기상승 효과는 금방 약화되는 것인데 당시 금본위제도가 완벽하게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소 그 효과가 지연되었던 것이고 결국은 1929-1932 기간에 경제대공황을 당면하게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니까 그들은 만일 서방세계가 진정한 금본위제를 채택하였더라면 그렇게 참담한 공황을 겪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5-B. 시카고학파의 경기변동이론

시카고학파의 입장은 오스트리아학파와는 반대이다. 프리드먼이 동일기간 1920년대의 통화관련 통계자료를 Anna Schwartz 와 함께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중앙은행에 의한 통화량 증가는 없었으며 이자율 하락과 함께 초과투자에 의한 경기상승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통화확대에 따른 인플레이현상도 찾아낼 수 없었다. 오히려 1920년대 물가수준은 안정적이었다. 프리드먼의 판단으로 1930년대 경제상황에 문제가 있었다. 이때 미국 연방 준비은행은 오히려 통화량 대 수축 (Great Contraction)을 시도하였으며 그 결과 경제가 불황의 늪으로 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같은 기간 1920년대를 놓고 오스트리아학파는 통화량이 크게 불어나서 물가가 상승하고 있었다는 자료를 찾아 제시하였으나 시카고학파는 같은 기간에 통화량이 부족한 상태에 있었으며 물가는 안정되어있었고 어떤 품목들은 가격이 떨어지고 있었음을 발견하였다. 그렇다면 어느 쪽 주장이 맞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조사한 통계가 어떤 통계인가에 달려있다고 Mark Skousen은 말하고 있다. GDP 성장률, 통화증가율, 물가상승률 같은 거시경제통계는 시카고학파의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하였으며 주가지수, 부동산가격, 이윤율 같은 미시경제통계는 오스트리아학파를 지지한다고 하였다.

먼저 거시통계를 보자. 1921-1929 기간 동안 광의의 통화지표 M2는 46% 증가하였는데 이 것은 연간 통화증가율이 4%보다 조금 낮은 수치이다. 이에 비하여 GDP 증가율은 5.2% 이므로 통화가 과잉으로 풀렸다고는 할 수 없다. 오히려 물가는 deflation 압력을

받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이 기간 동안 소비자 물가는 안정세를 유지하였으며 도매물가는 하락세에 있었다.

미시 통계를 본다면 사정은 조금 달라진다. 1921-1929 기간 동안 제조업 생산은 2배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자본재 투자수익률과 기업의 이윤율도 거의 2배로 늘어났다. 주식, 채권, 부동산 등의 자산가격이 급등하여 거품이 많이 끼었다. 이런 상황에서는 오스트리아학파 사람들은 마치 물가 전체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고 느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당시 미국에 비하여 통계조사시설도 열악하고 통계전문가도 많이 없었기 때문에 철저한 통계분석이 시카고학파 보다 약할 수밖에 없었다.

6. 한 지붕 두 가정, MPS 협회

6-A. MPS 협회 (Mont Pelerin Society) 결성

1946년 케인스가 세상을 떠난 그 이듬해 1947년 4월 하이에크는 고전적 자유주의를 신봉하는 지인들을 모아 몽펠레린 협회(MPS)를 조직하였다. 첫 모임은 스위스의 관광지 몽펠레린 (Mont Pelerin)에서 있었으며 그 회의의 이름은 첫모임장소의 지명을 따서 몽펠레린 협회 (Mont Pelerin Society)라고 불리게 되었다.

이 첫 모임에 총 39명의 학자들이 모였는데 대부분은 경제학자들이고 일부는 역사학자, 철학자, 법학자, 그리고 몇 변호사들이었다. 경제학자들 중에서는 미제스, 하이에크 같은 오스트리아학파도 있었고 프리드먼, 조지 스티글러, 프랑크 나이트 등의 시카고학파도 있었다. 오스트리아 학파이지만 법학자인 포퍼 (Karl Popper)가 있었으며 시카고대학 법경제학 교수인 디렉터 (Aaron Director)도 그 모임에 참가하였다.

초기에는 미제스가 MPS회에 열심히 참가 하였으나 성격 차이로 얼마 안 되어 MPS에서 탈퇴하였다. 미제스의 제자인 커즈너(Israel Kirzner)도 미제스와 함께 모습을 감추었으며 1973년 미제스가 타계한 이 후에도 MPS 협회에 한 동안 얼굴을 내보이지 않다가 최근에 다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였으며 내년 2017년 5월 MPS 서울총회에 초청연사로 한국에 오기로 되어 있다.

6-B. MPS 회원 자격요건

그러나 프리드먼이 2006년 타계한 이후 새 회원 들이 MPS회에 꾸준히 가입해오고 있다. MPS 회원이 되는 요건은 원래 매우 까다로웠다. MPS 총회에 3번은 참석해야 입회원서를 제출할 수 있었다. 그러나 프리드먼 이후 시카고대학의 베커 (Gary Becker) 교수가 MPS의 좌장 역할을 맡은 후부터는 회원자격요건이 많이 완화되었다. 본인이 오스트리아학파 사상에 심취되어 있는 시카고학파에 심취되어있는 자유주의사상과 시장자본주의를 신봉하는 자라면 간단한 내부 심사를 거쳐 MPS 회원자격이 부여된다. 그러나 적어도 1회 이상의 MPS 총회 참석과 기존 회원 2인의 추천서가 있어야 입회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7. 결론

이 논문에서는 오스트리아학파와 시카고학파 두 학파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자유주의 사상과 시장자본주의에 있어서 두 학파는 거의 똑 같은 입장을 취한다. 마르크스(Karl Marx) 공산주의와 국가사회주의를 싫어하며 케인스(John M. Keynes)경제학을 싫어한다. 그러나 경제분석 방법론과 경기변동이론에 있어서는 첨예하게 대립하였다. 오스트리아학파의 좌장이었던 미제스와 시카고학파의 좌장이었던 프리드먼은 격렬한 논쟁을 벌이기도 하였다. 지금은 많이 완화되었으나 아직도 두 학파는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특히 경기변동이론에 있어서는 아직도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분석방법에 있어서는 오스트리아학파가 시카고학파의 방법론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다고 보아야 한다. 즉 실증연구의 중요성을 무시한 채 선험적이고 연역적 추리만이 옳은 것이라는 생각은 많이 없어졌다.

근년에 들어와 오스트리아학파 중 스카우젠(Mark Skousen)을 중심으로 하여 새로운 거시경제지표인, 총생산, GO (Gross Output)지표를 연구해왔다. 물론 기존의 GDP 지표는 여러모로 많은 거시경제 정보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으며 국가별 GDP 비교용으로 매우 유용한 지표이다. 그러나 다양하면서도 여러 생산단계에서 발생하는 기업 활동을 총체적으로 잘 나타낼 수 없는 약점이 있다. 원래 이 개념은 하이에크가 개발한 것이었으나 널리 통용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통계조사 시설과 통계기법이 발달되면서 이 개념을 실체화하여 GO 지표를 만들 수 있었다. 이에 관하여는 추후 발표기회가 오면 그때 상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어쨌든 오스트리아학파와 시카고 두 학파는 1947년 하이에크가 중심이 되어 결성한 MPS협회를 한 지붕으로 하고 지난 70년 동안 매년 총회를 개최하여 원로 교수와 노벨경제교수 등이 연구발표를 하는 등 적극적인 학술활동을 해왔다. 마침 내년 2017년 5월 7-10일 기간에 서울에서 MPS 연차총회가 열리게 된다. 경제기적을 이룬 나라로 알려져 있던 한국에서 MPS 협회 총회가 열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중대한 정책적 의미를 제공하는 큰 MPS 총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간추린 참고문헌>

- Friedman, Milton. 1962. *Capitalism and Freedom*.
----- . 1968. *A Monetary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1867-1960*,
with Anna J. Schwartz.
Hayek, Friedrich. 1929. *Monetary Theory and the Trade Cycle*.
----- . 1944. *The Road to Serfdom*.

- Mises, Ludvig. 1912. *The Theory of Money and Credit*.
----- 1929. *A Critique of Interventionism*.
----- 1969. *The Historical Setting of the Austrian School of Economics*.
Mont Pelerin Society (<http://www.montpelerin.org>), the official site.
Patinkin, Don, 1981. *Essays On and In the Chicago Tradition*, Duke University Press.
Skousen, Mark. 2005. *Vienna & Chicago, Friends or Foes?*, Capital Press.
----- 2013. *Viennese Waltz, Down Wall Street*, Laissez Faire Book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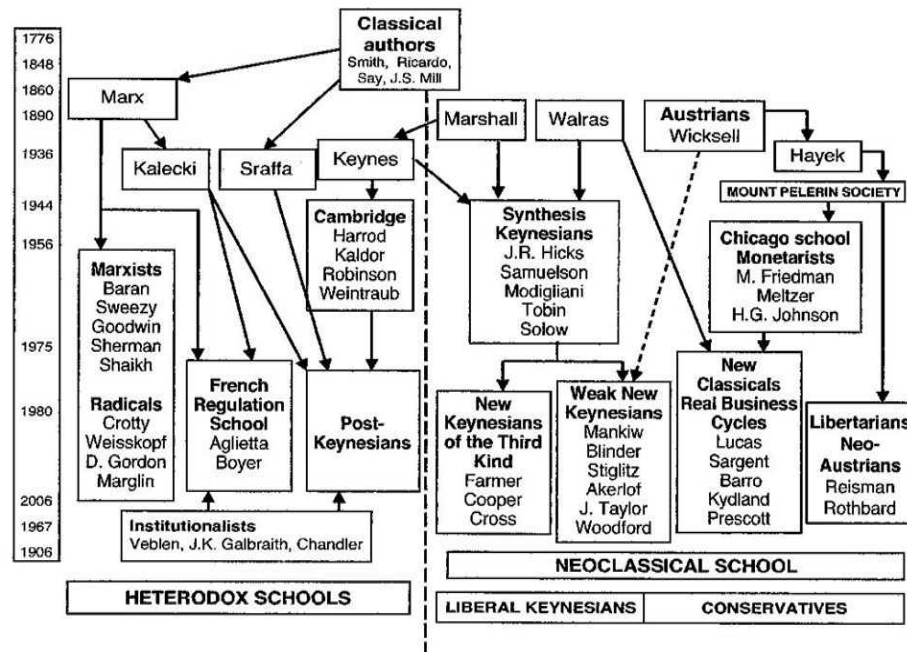
“한 지붕 두 가정, 오스트리아학파와 시카고학파” 에 대한 논평

아주대학교
김용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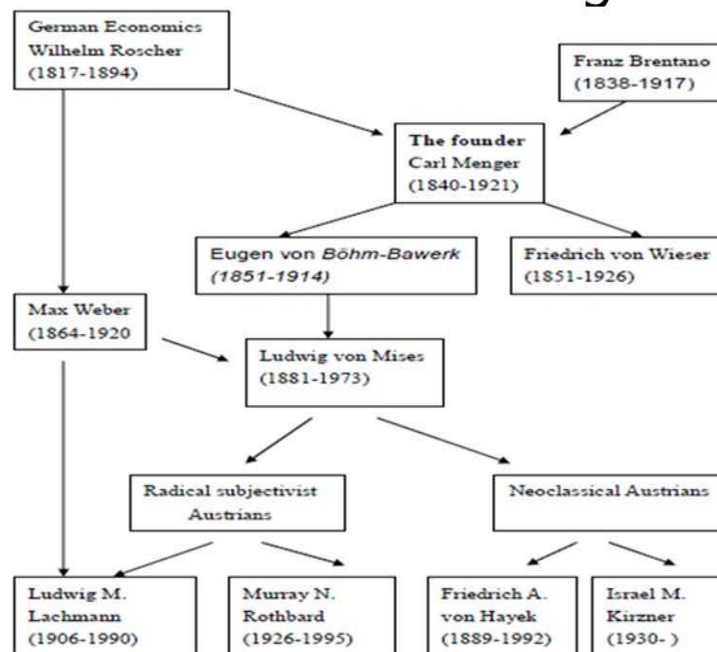
1. Summary

- 오스트리아학파와 시카고학파들의 차이를 각 학파에 속하는 대표적 학자들의 업적과 사상을 요약하여 비교하였다.
- 특히 하이에크가 1950년 이후 시카고 대학에서 12년 동안 교수직을 수행하고, MPS 활동을 시카고 교수들과 같이 하면서
- 두 학파 간의 학문적 논쟁과 교류를 통하여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많은 공통점을 갖게 되어 두 학파 간의 차이가 줄었다고 설명한다.
- 명확하게 정리 요약되어 좋은 reading이다.
- 그러나 최근 두 학파 간의 수렴이 일어난 것에 대한 구체적이며 보충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2. 여러 경제이론 체계



Austrian School Pedigree



Split among Austrian School (wikipedia)

- According to economist Bryan Caplan, by the late twentieth century, a split had developed among those who self-identify with the Austrian School.
- One group, building on the work of Hayek, follows the broad framework of mainstream neoclassical economics, including its use of mathematical models and general equilibrium, and brings a critical perspective to mainstream methodology merely influenced by the Austrian notions such as the economic calculation problem and the independent role of logical reasoning in developing economic theory.
- A second group, following Mises and Rothbard, rejects the neoclassical theories of consumer and welfare economics, dismisses empirical methods and mathematical and statistical models as inapplicable to economic science, and asserts that economic theory went entirely astray in the twentieth century; they offer the Misesian view as a radical alternative paradigm to mainstream theory.

3. Fritz Machlup's the typical views of Austrian economic thinking (1) (wikipedia)

- (1) **Methodological Individualism:** In the explanation of economic phenomena we have to go back to the actions (or inaction) of individuals; groups or "collectives" cannot act except through the actions of individual members.
- (2) **Methodological Subjectivism:** In the explanation of economic phenomena we have to go back to judgments and choices made by individuals on the basis of whatever knowledge they have or believe to have and whatever expectations they entertain regarding external developments and especially the perceived consequences of their own intended actions.

Austrian thinking (2)

- (3) **Tastes and Preferences:** Subjective valuations of goods and services determine the demand for them so that their prices are influenced by (actual and potential) consumers.
- (4) **Opportunity Costs:** The costs with which producers and other economic actors calculate reflect the alternative opportunities that must be foregone; as productive services are employed for one purpose, all alternative uses have to be sacrificed.

Austrian thinking (3)

- (5) **Marginalism:** In all economic designs, the values, costs, revenues, productivity, etc., are determined by the significance of the last unit added to or subtracted from the total.
- (6) **Time Structure of Production and Consumption:** Decisions to save reflect "time preferences" regarding consumption in the immediate, distant, or indefinite future, and investments are made in view of larger outputs expected to be obtained if more time-taking production processes are undertaken.

Misesian Austrian thinking (4)

- (7) **Consumer Sovereignty:** The influence consumers have on the effective demand for goods and services and, through the prices which result in free competitive markets, on the production plans of producers and investors, is not merely a hard fact but also an important objective, attainable only by complete avoidance of governmental interference with the markets and of restrictions on the freedom of sellers and buyers to follow their own judgment regarding quantities, qualities, and prices of products and services.

Misesian Austrian Thinking (5)

- (8) **Political Individualism:** Only when individuals are given full economic freedom will it be possible to secure political and moral freedom. Restrictions on economic freedom lead, sooner or later, to an extension of the coercive activities of the state into the political domain, undermining and eventually destroying the essential individual liberties which the capitalistic societies were able to attain in the nineteenth century.

4. Austrian and Neoclassical Economics: Any Gains from trade, by Sherwin Rosen (1982)

- Austrian economics offers a valuable perspective of the economy as an evolutionary process, akin to biological evolution, with entrepreneurial activities representing the main instruments of change.
- It's primarily a macroeconomic theory of the economy as a whole, with keen insights on the nature of decentralization and the process of competition that deserve more attention.
- Neoclassical economics offers a microeconomic theory of economic behavior that is especially useful for analyzing specific economic problems and for orienting analysis around sharply described empirical phenomena and data.

4.1. Process and Equilibrium (Rosen)

- the evolutionary theme at the heart of Austrian economics is most interesting when, in a very general sense, knowledge and information are highly decentralized, imperfect, and widely dispersed. Economic systems are seen to evolve as the amalgamation and interactions of trials and errors among economic agents.
- Entrepreneurial ventures and experiments, arbitrage activities, and survival of the fittest play crucial roles in this process. Not only do resources gradually move to their (perceived) highest valued uses, but values themselves are discovered and slowly revealed along the way.

4.2. Process and Equilibrium (Rosen) Neoclassical Case

- In marked contrast, the methods of neoclassical economics mainly are concerned with the establishment of economic equilibrium under fully known or (in Marshallian terminology) given conditions of resource availability, technology and preferences.
- In neoclassical economics, individual behavior is described as the outcome of rational choices.
- General conditions can be found for which a market equilibrium "exists" in the sense that all individual agents can independently fulfill the plans that best serve their self-interests, given the model assumptions.

Continued...

- There are serious questions of whether "disequilibrium" analysis is possible in the neoclassical scheme. In my view it isn't: consider the crucial role of the "auctioneer" and tatonnement in the Walrasian system: the postulated conditions on individual choice only hold when markets clear, at equilibrium prices. Years of analysis of "out of equilibrium" trades in that framework hardly have gotten anywhere...
- The Austrian approach is entirely different. The economy is in a perpetual state of disequilibrium: things are always changing and in a state of flux. The economy is ever evolving, creating unforeseen profit opportunities that agents are constantly trying to find and to exploit.

4.3. Coordination and Invisible Hand (Rosen)

- In the Austrian approach all the intellectual traffic goes only in one direction, from individual behavior to social order. The central planning problem cannot even be defined!
- This approach begins with the premise that there is an enormous amount of ignorance in the system. No one knows or can ever know what is being maximized overall. Decentralization is fundamental because specialization is extreme.
- Economies of scale in learning and acquiring information make it socially advantageous for people to specialize their skills and information and trade with each other....Certain kinds of ignorance are rational. The costs of knowing often exceed the benefits.

4.4. Coordination and Invisible Hand Neoclassical

- If there are enough markets to internalize all transactions (no external effects) and decreasing returns (no nonconvexities), then the welfare theorems hold that a Pareto optima allocation is achieved by a decentralized, competitive market price system

4.5. Evolutionary Processes (Rosen)

- The Austrian view is built up from the spontaneous activities of myriad expert specialists single-mindedly pursuing and performing their own component businesses, including intermediaries who buy and sell from the most economical suppliers and assemble and market the final product.
- There is no overall plan. The watchmaker is blind, but the watch happens anyway. It evolves to an ever higher state as individual specialists and assemblers act in their own self-interests to improve their products to gain a competitive edge over rivals....
- In fact, the economic history of the development of the watch clearly reveals its spontaneous and piecemeal evolution. Increasingly accurate measurement of time (measurement without theory!) was instrumental for new ways of thinking about science and led to great advancements.

4.6. Markets. Socialism and Central Planning(Rosen)

- This "market socialism" would be superior to an uncontrolled market because the central planner could make adjustments to compensate for monopoly power, costs of dislocation and unemployment
- the Austrians, led by Mises and Hayek, argued that this vision of market socialism was impossible, and that it was based on a fundamentally misguided vision of markets and prices.
- That the central planner could successfully mimic the competitive market solution by choosing the "correct" prices is true only if information and knowledge available to the center is complete and, even if that is granted, when their legal power to manipulate economic life is not tainted by self-serving actions.

4.7. Dynamic Analysis, Expectations, and the Austrian Perspective (Rosen)

- The concept of rational expectations imposes a kind of intertemporal consistency requirement on average values of future equilibria.
- It postulates that agents are sufficiently well-informed that their expectations turn out to be true on average.
- The thinking behind such models runs along Austrian lines, that inconsistent expectations imply unexploited profit opportunities, and create scope for entrepreneurial activities to eliminate them.
- Indeed, Austrians are as hostile toward rational dynamic models as are many other camps.

4.8. Empirical Content and Justifying Methodology (Rosen)

- Most neoclassical economists, at least those of my generation and older, judge the value of the enterprise by whether the relatively simple rules of behavior implied by this form of rationality have useful descriptive content and empirical predictive power.
- Many Austrians hold to the view that quantitative empirical work in economics is infeasible or uninteresting because the world is changing so much that "behavioral relationships" inherently are unstable and it is fruitless to estimate them.
- The paucity of quantitative empirical work in the Austrian tradition accounts for why few Austrians are found in the professional economics community today.

Continued...

- Austrians mainly confine their empirical investigations to historical case studies.
- However, the uniqueness of each study and the difficulties of drawing out common elements capable of wider generalization have limited their usefulness in economics.
- A more quantitative approach has dominated empirical research and continue to do so. That kind of research is impossible without sharp definitions and quantifiable concepts.

4.9. The role of Entrepreneurs (Rosen)

- Entrepreneurs are not found in neoclassical economics....Entrepreneurial activities are only possible when the nature of the world is not fully known, when knowledge and information are incomplete and dispersed, precisely the conditions postulated by the Austrian approach.
- Entrepreneurial activity is a disequilibrium phenomena. Entrepreneur is a person who exploits heretofore unrecognized opportunities.
- Rather too much , in my judgment, is made in Austrian theory about defining and interpreting entrepreneurial activities (von Mises, 1949; Schumpeter, 1934, 1962).
- ...totally ignoring the concept of entrepreneurship has a very constraining effect on the neoclassical view of competition. It is precisely here where potential gains from intellectual trade are largest in my judgment.

[매경의 창] 기업 없는 경제학의 비극

경제학에서 ‘경제성장론’은 가르치는데 기업성장론’은 전혀 취급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의 생각은 대신 경영대학에서 자리를 잡았다. 대부분의 대학에서 경제학과는 그냥 ‘학과’로 남아 있다. 반면 기업을 가르치는 경영대는 ‘비즈니스스쿨’로 확대되어 있다.

기업 내 부문인 전략, 회계, 재무, 인사 등이 경제학과에 버금가는 개별 학과가 되어 있다. 교수들의 연봉도 경제학과보다 경영대가 높은 곳이 많다. 필자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건물만 봐도 그 차이가 드러난다고 말한다. 경제학과 건물은 이코노미 클래스이지만 경영대 건물은 비즈니스 클래스라는 것이다.

경제학 교과서에는 기업은 없고 시장만 있다. 그리고 ‘시장균형’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가르친다. 그러나 균형 상태는 혁신이 없는 상태이다. 야심적인 혁신가들은 ‘초과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균형을 깨면서 새로운 일을 벌인다. 그렇지만 경제학에서 이들은 시장질서를 깨뜨리는 존재로 취급받는다. 이런 사고 틀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기업이 새롭게 하려는 일들에 대해 부정적이 된다. 기업이 혁신해나가는 과정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한다.

그러나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비슷한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줄어든다. 대학들이 학교순위 경쟁에 급급하면서 학자들에 대한 평가가 전문 분야 학술지에 낸 논문으로만 거의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숨페터도 없고 펜로스도 없는 좁은 영역에서 수많은 똑똑한 경제학자들이 기술적인 문제에서 `새로운` 것을 내놓기 위해 경쟁한다. 입시성적 잘 받기 위해 매달리는 고등학생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 학술연구에 그렇게 많은 공공자금이 지원되는데도 "쓸 만한 연구가 없다"는 평가가 나오는 큰 이유가 여기에 있다. 기업 없는 경제학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비극이다.

(신장섭, 매경 2016 년 9 월 23 일)

4.10. Conclusion (Rosen)

- Neoclassical dynamics is basically represented as a moving equilibrium process rather than as an Austrian-style perpetually disturbed disequilibrium. ...The data don't care one way or the other.
- The relevant question is which way of thinking works best in practice, and neoclassical economics has its share of successes. The Austrian approach has had its share too, but the spheres in which these successes have occurred are substantially different.

5. "How far away is Vienna from Chicago?" by Giandomenica Becchio

Table 1. Austrians versus Chicagoans

	Individualism	Society	Market	Freedom	Economics
Austrians	True	Spontaneous order	Institution for the coordination of individual plans	Negative in classical liberalism sense, includes values	Human discipline with general regularities
Chicagoans	False	Designed on efficiency	Cartesian plan for reaching an optimal equilibrium	Reduced to efficiency in neoclassical sense	Mathematical science as physics

Continued...

Table 2. Classical Liberalism versus Neoliberalism

	Individuals	Institutions	Ethics
Classical Liberalism (modern age)	Citizens and laymen whose freedom is their final goal, both in private and public life	Systems able to integrate individuals. Market is one amongst the others	Natural rights from where a morality derives
Neoliberalism (post-modern age)	Rational and maximizing agents	Systems able to integrate individuals. Market – performed on efficiency- is the benchmark	Not an issue

6. Two Theoretical Approaches to Human Behavior

Point of comparison	L. von MISES Austrian School	G. BECKER Neoclassical School
1. Concept of the economic point of view: Protagonist of the social process.	Theory of human action understood as a dynamic process: <i>Praxeology</i> : The real man.	Decision theory based on maximization with restrictions: <i>Homo economicus</i> 1st hypothesis: Maximizing behavior.
2. Definition of the means-end relation.	Discovery of means and creation of possibilities.	The means and ends are "given".
3. Dynamism of the key concept.	The person constructs his structure of means and ends in the exercise of entrepreneurship; it is a dynamic structure.	Static and temporal analysis of choice when facing given alternatives.
4. Concept of competition	Dynamic process of discovery	2nd Hypothesis: model of market equilibrium.
5. The project.	The end is projected going beyond the statistically given: the future is <i>something to be done</i> .	3rd hypothesis: stability of preferences over time. The future is a repetition of the past.
6. Division between	Essential difference between: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Continued...

6. Division between areas of study.	Essential difference between: a) non-monetizable social interrelations. b) Monetizable market exchanges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areas. Every decision is quantifiable by means of market prices or shadow prices.
7. Concept of society.	Tendency to the coordination of social interrelations.	The social framework is exogenous to the model. In the extended utility function there appears social capital, which includes the social elements.
8. Concept of culture.	Cultural transmission of the possibilities of action.	The cultural framework is exogenous to the model. In the <i>extended</i> utility function, there appears the social capital, which includes the cultural elements.
9. Structure of the model.	Praxeological categories, universal and necessary. Dynamic structure of the action.	The three hypotheses determine, as a condition of equilibrium, the equality of marginal utilities weighted by prices.

7. Contextual Economics

From Outer Circle to Center Stage: The Maturation of Heterodox Economics

by Neva Goodwin (2008)

7.1. Contextual Economics

- One motivation behind the growth in sophistication of techniques in neoclassical economics has been the hope that more complex tools could handle a richer, more complex view of reality.
- Fifty years of intensive experimentation with this hypothesis have failed to confirm it; the evidence suggests, indeed, that this is a dead-end road.
- “More of the same” will not be the solution; greater realism may require the use of simpler rather than more complex tools.

7.2. Scientific Approach-Neoclassical

- A respect for observed facts.
- A continual attempt by researchers to be as objective as possible. To this end it is important to be aware of personal values and possible biases.
- Recognition of a scientific community that can, collectively, compensate (to some degree) for one another's biases and arrive at more certainty than is possible for a single individual.
- Findings presented in such a way that the logic of the argument can be understood and assessed by the larger community of potential users (i.e., avoid jargon).
- A structure that permits and encourages the accumulation of knowledge and understanding.

Continued...

- Efforts to achieve a reasonable degree of internal consistency in the theory—noting, however, that a determination to achieve perfect internal consistency can result in premature closure, making it harder to incorporate later improvements.
- Openness to continual change, as the discipline accumulates knowledge and wisdom, as events disprove some tenets, as change occurs in the subject matter of the discipline, and as changing times require different emphases.

7.3. Contextual Economics

- All scientific theory exists in a tension between complexity and simplicity.
- A critical aspect of any scientific—or social scientific—endeavor is the decision of where to draw its lines: what it will include and exclude.
- Attention to contexts has forced us, in developing contextual economics, to broaden the scope of our inquiry, taking into account things that the neoclassicals have chosen to ignore.
- Attention to goals forces us to pay more attention to the minds of the human beings who are the subjects and the actors in economics.

Continued...

- The word theory has a useful, common meaning: it refers to a set of generalizations and abstractions that aid in understanding a defined set of facts or events.
- When the word is used in neoclassical economics it simply refers to whatever type of symbolic model is in fashion at the moment.
- In contextual economics the term is restored to its wider, common meaning. Theory abstracts from specific cases, finding the generalizations that will fit a large number of individual cases.

7.4. What basis an economic theory should be judged.

- An economic theory should contribute to an understanding of the workings of the actual economy to which it is directed.
- As a science, it should provide this understanding in a manner that accords with scientific principles of evidence, logic, and so forth.
- As a social science, it should also provide a basis for judging the success of the actual economy and for choosing policies and actions that will cause the economy to develop in a healthy direction.

Continued...

- These criteria suggest a role and a responsibility beyond what neoclassical economics has accepted.
- The neoclassical claim to be “value free” was originally based on a dual wish: to escape Victorian judgmentalism and to look like a “hard” science (such as physics).

7.5. Guide Lines for Contextual Economics

- That process must begin with selection. A useful, relatively “true” theory is one in which
- The necessary selection and simplification of facts and concepts are done appropriately, emphasizing the issues that are most important to human experience as well as those that are most useful for achieving an understanding of economic realities.
- The most critical logical relations (such as causality, temporal sequence, and exclusivity) among the selected elements are appropriately identified.
- There are contextual guide lines to indicate the circumstances under which the selection of critical elements and the identification of their logical interrelations will be more—and less—relevant.

시카고학파와 오스트리아학파의 비교

김 정 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전 한국경제학회 회장

1. 시카고학파와 오스트리아학파의 특징

- 1) 시카고학파 : (1) 밀턴 프리드만(Milton Friedman)을 중심으로 단기적으로는 통화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장기적으로는 화폐의 중립성을 강조하는 신고전학파, (2) 정부개입보다 완전경쟁시장을 강조하는 학파 (3) 통화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고 실물시장만 중요시 여기는 합리적 기대학파와는 차이점이 있음
- 2) 오스트리아학파 : (1) 주관적 효용가치를 강조하는 한계효용학파, (2) 정부의 개입이 없는 시장경제를 강조하는 하이에크를 중심으로 하는 자유주의학파

2. 유사점

- 1) 자유주의 사상
- 2) 시장경제 옹호
- 시장경제란 (1) 완전경쟁시장을 유지하는 경제 (2) 정부의 개입이 없는 경제 (3) 자본주의 경제 등 다양한 개념이 있는데 이 중에서 여기에서 시장경제란 정부개입이 없는 시장을 의미함
- 3) 사유재산제도(자본주의)
- 4) 외부효과가 존재할 경우 정부개입 없이 사적계약에 의해 소유권(property right)유지 (Coase Theorem)

3. 차이점

1) 인간의 본성에 대한 가정

(1) 시카고학파

- 정통경제학의 방법론으로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경제주체를 가정: 이기적인 본성이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외부성)을 막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정부규제가 필요
- 시장경제를 주장한 아담 스미스는 인간은 이기심 때문에 사회질서가 혼란해 질수 있으나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동감(Sympathy)이 있기 때문에 사회질서가 유지됨 (도덕감성론) - 그러나 이기심이 타인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면 법이 필요하고 정부가 개입해야 함

(2) 오스트리아학파

- 이기적이지도 이타적이지도 않는 경제주체를 가정하고 정통경제학이 가정하는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경제주체보다는 행복을 추구하는 주체를 강조함
-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제한적이어서 비합리적이고 불완전한 존재 (하이에크는 이를 인간의 구조적 무지라고 표현)
- 그러나 행동규칙이 사회질서를 지켜주는 역할을 함. 정부의 개입없이 자율적으로 질서가 유지됨

2) 시장경제에 대한 정의 : 완전경쟁시장, 자본주의경제, 정부규제가 없는 시장경제

(1) 시카고학파

- 정부규제가 없는 완전경쟁시장 체제를 강조함. 그러나 진입규제에 의한 독과점의 경우에만 정부규제 필요.

(2) 오스트리아 학파

- 정부규제가 없는 시장경제를 강조함. 정부규제에 의한 독과점은 반대하나 시장을 통해 발생한 독과점은 소비자선호를 충족시킨 것이므로 나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함

3) 통화정책과 경기변동에 대한 견해

(1) 시카고학파

- 통화량의 제한이 경기변동을 초래하고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통화정책이 중요함
- 1930년대 세계대공황은 고정환율제도하에서 통화량을 충분히 늘리지 못했기 때문임. U.C. Berkeley의 Eichengreen 교수는 이를 Golden Bracelet(황금 족쇄)으로 표현함.
- 통화정책은 경제위기를 해결할 수 있음
- 중앙은행이 중요성을 인정함.

(2) 오스트리아학파

- 경기변동은 소비와 투자에 있어서 시간선호, 소비자의 기호변화, 기술과 자연자원 변화의 결과임.
- 인위적인 통화정책은 이자율을 변동시켜 시간선호에 영향을 주어 소비와 투자를 변동시켜 경제위기와 침체를 촉발시킴. 경기변동과 경제위기는 정부의 시장개입의 결과임
- 통화정책을 중앙은행이 독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 Free Banking 선호함.

4) 다른 모든 여건이 일정하다는 가정

(1) 시카고학파

- 정통경제학으로서 신고전학파는 Ceteris Paribus 가정을 신봉(제도, 법등 경제에 미치는 다른 모든 여건이 일정하다고 가정하여 비현실적 분석을 함, 이는 수학을 사용하는 경우 많은 변수를 모형에 포함시킬 수 없기 때문임)
- “한계혁명이전의 정통경제학은 정치, 법, 역사, 사회 등의 요인을 고려해서 현실 경제 문제를 분석하였으나(political economy) 한계혁명이후의 신고전학파와 합리적 기대학파의 경제학은 이들 인접학문과 이혼하고 물리학과 수학과 결혼하여 얻은 것은 노벨경제학

상이며 잃은 것은 현실경제를 분석하지 못하는 것이다.”

- 그러나 시카고학파는 신고전학파의 방법론 속에서 제도와 법등의 요인을 포함시키려는 노력을 하였음. 법경제학과 공공선택이론 등의 발전에 역할을 함. 또한 오스트리아학파의 견해를 신고전학파의 방법론으로 발전시키는 데에 있어 역할을 했음

(2) 오스트리아학파

- 제도 등 다양한 여건의 변화를 고려함(일부는 제도학파로 발전함),

- 인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그 결과를 분석함. 경제학은 인간행동학으로 정의함.

- 자생적 질서로 선호하고 정부개입에 의한 인위적 질서를 반대함, 시장경제와 같은 자생적 질서가 바람직하며 관료의 생각에 의해 만들어진 인위적 질서는 인간행동을 왜곡시켜 기업도산등 비용을 발생시킴.

- 정부가 만든 인위적 질서는 인간의 이성을 과대평가하고 있음

4. 두 학파의 동거 가능성

(1) 정부의 간섭주의를 반대하는 신자유주의 하에서 공존가능

(2) 시카고학파와 오스트리아학파 모두 정부의 규제가 없는 시장경제를 주장함. 독과점에 대해서는 오스트리아학파는 정부의 진입제한으로 인한 독과점은 규제가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고 시장에서의 자생적인 독과점은 규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함. 시카고학파 또한 정부진입규제에 의한 독과점은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함. 그러나 독점의 범위에 대해 고민하면서 독과점 규제에 대해서는 오스트리아학파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입장을 취함.

(3) 통화정책에 대해서 시카고학파는 경기침체를 막을 수 있는 유용한 정책수단이며 중앙은행의 역할은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오스트리아학파는 중앙은행의 시장에 대한 개입이 경제위기를 촉발시키는 원인으로 봐서 자유은행제도를 선호함.

(4) 시카고학파는 전통적인 신고전학파의 가정을 중요시하여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경제주체를 가정하는 반면 오스트리아학파는 이기적이지도 이타적이지도 않은 완전한 정보를 가지지 않은 그리고 행복을 추가하는 경제주체를 가정함.

(5) 신고전학파에서는 제도등 경제에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배제한 채 경제적 요인만으로 경제현상을 분석하는 데에 비해 오스트리아 학파는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고 있음. 그러나 시카고학파와 오스트리아학파는 모두 제도와 같은 비경제적 요인을 중요하게 생각함. 공공선택이론과 법경제학 등에 있어서 시카고대학의 역량이 뛰어나며 이들은 신고전학파의 분석방법으로 제도와 법의 역할을 모형화하고 있음.

(6) 주류경제학은 오스트리아 학파의 다양한 아이디어나 가정을 주류경제학의 방법론을 이용하여 점진적으로 포함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음. 행동경제학에서는 비합리적인 경제주체를 가정하고 있으며 계약과 같은 법적 요인이나 기업이론 등을 포함시키고 있음. 주류

경제학에 미치는 오스트리아 학파의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음.

(7) 유사한 점과 차이점 모두가 있어 한지붕 두가정이라고 할 수 있음.

“한 지붕 두 가정, 오스트리아학파와 시카고학파” 논평

신 중 섭
강원대 윤리교육과 교수

(1) “한 지붕 두 가정, 오스트리아학파와 시카고학파”라는 김인철 교수의 글은 자유주의 경제학이 MSP라는 한 지붕 아래에 두 가정을 형성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오스트리아학파와 시카고학파를 분석한 글이다. ‘한 지붕 아래에 두 가정’이 존립하고 있다는 지적을 통해 ‘한 지붕’이라 할 수 있는 공통점과 두 가정이라는 차이점을 잘 부각시켜주고 있다. 발표자가 지적하였듯이 오스트리아학파와 시카고학파는 개별적으로는 많이 소개되었지만, 두 학파의 특징을 비교한 연구는 많지 않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발표자의 글은 큰 의미를 갖는다.

(2) 발표자의 글에 등장하고 있는 몽펠르랭 소사이어티, 오스트리아학파, 시카고학파의 역사적 배경은 서로 다르다. 오스트리아학파는 칼 멩거의 『경제학 원리』(1870)에서, 시카고학파는 1930년대, 몽펠르랭 소사이어티는 1947년에 출발하였다.¹⁾ 그런데 몽펠르랭 소사이어티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은 단순하지 않다. 몽펠르랭 소사이어티는 경제학계의 학자들과 뒤에 정계로 진출한 쟁쟁한 인사들을 회원으로 가지고 있지만 이들은 모두 개인의 자격으로 활동한 것이지, 이 학회의 대표자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니다. 이 학회는 어떤 정치적 행동도 하지 않고 회원들 간에 토론, 토의, 연구와 자기-교육과 상호 교육을 했다. 몽펠르랭 소사이어티는 공식적인 입장이나 정책을 발표하지도 않았고 공동 선언을 한 적도 없다. 몽펠르랭 소사이어티 회원들은 토론을 통해 합의에 도달하려고 노력한 적도 투표를 한 적도 없다. 다만 솔직한 논의만을 격려하였다.

몽펠르랭 소사이어티는 제2차 세계 대전 이전과 이 전쟁 중에 유럽을 지배한 사회적·정치적·지적 그리고 도덕적 파멸에 대한 반응으로 나왔다. 몽펠르랭 소사이어티의 목적은 전후의 어둠 속에서 자유주의(유럽적 의미)의 지적 횃불을 밝히는 것과 당시 유행하고 있었던 중앙 집중을 옹호하는 개입주의자들을 비판하는 것이었다. 창립 멤버들은 ‘자유가 위협당하고 있다고 생각했으며, 자유를 지키기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공동의 위기 의식을 공유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러한 위협이 역사·사회·경제에 대한 잘못된 지식의 결과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들은 정치적 행동 대신에 지적인 이념 전투(intellectual battles of idea)에서 승리하려고 하였다.

몽펠르랭 소사이어티는 이 전투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자유주의 철학을 확장하고 심화시켜 세계에 전파하였다. 느슨한 형태의 조직을 이룬 몽펠르랭 소사이어티의 회

1) 몽펠르랭 소사이어티에 대한 설명은 Eamonn Butler, “A Short History of Mont Pelerin Society : Based on *A History of the Mont Pelerin Society* by Max Hartwell”에서 가져온 것이다. 이 글은 MPS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다.

원들은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의 힘에 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자유사회의 이념을 지지하였다. 물론 어떤 사회가 자유 사회이고 어떻게 그것을 달성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했다. 몽펠랭 소사이어티를 창립한 하이에크는 몽펠랭 소사이어티를 자유주의 이념을 토론하고 확산하기 위한 ‘국제적 아카데미’로 보았다. 그가 말한 아카데미는 교수와 학생이 있는 아카데미가 아니라 토론과 자기-교육을 모색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로서의 아카데미였다. 이 아카데미 회원들은 자유주의 철학을 옹호하고 지원하고 발전시키려 하였다.

그러나 몽펠랭 소사이어티 회원들은 사회에 대해 서로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 어떤 사람은 아나키스트였고, 어떤 사람은 자유지선주의자였고 어떤 사람은 고전적 자유주의자였다. 몽펠랭 소사이어티 회원들의 전공은 아주 다양하였다. 창립 회원 39명 가운데는 경제학·정치학·철학·역사학 등 다양한 지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언론인, 화학자, 외교관, 기업인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속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방법론적 개인주의자였고 어떤 사람은 신고전적 한계효용주의자였다. 회원들의 관심사도 다양하였다. 여러 면에서 다양하다는 것이 몽펠랭 소사이어티의 강점이었다. 다만 몽펠랭 소사이어티 회원들은 안정과 자유를 증진시킬 수 있는 자유주의적 경제 질서와 정치질서에 대해서만 일반적인 합의를 가지고 있었다. 2010년까지 회원 가운데 9명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였다.

이러한 다양성은 오스트리아학파와 시카고학파에서도 발견된다. 물론 주관주의, 방법론적 개인주의, 시간(time, 역사성), 시장 과정과 기업가 정신에 대한 강조가 오스트리아학파를 다른 학파와 구별 짓는 특징이라고 하지만²⁾, 이 학파에 속한 많은 학자들 사이에 뚜렷한 차이점도 존재한다. 시카고학파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 프랭크 나이트에서 시작하는 시카고학파에는 각각의 독창적 업적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여러 경제학자들이 포진해 있고, 시카고 대학과 인연을 맺은 무수히 많은 경제학자들이 포함되어 있다. 시카고학파에는 법경제학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한 경제학자들도 있고, 같은 시카고학파라도 프리드먼과 베커의 관심이 다르다. 이들은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옹호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것을 적용하는 분야는 제 각각이다. 따라서 이들 사이에서 학문적으로 공통점을 도출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러한 사실은 요한 판 오페르트벨트가 쓴 『시카고학파』³⁾에 잘 나타나 있다.

(3) 오스트리아학파나 시카고학파에 속한 것으로 분류되는 학자들은 강한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모든 문제에 대해 입장이 같은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사회주의나 국가의 계획에 반대한다는 점에서는 오스트리아학파에 속하는 미제스, 하이에크와 시카고학파에 속하는 밀턴 프리드먼이 같지만 그것을 반대하는 이유는 다르다. 미제스, 하이에크는 합리

2) Nigel Ashford and Stephen Davies (eds), *A Dictionary of Conservative and Libertarian Thought*, Routledge, 1991, ‘Austrian economics’, ‘Chicago School’ 항목, 알렉산더 H. 샐드, 『시장 자유와 도덕성』, 이상호 옮김, 문예출판사, 1996. 에이머 버틀러,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 입문』, 황수연 옮김, 리버티, 2015. 자유주의경제연구회, 『시카고학파의 경제학』, 민음사, 1994. 홍훈, 『마르크스와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제사상』, 아가넷, 2000. Randall G. Holcombe, *Advanced Introduction to The Austrian School of Economics*, EE, 2014.

3) 요한 판 오페르트벨트, 『시카고학파』, 박수철 옮김, 에버리치홀딩스, 2011.

적인 경제 계획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프리드먼은 시장이 정부보다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배분한다는 이유로 반대한다. 일반적으로 오스트리아학파와 시카고학파는 방법론에서 차이를 보인다. 하이에크와 프리드먼이 지지하는 방법론이 다르다.⁴⁾ 그러나 어떤 점에서는 오스트리아 학파 에 속한 학자들 사이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미제스는 실험주의를 지지하지만 하이에크는 그렇지 않다. 그렇다고 시카고학파에 속한 학자들이 모두 방법론에 대해 공통적인 입장을 보인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오스트리아 학파와 시카고학파 사이의 차이점을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별 학자들 사이의 차이점에 초점을 맞추어 방법론을 논의하는 것도 흥미로운 결과를 도출할 것이다.

(4) 얼마 전에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자유를 향한 전투: 우리가 서있는 곳과 진보를 향한 여정(The Battle for Freedom: Where We Stand, Roads for Progress)”이라는 주제를 걸고, ‘2016 몽펠르랭 소사이어티(MPS) 연례총회’가 개최되었다. 세계적인 역사학자인 니얼 퍼거슨 하버드대 교수는 오찬 연설에서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보호무역과 정부의 시장 개입 등 쉬운 해법을 찾으려는 정치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경고하면서, 글로벌 금융 위기 후 무역과 재정, 규제 부분에서 미국의 경제 자유도(度)가 내려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최근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보호무역주의와 같은 포퓰리즘 공약으로 경쟁을 벌이고 있어 누가 집권하든 미국 경제가 더 나아질 희망은 없다고 걱정하면서, “자유시장 경제의 중요성을 일깨울 만한 교육기관과 단체에 대한 투자가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니얼 퍼거슨은 규제 강화와 재정 투입 확대, 불공정 무역 제재, 규제와 보호무역정책을 외치고 있는 미국 대선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니얼 퍼거슨은 “이런 포퓰리즘 정책이 발 디디기 힘들게 하기 위해서는 경제 교육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런 때일수록 자유 시장 경제의 가치를 연구하고 전파할 수 있는 민간단체와 교육기관 등에 대한 투자가 시급함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기업들이 대학 등에 기부하는 것보다 자유시장 경제의 인프라에 해당하는 단체들에 투자할 것을 제안했다.⁵⁾

역사학자답게 니얼 퍼거슨은 MPS의 설립 취지를 정확하게 간파한 것이다. 그는 ‘철학자 소크라테스처럼 합리적 의심을 기반으로 끊임없이 주류 사상에 의문을 던지고 새로운 해법을 찾으려고 노력해 온’ MPS를 높이 평가했다. 자유를 위한 MPS의 노력을 ‘전투’로 생각해야 할 만큼 우리 상황은 위중하다. 자유에 대한 위협은 오늘의 문제만은 아니다. 니얼 퍼거슨의 우려와 제안은 미국사회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나라는 이보다 더 위급한 사정에 처해 있다. 이런 마당에 내년 서울에서 MPS 지역 총회가 열린다. 이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도 몽펠르랭 소사이어티의 자유주의 철학 정신이 널리 확산되길 기대한다.

4) 신중섭, “과학주의와 자유주의”, 『자유와 시장』 제1집 (2009) 참고. 일반적으로 프리드먼의 방법론은 실증주의라 불리지만, Pheby는 프리드먼의 방법론에 ‘도구주의(instrumentalism)’라는 이름을 부여했다. Pheby는 실험주의에서 출발한 미제스의 방법론이 다른 오스트리아학파의 학자들에 의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잘 설명하였다. John Pheby, *Methodology and Economics: A Critical Introduction*, M.E.Sharpe, Inc, 1988, pp. 81-113.

5) 신중섭, “경제적 자유, 법의 지배가 더욱 필요한 때” (KERI 칼럼, 2016년 9월 30일)

“한 지붕 두 가정, 오스트리아학파와 시카고학파”

논평

황 수 연

전 경성대 행정학과 교수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 회장

이 발제문은 오스트리아학파와 시카고학파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 방법론과 경제 대공황의 원인 분석에 초점을 맞추어 고찰하고 있다. 본 토론자는 이 발제문이 자유주의 경제학의 세 학파 중 두 학파(다른 한 학파는 공공선택학파다)를 명쾌하게 비교하고 있는 점을 보았고 발제문의 내용에 거의 대부분 동의한다. 그러나 발제자께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시카고학파 학자인 연유로 아무래도 시카고학파의 주장에 우호적인 것 같으므로 본 토론자는 균형을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발제문과 관련하여 오스트리아학파를 두둔(?)하는 입장에 서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지면 관계상 몇 가지 점만 지적하고자 한다.

오스트리아학파와 시카고학파는 방법론에서 차이가 있다. 시카고학파는 실증주의 혹은 경험주의 접근법을 사용한다. 이론의 목적은 ‘예측’에 있고 예측을 잘 하는 이론이 훌륭한 이론이며 이론이 예측을 잘 한다면 가정이 현실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고 가정의 타당성 여부가 가정의 현실성 여부와 관계없이 이론의 예측 가능성에 달려 있다고 주장한다. 예측은 이론의 중요한 기능에 속하므로 그 자체 나무랄 것이 없지만, 무리를 하는 경우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시카고학파의 접근법을 ‘말의 입을 벌려 이빨을 세는 방식’이라고 혹평을 가하기도 한다. 오스트리아학파는 이것이 이빨을 세는 데는 아주 적합할지 모르지만 목적 지향적 인간 행동의 연구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오스트리아학파가 사용하는 방법은 목적 있는 인간 행동과 자원의 희소성이라는 공리를 가지고 논리적 연역에 의해 진행되는 연역적 방법이다. 따라서 오스트리아학파는 경제 현상의 ‘설명’에 초점을 둔다. 그들은 이러한 것만으로도 경제 현상을 거의 대부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물론 미제스-로스버드 입장에 비해 하이에크 입장은 관찰, 실험, 측정에 개방적이지만 그래도 시카고학파의 입장과는 현저하게 다르다.

예측에 사용되는 계량경제 기법은 자칫 남용될 수 있다. 남용의 예를 하나 들어보자.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검토하는 데서 흔히 많은 연구자들은 유의미한 관계가 나올 때까지 변수 형태도 바꾸고 자료도 확대·축소해 가면서 회귀 분석을 반복한다. 그러다가 유의미한 관계가 나오면 자신의 이론적 함의가 검증되었다고 결론짓는다. 그러나 이것은 일종의 사기가 될 수 있다. 두 변수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료도 무작위로 반복 추출하면 20개 중에 한 개 정도는 5% 유의 수준에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온다. 오늘날 컴퓨터의 시대에 변수와 자료를 조금씩 바꾸어 반복적으로 관계식을 도출하기는 매우 쉽다. 그 결과 여러 번의 실행들 중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은 내버리고 유의미한 것을 골라 그것을 보고한다. 그러나 모집단에서는 사실은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

시카고학파가 경제 현상의 예측에 관심이 있으니 자연적으로 균형에 관심을 기울인다. 오스트리아학파가 경제 현상의 설명에 관심이 있으니 자연적으로 과정에 관심을 기울인다. 목적이 다르니 어느 쪽이 옳고 어느 쪽이 틀렸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한 쪽에 관심을 기울이면 다른 쪽을 잘 전달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그런 면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시카고학파가 설득력 있는 기업가 정신과 성장 이론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도 그들이 예측과 균형에 치중하는 면에서 연유한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어, 루커스의 균형 경제 성장 모형이 인적 자본과 기술 진보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거기에는 기업가 정신의 역할이 빠져 있다. 경제 성장에서, 더욱더 엄밀하게 경제적 진보에서, 기업가 정신이 얼마나 중요하고 어째서 중요한지는 오스트리아학파 학자들이 제대로 설명하고 있다.

본 토론자는 밀턴 프리드먼과 오스트리아학파 학자들이 제기하는 대공황의 원인에 대한 주장이 양쪽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주장들을 이해할 수 있지만, 프리드먼의 주장에 대해 의문도 든다. 물론 양쪽 다 대공황이 시장 실패가 아니라 정부 실패라고 주장한 점에서 옳았고, 틀린 것은 그것을 시장 실패라고 본 케인스학파 학자들이었다. 사실 대공황은 많은 요인들에 의해 일어났지만 그것을 요약하면 정부 실패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발제문에서 프리드먼이 1920년대에 통화량 증가가 없었다고 했다는 것에 대해 의문이 든다. 그도 1914년 FRB가 탄생한 이후 자의적으로 통화 공급을 확대한 점을 비판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발제문에서 그가 통화 확대에 따른 인플레이 현상을 찾아낼 수 없었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통화 공급 증대는 일반 재화의 물가를 올리기도 하지만 그 대신 증권이나 부동산 가격도 올린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교환 방정식을 보통 $MV = PQ$ 로 나타내지만, 더 엄밀한 화폐 수량설은 $MV = PQ + P'Q'$ 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에 따라 M의 증대는 일반 재화의 물가 P를 올리기도 하지만 대신 증권이나 부동산 가격 P'의 상승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1929년의 대공황은 주식 가격 상승으로, 2008년의 금융 위기는 주택 가격 상승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가격 상승의 원인은 통화 공급 증대라는 것이 오스트리아학파 주장이다. 따라서 통화량 증가가 물가(가격) 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다.

사실 오스트리아학파 학자들은 물가 수준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는다. 물가 수준이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가격의 상승과 하락이 있을 뿐이다. 물가 수준을 마치 욕조에 물이 차오르듯이 균일하게 오르는 것으로 비유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미세스의 비유대로 눈사태처럼 혹은 하이에크의 비유대로 식탁에 떨어진 당밀처럼 가격 상승은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다르게 일어나고, 동시에 어떤 재화는 가격이 오르고 어떤 재화는 가격이 내린다.

발제문이 언급하듯이, 프리드먼은 시중에 통화가 필요할 때(1931년) FRB가 통화를 공급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통화 대수축)이 대공황의 근본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FRB는 경기 과열, 투기를 막기 위해 1928년 중반 이후 긴축 통화 정책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프리드먼은 그것이 곧 조정될 것이므로 큰 문제가 아니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1931년 통화가 절실히 필요한 때 통화량을 늘리지 못한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영국이 금 본위제로부터 이탈하여 통화 축소를 더욱 심화시켰다고 한다. 그 결과 1929년 7월부터 1933년 사이 화폐 스톡이 1/3이 축소되었으며 그러한 감

소의 2/3는 영국의 금 본위제 이탈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스트리아학파 학자는 FRB가 1930-1931년에 전례 없는 저금리 정책을 채택하여 경기 부양을 시도했다고 주장한다. 프리드먼과 달리 오스트리아학파 학자는 FRB의 실책이란 유동성을 너무 적게 공급한 것이 아니라 1920년대에 금융 시장에 돈을 너무 많이 풀었고 주식 시장이 폭락한 후에는 더욱 싼 이자로 부실기업들을 지원하려는 데 있었다는 것이다. FRB는 주식 시장이 폭락한 후부터 1931년 9월까지 할인율을 크게 인하했다. 그러나 반대자들은 이러한 할인율 인하의 크기가 통화 공급 확대에 충분하지 못했다고 반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1920년-1921년의 공황 기간에 할인율이 기록적으로 높았지만 공황은 진정되었다는 점을 생각할 때 반론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오스트리아학파에 따르면 증가한 화폐 공급은 인위적으로 낮은 이자율을 초래했고 주식과 부동산 같은 자본 프로젝트들에 대한 투자를 자극했다. 1929년에 그러한 부적합 투자들은 청산되는 중이었고 진정한 소비자 수요에 기반을 둔 생산으로 이동하는 중이어서 필요한 조정이 시작되고 있었는데, 후버 행정부가 이 하강을 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대응했고 그것을 대공황으로 바꾸었다는 것이다. 물론 루스벨트 행정부가 배턴을 이어받았다.

화폐 공급 증대와 관련, 오스트리아학파와 시카고학파는 금 본위제에 대한 입장이 서로 다르다. 밀턴 프리드먼은 금 본위제를 유지하는 것이 사회적 자원의 낭비라고 주장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땅 속에서 금을 캐어 배에 싣고 와서 미국 포트 녹스에 파묻는 것은 어리석은 짓인데, 그 과정에서 인력, 재료, 기계 등이 낭비되며 그런 희소 자원은 차라리 생활수준을 증대시킬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오스트리아학파는 도둑질을 막는 데 종이 자물쇠가 싸다고 금속 자물쇠 대신 종이 자물쇠를 써서 되겠느냐고 반문한다.

밀턴 프리드먼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후 자신의 화폐 처방을 재고하게 되었다. 1986년의 논문 “불환 지폐의 자원 비용”에서 ‘화폐 체제의 기초로서 금을 채굴하고 주조하고 저장하는 비용이 지폐 인플레이션과 중앙은행의 화폐 및 이자율 조작으로 야기된 경기 순환의 호황과 불황 때문에 사회에 부과된 파괴적이고 교란적인 비용보다 훨씬 더 적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1985년 서부경제학회 회장 취임 연설 ‘경제학자들과 공공 정책’에서도 정부와 중앙은행에게 화폐 준칙에 따른 자기의 견해를 따르게 하려고 애썼던 것이 ‘시간 낭비’였다고 인정하였다.

대공황은 통화 정책 외의 다른 요인들도 많다. 토론자는 경제학 개론 수업 시간에 대공황의 원인들이라고 생각되는 것 거의 모두를 나열해 놓고 시장의 실패인 것을 고르라는 시험 문제를 학생들에게 내곤 했다. 나열된 것은 1920년대 FRB에 의한 화폐 공급, 후버 대통령의 고임금 정책, 스무트-홀리 관세법, 소득세율 인상, 부흥금융회사에 의한 대기업 구제, 금 본위제 폐지, 미국 부흥국 설립, 최저 임금제, 농업 조정법, 미분배 이윤세 제도, 와그너법, 임금 및 근로 시간법. 답은 물론 “시장 실패 없음”이고, 이것들은 모두 정부 실패였다.

마지막으로 MPS와 관련된 삽화 하나를 언급하고자 한다. 밀턴 프리드먼이 1970년 MPS의 회장이 되었을 때, MPS의 조직이 너무 커져(1970년 회원들의 숫자는 330명) 비효율적이므로 프리드먼은 1971년 9월 특별 이사회를 소집하여 다음 해에 모임을 해체할 것을 제안했다고 한다. 이사들의 반대로 해체는 되지 않았지만, 대안으로 더 많은 지역

회의들을 가지고 총회는 2-3년에 한 번씩 가지며 매년 추가되는 신입 회원의 숫자는 25명으로 제한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회원 수는 크게 늘어났다(1984년 461명). 지금은 숫자가 훨씬 더 늘어났을 것이다(유감스럽게도 본 토론자는 숫자를 모른다). 자유주의자들의 숫자는 외국이나 우리나라나 적지만, 그래도 외국은 우리보다 상황이 더 낫다.

좋은 경제학을 찾아서 2016

: 주류경제학과 오스트리아학파의 만남

편 저 | 김인철 · 윤상호

발행처 | 자유경제원

발행인 | 현진권

주 소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9, 신화빌딩 13층 (우편번호:04165)

이메일 | webmaster@cfe.org

팩 스 | 02) 761 - 5058

© 자유경제원 2016

이 책의 내용에 대한 저작권은 자유경제원에 있습니다.